



# 올림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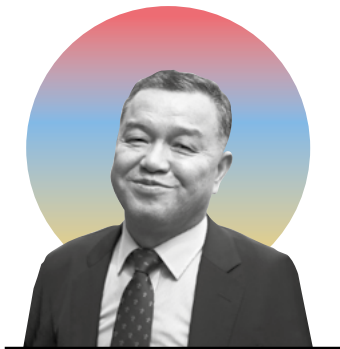
## 울림

광주문화예술교육의 작은소리가 널리 울려퍼지도록 곳곳에 소식을 전하고,  
전달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함으로 울린다는 의미의 '울림'은  
9명의 통신원들의 시선으로 본 문화예술교육 현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06	열다	발간사 사업소개 및 통신원소개
18	칼럼	전문가 칼럼
48	취재현장	김수영 김수환 김재철 김태희 마민주 송진주 이하영 정연이 이인행
200	2019 뉴스레터	뉴스레터 목록 취재결과 인포그래피
204	닫다	맺음말



# 시민중심 광주형문화예술교육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윤기**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로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고 예술로 스스로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시민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1년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에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미래 문화시민 육성**이라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창의예술학교는 2012년부터 8년 동안의 문화예술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광주만의 특색있는 문화예술교육콘텐츠를 창·제작하여 광주의 문화예술교육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경자씨와 재봉틀”, “청년인생설계학교”, “지역씨의 인생부록” 같이 세대별 생애전환시점에 맞는 기획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높였으며,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위한 창의예술연구소는 교사대상, 기획자나 문화예술교육 강사를 위한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활성화와 환경 조성을 위한 “서로배움”을 기획·운영하였습니다.

지역의 문화시설·단체와의 협업 사업인 주말 아동·청소년과 가족 여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꿈다락토요문화학교운영사업과 시민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는 동네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의 질 개선과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기획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사업 그리고 지역 아마추어 동아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술동아리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신규로 5·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들의 현장경험과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광주의 문화예술교육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광주형 문화예술교육플랫폼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20년 광주시민이 문화예술교육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모음**



#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여기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입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기반 강화를 위해 광역센터로 지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을 따름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지역특화형 문화예술교육콘텐츠를 구축하고  
지원의 효과적 방식과 내용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이를 위해 연간 사업 총액은 19억여 원으로, 센터운영 및  
기획사업과 보조금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고을시민문화관 내 사무실 및 아트스페이스에  
대강당과 교육 자료실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GWANGJU CULTURAL FOUNDATION

## 광주문화재단

### 비전

광주 문화를 바꾸는 협력 플랫폼

### 미션

문화로 풍요로운 광주,  
예술로 아름다운 시민

##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

### 비전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핵심 가치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하모니 타워



## 전략목표

지원의 효과적 방식과 내용 발전방향 모색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확대





팀목표

우리 ‘들’이 행복해지는 배움, 광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추진

거점문화예술배움터조성사업  
창의예술학교  
문화예술교육정책기반사업

문화예술교육 인적·물적 연계 및 역할 모색 추진

창의예술학교  
창의예술교육연구소  
문화예술교육축제  
광주문화예술교육정보구축 및 제공활성화

문화예술교육환경조성 지원 추진

토요문화학교운영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예술동아리교육지원  
유아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지원  
문화예술작은도서관

문화예술교육센터 역할강화 추진

문화예술교육기관 협의회  
문화예술교육 ODA사업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 연혁

2008.12

광주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2009-2014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남구 사동)

2014

빛고을시민문화관 및  
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 교육자료실)

2019 주요업무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사업

예술동아리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 작은도서관



GWANGJU CULTURAL  
FOUNDATION



#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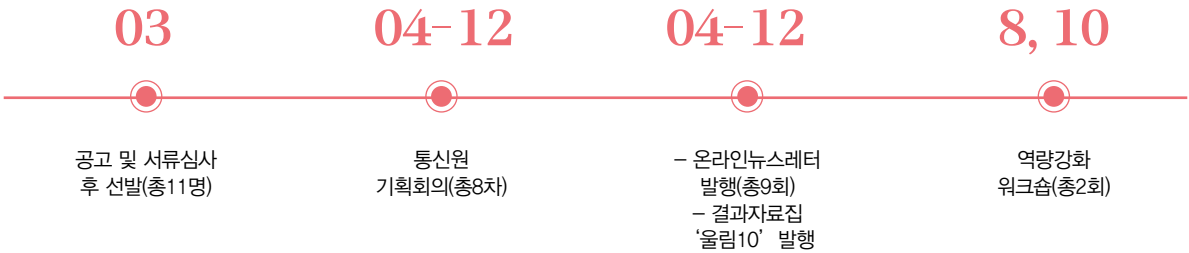
사람과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연결하다



사업명	2019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사업
사업기간	2019년 3-12월
사업비	30,000,000원
통신원	문화예술교육 현장 글쓰기와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광주시 거주자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사업은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지역의 청년들을 통신원으로 선발해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해, 매월 뉴스레터 올림을 온라인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DB 구축을 통해 홈페이지에 아카이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추진일정



## 10기 통신원을 소개합니다.



## 사업운영

03-12	광주시민	광주전역	30,000천원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장소	사업예산
9명	104건	9건	2회
통신원	취재	정기회의	워크숍

# 제 10기 통신원 소개



## 김수영 | 일반 통신원

나에게 삶이란 다시없을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나의 즐거움을 찾으러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가고자한다. 즉 나에게 즐거움은 삶의 목표이자 이유가 된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예술을 통해 내가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듯 많은 사람들도 예술과 함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다. 이번 통신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예술 옆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살아갈 것이다. 예술과 함께...

## 김수환 | 일반 통신원

다이나믹한 뉴욕 생활을 마치고 잠시 쉬어간다 생각했다. 그러나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낀다. 마루에 누워 강아지와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것과 책이 가득한 서재에서 멍 때리는 것이 즐겁다. 간단함, 재미, 그리고 솔직함으로 독자들을 매료시키고 싶다. 나아가서 간결하면서 핵심을 찌르고, 뼈를 때리는 문장으로 독자들이 통쾌함을 느낀다면 더할 나위 없다는 생각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깊은 사유로 사람들의 내면에 편안을 주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란다.

## 김재철 | 일반 통신원

문화예술 통신원을 하고 있으면 대부분 이쪽 계열전공이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저는 경영학전공이에요. 모두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보는데 아무래도 전공상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문화예술을 전공해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문화예술을 깊게 이해하지 못해도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를 많은 이들에게 알려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하고 싶어요!

## 김태희 | 일반 통신원

문화예술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이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얻는 기쁨이나, 타인을 통해 얻는 기쁨,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껴지는 상대적인 기쁨과는 달리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정과 정서를 풍성하게 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절대적 행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문화예술로 뒤덮인 삶을 향유하며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콘텐츠를 통해 감정적인 풍요를 누리고자 합니다. !

## 마민주 | 일반 통신원

예술과 함께 있다면, 잠깐 우울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비록 다시 찾아올지라도 우울이 떠난 잠시동안, 저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그림을 그리며 위안을 얻습니다. 그렇게 예술은 가끔 깊고 오래된 상처를 소독해줄 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그런 예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술은 삶과 분리되어선 안 됩니다. 삶 자체가 예술이길 바랍니다.

## 송진주 | 일반 통신원

하늘과 땅 사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 이를 '문화'라고 쓰고 '인생'이라 읽는다. 우리는 매순간 깨달으며 배워나간다. 문화 또는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면서 재미나게 살아야한다. 그러므로 난 '유희하는 인간(Homo ludens), 송진주'로 살고자 한다. 나도 모든 사이에 문화와 함께 숨쉬고, 삶 속 깊이 스며들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로 인해 문화예술기획을 전공하며, 앞으로 나를 포함한 모든 이가 유희하는 삶을 꿈꾼다.

## 이인행 | 영상 통신원

내가 좋아하는 책 한 소절에는 이런 말이 있다. 남은 생애 동안 지금의 이 경험이 반드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그리고 약속하자고. 또 다른 산을 찾아 새로운 모험에 도전하겠노라고. 지금 나는 문화예술이라는 나에게 낯선 도전을 하고 있다. 이 경험을 언젠가 남들에게도 들려줄 것이다. 이 멋진 산을 용기 내어 그들도 오를 수 있도록.

## 이하영 | 일반 통신원

미술대학 큐레이터학과를 졸업했다. 큐레이터가 뭐 하는 사람이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때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 아세요?'라고 되묻는다. 예술작품을 전시라는 형태로 잘 꿰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좋아한다. 모든 일의 끝에는 사람이 있다고 믿으며 예술작품 너머의 사람을 보려고 애쓰며 산다.

## 정연이 | 일반 통신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에 깊이 빠져들고 싶어 문화예술기획으로 한 번 더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나는 발로 뛰어 문화예술의 현장과 친해지고 진실한 마음과 생각으로 글을 쓰겠다. 또한 모양새가 그리 곱지 않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취재하는 통신원이 되겠다. 나는 내가 더욱이 꾸며진 미소와 외모보다는 자신을 정갈하게 다듬을 줄 아는 지혜를 맛보며 행복해 할 줄 아는 소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 의미 있는 삶은 온전히 나만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 10기 통신원 활동모습

## 2019 제10기 통신원 역량강화 워크숍

8월 1일 (목) 10:00~17:00 |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



▲ 광주비엔날레 교육행사팀 천윤희 팀장님과 함께 한 글쓰기 강의

천윤희 선생님은 현장감 있는 글쓰기 방법과 취재 시 주의해야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특수성에 대해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통신원 1기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 이세현 사진작가의 사진 강의

이세현 작가님의 사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통해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 2019 제10기 통신원 문화예술현장 탐방

10월 21일(월) 09:00~18:30 | 전남 목포시 관창아 마을 외



▲ 서산동 시화마을



▲ 관창아마을



▲ 관창아마을



▲ 근대역사문화거리





# 컬럼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배움, 광주 문화예술교육 · 정혜영

광주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단상 · 박준수

처음의 시간, 끝없는 시작-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 김자현

뚝딱이와 짱가가 사는 마을 · 김옥진

경자 씨, 그로부터 5년 후 · 임아영

누가 부르지? -노년에 예술하기의 의미와 경청을 통한 관계맺기 · 김현주

놀 때가 가장 좋은 날 · 신희흥

지속가능한 축제 · 김꽃비

문화예술교육, 시작이 반이다 · 채성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풍경을 상상하며 · 최지만

2019 광주문화예술교육의 흐름과 방향 · 정민룡

#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배움, 광주 문화예술교육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팀장

## 정혜영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문화비전3대가치를 자율성의 가치, 다양성의 가치, 창의성의 가치에 두었다. 3대 가치가 실현되고 국민의 삶 속에 녹아들어가게 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으로부터 풀어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일 것이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광주광역시도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9~2022)을 수립하고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광주문화예술교육배움센터(聽)조성’과 ‘문화예술교육환경조성’, ‘문화예술교육인적·물적 연계 및 역할모색’, ‘문화예술교육교류와 확산’ 등의 사업을 통해 실현해 나아갈 계획을 마련하였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시작된 이래 추진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네 가지 관점 전환을 꾀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네 가지 전환점은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 도모, 중앙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장르 중심에서 융합과 확장으로 전환이다. 이를 통한 광주문화예술교육계획의 목표는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총체적인 삶-주체로 살아가기를 꿈꾼다. 광주문화예술교육은 한 개인이 전인적 존재로서 성장하기를 지향하고 스스로 총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자한다. 이를 위해 광주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은 생애 통합적, 세대 통합적, 계층 통합적, 장르 통합적 관점하에 구성 될 것이다.

둘째, 삶-세계의 지혜력(知慧力)을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에서 말하는 ‘배움의 장’은 가르침과 배움이 교차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서로 배움’이 작동하는 장이 된다.

셋째, 세상의 모든 작은 것들과 만나 소통하고 이해한다. 광주문화예술교육은 타자에 대한 관계-감수성을 확장시키면서 연대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런 교감과 깊은 이해의 방식을 배우는 것은 지식 이 아닌 지혜의 영역으로 광주문화예술교육은 지혜력을 서로 배우는 ‘연합된 개인들의 힘’의 장이 될 것이다. 통합, 협력, 연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상상력의 장을 지향하고자 한다.

2019년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에 기반하여 시민 대상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첫째, 개인과 공동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문화 권리를 확대해가기 위해 ‘광주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사업’을 통해 11개 사업을 운영한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동네예술배움터」로 16개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요문화학교운영사업-주말예술배움터」는 23개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주말에 아동 및 그 가족과 또래들이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소통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창의예술학교」는 광주형 및 생애주기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운영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 중장년여성을 대상으로 ‘바퀴달린학교’, ‘시소학교’, ‘달할매학교’를 운영한다. 4월 20일(토) 입학식을 시작으로 삶의 경험학교인 창의예술학교의 문을 연다.

둘째,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아마추어 예술동아리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한다. 33개 동아리의 특성에 맞는 강사를 지원하고 매개자인 문화코디네이터와 소통하고 배움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향유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셋째, 지역 내 문화시설과 문화예술교육관련 기관에 문화예술교육사가 파견되고 유아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실행을 통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실현된다.

넷째, 다양성과 창의성 실현을 위한 50+세대를 위한 「경자씨와 재봉틀-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창의예술연구

소」, 「문화예술교육ODA」, 「청년인생설계학교」, 「어린이목수축제」, 「19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아트날라리」등을 통해 각 대상별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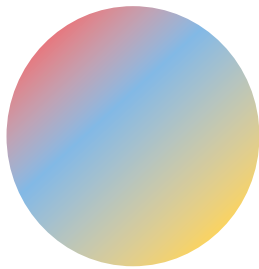
광주문화예술교육 비전은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배움, 광주 문화예술교육”이다. 문화예술교육의 윤리적인 지향점은 한 개인이 ‘배움의 장’을 통해 끊임없이 세계와의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자아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경험케 하는 동시에, 그 경험과정 안에서 존재론적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 있다고 본다.

을 한해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관계로 만나는 ‘배움의 장’으로, 우리가 아닌 ‘우리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열심히 땀 준비를 하고 있다.

※ 광주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과정과 내용을 간추려 전달하고자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 광주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단상



광주매일신문  
주필 · 시인

## 박준수

언론사에 30년 이상 종사해오면서 가장 가까이 접하는 영역이 문화예술 분야가 아닌가 싶다. 지역 언론의 역할이 지역문화 창달에 있거니와 필자 또한 문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자연스레 친숙해진 것이다. 또한 광주가 예향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어 문화예술은 그 만큼 높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광주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필자의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광주 문화예술을 수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성(地域性)은 중요한 화두이다. 요즘 회자되는 ‘광주다움’이란 말도 향토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광주의 색깔을 이야기 할 때 전라도의 전통적인 풍류가 기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전라도 풍류의 특징을 ‘한(恨)’과 ‘신명(신바람)’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라도인의 기질과 자연환경, 그리고 역사의 굴곡이 어우러져 잉태된 에네르기로 모든 문화예술에 깃들여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사에 이르러 가장 두드러진 변곡점은 80년 5월이다. 이 사회변동이야말로 ‘광주다움’을 극대화시킨 결정체이다. 여기에는 광주사람들의 공동체정신, 정의로움, 생명과 평화정신이 함축돼 있다. 기억의 저편, 독재의 서슬이 엄혹한 시절.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준 것은 기호(記號)였다. 김준태 시인의 ‘아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와 같은 문자와 메시지였다. 오월이 시들지 않고 늘 푸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천은 바로 문화예술의 힘이다. 그 소리 없는 외침은 지속적으로 예술적 양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난해 개봉된 ‘택시운전사’, ‘1987’과 같은 영화들이 최고 1천200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은 것은 그 만큼 진실의 힘이 감동을 크게 추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광주의 5월은 특별한 축제들이 만개한다. 39주년을 맞은 올해 5월에도 광주의 아픔, 정신 계승 메시지를 다양한 화법과 변주로 표현한 공연, 전시 등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이 ‘광주다움’의

미학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필자는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창작자의 입장에 있기도 하다. 예술 창작은 일차적으로 개인만족의 활동이지만 대중에게 공표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창작물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성과물로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김준태 시인의 시가 80년 5월 광주를 대변하듯이 대부분의 문화예술작품에는 시대정신과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창작자들은 일정부분 사회적 공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이 저변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창작자와 시민과의 소통의 공간이 더욱 넓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요즘에는 도서관, 문화센터, 문화원 등 여러 기관에서 작가와의 만남이 이뤄지고 있지만 참여작가는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서 교류기회를 늘려주었으면 한다. 광주문화재단 산하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가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시내 각 자치구마다 문화예술 교육기관들이 산재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필자도 동구 문화센터에서 영상제작, 드라마쓰기, 웹뉴스 제작 등 과정에 참여해 유익한 배움을 습득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면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정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모를까 미달되는 상황에서도 참여를 제한하니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자치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취지는 이해되나 문화복지의 공공성과 보편성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문사에서 오래 종사하면서 지역신문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는 터다. 지역신문의 사명을 떠올린다면 지역문화를 보존·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신문은 미디어 가운데 기록성이 뛰어난 매체로서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보존 및 계승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오늘날 미디어는 과거처럼 사회환경 감시나

비판기능에 매몰되지 않고 정보전달, 교육기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기관들이 지역의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인 전달수단이 될 것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에서는 2년 전부터 ‘광주문인협회와 함께 하는 문학마당’ 코너를 신설해 지역문인들의 작품을 정기적으로 게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광주사진작가협회와도 매년 전국사진대전을 개최해 사진동호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가 지역의 미디어들과 손잡고 정보와 자원을 공유한다면 지역문화 예술교육을 보다 튼실하게 영위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창조도시’ 환경 조성을 언급하고 싶다.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려면 실험정신을 가진 열정 넘치는 예술가들이 광주로 몰려들게 해야 한다. 외부인들은 여전히 광주를 낯선 도시, 그들만의 도시로 인식하고 있다. 창조도시가 되려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루속히 바꿔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도시이미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과 예술인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광주시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상으로 광주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피력했지만 문화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관점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갭(gap)은 독자들의 너그러운 이해로 메워주었으면 한다.

# 처음의 시간, 끝없는 시작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제8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교육기반본부장

김자현

201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5월 넷째주가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선포된 이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매년 5월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8회째를 맞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강화’ 정책방향에 따른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본격 추진에 진지하게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구성하였다.

## 영유아를 만나는 예술가와 예술교육가의 질문과 태도에 관하여

‘영유아·어린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를 시작할 것인가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의지가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의 구체적인 방향과 답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의미가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많은 전문가·관계자 회의를 거치면서 이번 주간행사를 통해 유아와 어린이를 둘러싼 여러가지 질문을 던지고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유아’에 대한 당신만의 정의가 있나요? - 왜 영유아·어린이와 작업하나요? -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예술교육 설계시 발달단계를 고려해야 하나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가요,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가요? - 어린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만 알려주어야 할까요? - 문화예술교육이 유아의 삶으로 이어지는 연결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이러한 공통질문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유아와 작업해 온 전 세계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기관, 전문가들의 철학과 경험을 나누는 시리즈 국제 심포지엄을 기획하였다.

더불어 파블로 네루다의 시집 『질문의 책』에 수록된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에서 영감을 받아 ‘처음의 시간, 끝없는 시작 -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라는 슬로건을 정했다.

첫번째 국제 심포지엄은 각자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일궈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켜온 신념과 원칙은 무엇인지, 과연 우리는 영유아를 ‘제대로’ 만나고 있는지, 왜 우리는 어린이들과 만나고 있으며 이 때 예술의 결합은 왜 중요한지 등 매개자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공유하고 질문하는 논의의 자리였다. 두 번째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영유아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학습법과 창조적 교육환경 조성, 프로그램 개발 사례 등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실천을 공유하였다.

## 여러 주체들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하는 이번 주간행사 기간동안 미국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Lullaby project)’와 협력하여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엄마의 작은 노래>를 운영하였다.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는 임신부가 전문 음악인들과 작업하며 자장가를 직접 작사·작곡해보는 활동으로, 아기와

유대감을 증진하고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한국 프로젝트에서는 일반인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미혼모 등 다양한 배경의 부모와 아기, 음악가들의 협업으로 총 9개의 자장가가 만들어졌으며, 국제 심포지엄에서 특별무대를 선보였다. 내 아이를 생각하며 적은 애뜻한 가사와 엄마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선율이 참가자들에게 감동과 영감, 울림을 선사하였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놀이, 교육을 연구하는 C 프로그램과의 협력으로 문화예술교육 포럼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을 개최하였다. 상상하고, 만들고, 탐험할 수 있는 놀이의 공간과 기회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며, ‘공간’에 관심있는 관계자들이 영유아 문화예술교육과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접점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밖에도 한국방송공사(EBS), 유아교육진흥원 등 학부모 및 매개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과도 협력하여,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가 강연 및 부모



▲ 라운드 토크





▲ 루시 힐 | 디 아크 유아예술교육 레지던시 아티스트



▲ 예 슈팡 |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교육부 부국장



▲ 캣 박스 | 데이트 키즈 프로듀서



▲ 황지영 |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 학예사

워크숍, 가족참여 워크숍 등 다채로운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주간행사에는 경기, 세종, 울산, 인천, 제주 등 문화예술교육 지역센터에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기획,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부산, 울산, 인천 등 지역센터와 협력연수를 운영하여, 해외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와 지역 내 전문가들이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성공개최 이후 10년을 바라보며

2020년은 유네스코와 한국정부가 공동개최한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성공개최 이후 1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난 10년간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다양한 변화와 성과,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풍성한 담론, 학계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학술적 논의들이 보다 넓고 깊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들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5월에는 서울어젠다 기반 한 국제 예술교육 정책과 실행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연구협의체 유니트윈((UNITWIN-Arts Education Research for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연례회의, 8 월에는 30여개국 예술교육자와 예술가가 참여하여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과 실천방향을 모색하는 ITAC5(International Teaching Artist Conference) 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어젠다 도출 10년 계기, 굵직한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동이슈를 논의하고 담론을 주도해 나가며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역사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더불어 9회째를 맞이하는 2020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더 쉽게 문화예술교육을 접하고 그 힘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뚝딱이와 짱가가 사는 마을

마음놀이터  
대표

## 김옥진

마을은 이렇게 주로 시골이나 마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아파트로 가득한 도시의 공간에서 마을이 있을까? 삼삼오오 장기를 두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공원 정자 한 칸에서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 핸드폰을 쳐다보며 물려다니는 아이들, 이어폰을 끼고 공원 트랙을 돌며 날마다 마주치는 이웃들과 우리는 더 이상 인사를 나누지 않는다. 마을은 사라졌고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산다.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도 없다.

그런데 ‘다시 마을이다’라고 말한다. 분명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삶에서 느껴지는 부족하고 허기진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다.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자주 외식을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 끝을 모르고 쫓아 오르던 애벌레의 탐을 아프게 멈추고 내려온 이들이 땅에서 찾는 소통과 창조의 공동체. 그렇게 작은 마을공동체들이 만들어져갔다. 부족하지만 나누고 함께했던 그 시절들을 마을에서 다시 찾으려는 사람들. 사람들은 ‘다시 마을이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21세기의 마을이 다시 새롭게 부활하고 있다. 그런 시대적 흐름과 갈수록 낮아지는 행복지수, 자살률 1위라는 국가적 사태를 극복하려는 행정의 지원으로 이곳저곳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들을 찾고 스스로 해결하고 먹거리 불거리 가득한 축제를 하고 꽃을 심고 봉사를 한다. 그런데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의 한계들이 드러난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따라가기 급급했던 공동체들은 사람보다 사업에 맞춰진 흐름에 지쳐가고 분열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 마을 공동체에게 묻는다. 먼저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공감하고 연대할 준비가 되어있었던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하는 이들의 진심어린 공감으로 내 삶을 돌본 경험. 그래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길을 전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함께 라는 가치를 경험 한 적이 있는가?





## “마을

: 주로 시골에서 여러집이 한데 모여 사는곳 주로 '가다', '다니다', '오다', 의 동사와 함께 쓰며 이웃에 놀러가는 일을 이르는 말 ”

이런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마을 속 공동체는 더디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더 깊고 넓게 오래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다. 그런 씨앗을 만들고 심는 일이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이다. 그렇게 문화예술로 시작된 마을공동체는 다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더불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을에 스며든 문화예술로 천천히 함께 가야한다. 빨리 성장하는 방법 더 멋지게 자라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은 내 경험이지 우리의 경험은 아니다. 내가 한발 앞서 자주 나가다 보면 다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에 급급해지고 만다. 그렇지만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지켜야할 가치들을 공유하며 성장한 마을은 다르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씨앗을 심은 마을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에서 논다.

휴일 저녁 마을길을 산책하다 똑딱이네 가족을 만난다. 똑딱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뛰든 똑딱똑딱 잘 만들어서 똑딱이다. 나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 도와주는 짱가다. 우리는 월요일 저녁 노래하며 친구가 된 이웃이다. 노래를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 서로를 배우러 온다. 6살부터 80어르신들까지 우리 모두는 별칭을 부르며 서로의 노래에 담긴 인생이야기를 듣는다. 40년 넘게 마을에서 미용실을 하는 보약꽃님은 지나가는 우리를 불러 합창단에 간식을 사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런다며 쌈짓돈을 쥐어준다. 지난주 호크머스 가족이 결석을 해서 다들 웬일인지 궁금해 한다. 그렇게 마을길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며 이웃이 된다. 함께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그 시간을 통해 마을살이가 즐거워진다.

그리고 나보다는 가족을 위해 살아온 중년의 삶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길에서 만난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연극을 하고 시를 쓰고 책을 읽으며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연대의 공동체다. 어디서 먹거리가 넉넉히 생기면 마을 사랑방에 두고 서로서로 나눠준다. 내 일 네 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한다. 이렇게 문화예술로 만난 여러 이웃들은 함께 모여 우리의 배움과 변화를 마을과 나눌 재미난 궁리를 한다. 우리가 해야 할일과 하고 싶은 일들을 마구 쏟아내며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한다. 주민이 만드는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동네 아이들을 위한 <문화분식>을 구상하며 함께 실현시켜 나간다. 그렇게 만난 인연으로 시작하고 흐르던 마을살이가 확대되고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다 보면 기존의 봉사와 토박이들로 이뤄진 마을의 여러 단체, 사람들과 협업으로 이어진다. 시작부터 다른 다양한 마을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확대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 막막해질 때도 있다. 그들에게 우리는 듣보잡이고 우리는 그들의 문화가 낯설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잘하는 일들로 다가가다 보면 그 진심이 맞닿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걸어온 길을 인정하는 날이 오겠지싶다. 함께 꾸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더 많이 토론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한발 한발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다. 함께 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의견들을 조율해야하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만 한다. 왜 그렇게 어렵게 가야하나 내가 좋아하는 일들로 나와 맘 맞는 사람들과 해오던 방식으로 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 들 때도 많다. 그러나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성취감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해냈고 또 해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마을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단단히 자라날 것이다. 천천히 그리고 즐겁게...

덧붙여 우리 마을을 넘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픈 이들과 모든 생명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과 마을로 흘러나가길 바라본다.



# 경자 씨, 그로부터 5년 후



광주청소년  
삶디자인센터  
노동자,  
나 혼자 프로젝트로  
<백번일지>쓰는 중

## 임아영

두 아이는 썩썩거리며 자고, 일곱 살 딸애는 나를 독차지한 기쁨으로 곁에 누워 종알댄다. “엄마, 대학에서 신문하고 방송을 공부했다며. 그럼 대학원에서는 뭘 했어?” ‘문화이론기획’을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땅으로 꺼질 만큼 졸리는데 말 잘못 꺼냈다 묻고 또 물으면 어찌지. 맞춰보라며 시간을 벌었다. 그녀는 다 안다는 듯 힘주어 말했다. “엄마학과.” ‘내가 전문가 같은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면 엄마는 배워야 할 수 있다는 소린가.’ 이제 아이는 자을자을하는데 내가 말뚱말뚱하다. 문득, 엄마, 경자 씨를 떠올렸다. ‘엄마학’이 있다면 나는 ‘경자학’ 전공자, 나아가 권위자일지도 모르니까. 수십 년을 함께 한 그녀의 유일한 자녀이고, 남편에겐 안하고 못하는 이야기를 나는 꽤 들었다. 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육아휴직 후 일터로 돌아간 나를 대신해 손녀를 돌보고, 어차피 ‘느네 아빠’(남편을 꼭 이렇게 부른다) 저녁상 차려야한다며 국과 반찬을 잔뜩 만들어 우리 집에 날라다 주는 그녀가 어느 날부터 엄마 아닌 ‘육십 해를 용케 살아낸 인생 선배, 경자 씨’로 보였다. 그 때가 5년 전이다. 마침 ‘노인 문화예술교육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 받아 <경자 씨와 재봉틀>을 구리했고, 뜻 맞는 분들과 50-60대 여성 일곱 분의 파마머리 위에 학사모를 엮었다. 여덟 번 만나 ‘당신의 어제, 오늘, 내일’을 물었고 우리는 웃고 울고 먹기를 반복했다. 쉽사리 ‘노인’이라 부르면 ‘내 애기 아니구만’하고 손사래칠까봐 우리가 찾는 이들을 ‘완경여성’(폐경을 곧 몸의 완성, 성숙이라 칭함)이라 칭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면 ‘창조경제’처럼 알쏭달쏭하게 느껴질까 봐 ‘재봉틀’을 들이밀었다. 또한 경자 씨의 이야기, 곧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백 사람, 천 사람의 것이라 믿었다. 까닭에 노인, 어린이, 다문화, 장애인 등 세상의 편의대로 지어낸 무리가 아닌 ‘한 사람’을 부르고 향하는 문화예술교육이길 바랐다. 그래서 <경자 씨와 재봉틀>은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다. 정작 내 엄만 초대하지 못했지만. 어제였다. 었어지면 닳을 데 살면서 경자 씨가 전화를 걸었다. ‘인터넷 쇼핑으로 스포츠댄스 구두를 사고 싶는데 어떻게 내 통장에서 돈을 보내냐’고 물었다. ‘느네 아빠는 지마켓으로 자기 옷도 사고 농기계도 사더라’며 ‘신발이 있긴 있는데 너어-무

남아서 발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경자 씨는 남편 손 안 빌리고 치사한 잔소리 안 듣고 남들처럼 취미 생활하고 싶은데 모처럼 쉬는 딸 귀찮을까봐 정중하게 핸드폰을 든 것이다. 성공적으로 구두를 주문한 다음 날, 그녀가 볼륨을 확 낮추고 세상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야야, 댄쓰 파트너 언니 알지. 그 언니 남편이 쓰러져서 엄마 이제 스포츠댄스 못 나가겠다. 언능 구두 취소해잉.”

엄마의 취미는 늘 위태위태하다, 자의든 타의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누군가 크게 지지하지도 않는다. 나의 시어머니가 큰 맘 먹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나, 시아버지가 아픈 뒤로 그녀가 조용히 그것을 그만두었을 때도 누구도 크게 응원하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머느리가 선물한 학용품 세트를 손주들 주라며 돌려보낸 마음을 나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1940-50년대 생, 지금 육칠십 대 여성들은 늘 그래왔듯 가정의 안녕을 사명처럼 여긴다. 나의 안녕도 묻겠다며 조용히 기도하지만 남편의 헛기침과 자녀의 한숨에 후다닥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경자 씨와 재봉틀>에 함께 했던 일곱 여성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을까. 작은 수선집에서 바느질하면서 틈틈이 꽃과 사람들을 그리는 낙으로 살아온 연임 씨는 글 쓰고 캐릭터 만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 선언했다. ‘인생의 초여름을 지나는 중’이라고 했다.

처음엔 ‘문화예술교육은 놀이’라는 주제의 글을 부탁받았다. 하지만 이리 적다보니 <경자 씨와 재봉틀>은 한날 기쁘다



▲ 아영과 경자씨



▲ 경자씨와 재봉틀 졸업식

마는 ‘꽃놀이’는 아녘다. 외려 나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나를 해집고 들쭀시고 뒤엎다가 끝끝내 보듬는 ‘스무고개’였다고나 할까. 이제 새로이 권하고 싶다. 하루하루 폭폭하지만 잘 살아보고픈 이들에게 ‘내가 하는, 나를 위한, 나만의 프로젝트’를 추천한다. 경자 씨는 ‘자동차, 친구, 취미’가 곧 구원이니 <치웃 프로젝트>를, 나는 일상을 쓰고 글을 나눌 때 살아있는 기쁨이 차오르니 <백번일지>를 조용히 시작했다. 엄마는 아버지 반대를 누르고 면허를 따고 스포츠댄스를 등록해 친구를 사귀고 있고, 나는 페이스북에 다섯 번째 글을 올렸다. 결코 쉽지 않지만, 언제까지 누군가가 차려놓은 시공간만을 기웃거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에 권한다. 다 차려놓고 초대하지 않기.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그녀 혹은 그가 손수 마련할 수 있도록 약간의 거리 두기. 빠꾸기처럼 일정을 알려되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힘껏 응원하는 동시에 세상에 알리기. 주인공에 대해 전지적으로 참견하지 않고, 3인칭으로서 주인공을 관찰하고 인정하는 기승전결을 바란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행복하게 살았대요’라는 믿지 못할 결론 말고, ‘그래서 경자 씨와 연임 씨와 아영 씨는 하루하루 병아리 눈물만큼 새로워지고 있대요’라는 엔딩이면 충분하고.

# 누가 부르지?

: 노년에 예술하기의 의미와 경청을 통한 관계맺기



A.C. 클리나멘  
대표

김현주

내가 노인세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아차도라는 작은 섬과의 인연으로부터 시작된다. 2012년 여섯 명의 동료들과 ‘섬’, ‘소리’, ‘지역공동체’라는 키워드가 담긴 프로젝트 ‘섬의 노래’와 인연이 될 만한 지역을 찾다가 만나게 된 아차도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해 있는 작은 섬으로 외포리 선착장에서 약 1시간 30분 배를 타고 가야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다. 황해도 염전이 보일만큼 북한과 접경해 있는 아차도에는 서른 두 가구에 마흔 세 분의 주민들이 어업과 농업을 겸하며 살고 계셨고 평균 연령 60세가 넘는 이미 고령화된 마을이었다. 섬을 선정하는 데는 나름의 몇 가지 기준이 있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소외지로 주민 대다수가 문화예술적 경험과 혜택이 부족한가? 두 번째, 프로젝트 기간 내 주민과 관계 맺고 소통하기에 마을 규모와 주민의 수가 적합한가? 세 번째, 내가 사는 곳(서울)에서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거리인가? 네 번째, 섬의 지형적, 장소적 특징으로부터 고유한 ‘소리’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인가? 생각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차도는 위 네 가지의 기준점들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곳이었으며 무엇보다 산을 등지고 파란 지붕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어촌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자 팀원 모두가 매료된 듯 이곳에 짐을 풀게 되었다.

마을 주민 대다수가 한 낮의 노동도 모자라 밤에는 소리를 캐러 나가거나 새우를 잡기 위해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기에 바빴고 새벽에 돌아와 겨우 쪽잠을 청한 후 다시 이른 아침이 되면 밭에 나가는 하드코어적 노동의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작은 마을이니 주민들을 한 자리에 부르고 마주하는 게 어렵지 않겠지 여겼던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노동으로 가득한 노인들의 일상을 보면서 이 분들의 삶의 리듬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호락호락 하지 않겠더라는 근심이 들기도 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 왔던 나는 섬에 머무는 며칠 사이 뻘뻘하게 계획해 놓았던 그 ‘무언가’들을 내려놓기로 했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 녹음기와 펜, 노트만을 들고 주민들의 일터를 따라가기 시작 했다. 아흔 넘어 등 굽은 노인이 종일 소리를 캔 노동의 무게와 바꾼 초경량의 돈의 가치에 한숨이 나왔고 새벽녘 쳐 놓은 그물에 새우만큼이나 가득한 쓰레기들을 거르는 일이 새우잡이의 또 다른 노동이 된 현실을 보는 것이 안타까웠다. 여전히 빛을 선사하며 인간에게 풍요를 주고 있던 바다의 속사정은 점점 더 줄어드는 어획량과 무법천지 버려진 쓰레기를 걸러내야 하는 어부들의 속사정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고된 삶과 노동의 현장인 섬은 반면에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낮의 빛과 도시가 잃어버린 밤의 어둠을 선사해주는 곳이기도 했다. 섬 곳곳에 자리한 풀숲들은 수많은 생명들의 마찰과 움직임, 마을 주민과의 공존을 빛과 소리로 끊임없이 표현하며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섬에 사는 노인의 몸에는 고된 노동의 주름뿐만 아니라 자연과

공생하며 만들어진 고유한 무늬와 색이 담겨져 있다. 노인의 주름은 단순히 노화에 의해 형성된 생물학적 변화이기 보다 한 생명체가 세상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낸 고유한 시간의 합작물이며, 살아온 생애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인과의 대화란 접힌 주름 안으로 레코딩 된 한 사람의 생애를 겸허히 바라보고 그것을 펼쳐내고 경청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주민들이 잠자고 깨어나 노동하는 시간에 몸이 익숙해질 때 쯤 주민과 대화 나누는 시간이 제법 생기기 시작했다. 말린 옥수수를 떼어 내거나 고추를 따는 일상에서, 장시간 허리를 구부려 캔 고구마를 흙냄새가 가시기도 전 냄비에 찌며먹으며 휴식하는 동안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 같은 시간들이 주민과 나 사이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같은 환경 속에 머물며 함께 일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과 같은 소박한 일상을 따라가며 주민의 삶을 경청하는 일은 작업이나 예술교육에







앞서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이자 찾아가 배우는 중요한 관계 맺기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념적 예술 혹은 교육의 대상자로써의 주민을 만나는 것이 아닌 평등한 대화를 통해 온전한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 애쓸 때 작가는 지역에서 주민과 무엇을 함께 할지에 대한 현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아차도 프로젝트는 여전히 현장에서 내가 지역민을 만나 무언가를 할 때 관계 맺기의 과정과 경청하기의 태도의 중요성을 환기하게 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70대, 80대 노인들 중 많은 분들이 한국전쟁으로 부모를 잃었고 10대 혹은 그 보다 더 이른 나이에 혼자가 되어 삶을 연명해야만 했다. 나는 종종 이들 노년 세대와 소통하고자 할 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임을 종종 느껴왔다. 이들의 굴곡진 삶과 주름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눈으로 보이지 것 너머에 존재하는 한 사람의 삶을 주목하여 미시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한국현대사를 몸소 겪은 노인세대들의 몸과 기억은 거시사라는 큰 강물 뒤로 끊임없이 흐르는 보이지 않는 작은 샘물과도 같다. 작은 샘물들의 이야기 즉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거시사가 외면해온 소외된 주체들의 역사이자, ‘우리’라 일컫는 집단의 통념으로부터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는 보이지 않는 주체들의 이야기이다. 지역에서 노인세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일은 도시와 현대라는 큰 지형 속에서 잃어버린 ‘나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 질문과 함께 제대로 대면하기 어려웠던 사회의 이면을 새로운 시각으로 마주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렇듯 노인의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경청할 필요와 가치가 있으며 노인들에게도 그들이 살아온 삶을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과 기회의 장이 필요하다.

전쟁 이후 지독한 가난과 노동을 감내하면서 살아온 지금의 노인 세대들은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나’보다는 누구누구의 아들로, 며느리로, 엄마, 아빠로 불리어진 세대이다. 이런 지점에서 이들에게 예술이란 가족과 사회라는 굴레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내주고 밀려나야만 했던 바로 ‘자기 자신’을

불러 세우는 일이며, 내가 누구인지 예술하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듬어 고유한 이름들을 발견해내는 일이기도 하다. 뒤편 새로운 것이 낫설어 한 발짝 뒤로 물러났던 분들도 막상 예술 활동을 시작하면 자꾸만 나의 이름이 호명됨이 기분 좋고 뭉뚱해진 손끝이 낫설게 움직이는 것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나는 종종 노인들만이 가진 고유한 표현들에 감동을 받곤 하는데 노인들은 예술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며 과정의 의미와 즐거움만으로 충만하다. 비장미 없음과 삶의 고난을 생색내지 않는 노인 고유의 소박한 표현들은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감동을 준다. 그들에게 예술이란 어떤 명분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 예술이며, 어떤 장치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움이 예술인 것이다. 노인들이 표현하는 일련의 시와 그림에는 여유로움과 자연스러움, 어떤 삶이든 버티고 겪은 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진실됨이 있다. 그래서 나이들의 예술이란 수식어가 필요 없는 살아온 삶 그 자체, 노인의 몸 그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이게 예술이야? 이게 예술이네.’ ‘들어줘서 고마워.’ ‘계속 하고 싶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 쯤 종종 벗이 되어 준 노인분들이 해주신 말씀들이다.

마지막으로 ‘섬의 노래’프로젝트를 통해 만나 즉흥시를 주고받으며 벗이 된 최재석님의 시 ‘누가 부르지’를 소개한다. 카메라를 습관적으로 들고 다녔던 나를 몹시도 거북해 하셨던 분이셨는데 나중에는 직접 카메라를 잡고 기록하는 일을 도와주셨고 내가 찍어드린 부부의 사진을 보며 기뻐하셨던 기억이 난다. 어린 시절 꿈이 시인이셨다길래 잘 쓰지도 못하는 시를 잘 쓰는 척 하며 발일 사이사이 최재석님과 ‘시 배틀’ 놀이를 했었다. 즉흥으로 문장을 주고 받으며 하나의 시를 써내려가는 대화 퍼포먼스였는데 이때 즉흥시 쓰기 놀이는 최재석님에게 본격적으로 시를

쓰게 된 계기가 되어 이후 자신만의 시를 쓰며 시집도 내게 되신다. 요즘도 최재석님은 좀 더 나은 시를 쓰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육지에 나가신다. 겨우 하루에 두 번 오가는 배에 몸을 싣고 육지에 나가 저녁까지 배움을 마무리하고 나면 배편이 끊겨 여관 신세를 져야 하지만 그런 불편함보다도 예술하기의 기쁨이 더 큰 것이다. 하루하루 무료로 노년을 보내는 노인세대들에게 예술이란 잃어버렸던 다양한 선택의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맛보며 ‘취향’을 되찾는 일이자,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스스로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나이들의 시간이 어쩔 수 없거나 무기력함을 버텨야 하는 통증이 아닌 스스로 나이들의 의미를 찾아가는 구체적 행동이다. 길을 배회하거나 방 안에 앉아 홀로 고독하게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다. 그들의 잊혀진 이름을 뒤늦게나마 호명해주고 무디어가는 손끝과 감각들을 다시금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바로 예술뿐이다.

## 누가 부르지

— 최재석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가  
매형의 처남이었다가  
아우의 형이었다가  
아내의 남편이었다가  
손주의 할아버지다  
어려서는 구분하기 쉬우라고  
내 이름 잃어버리고  
나이 들어서는  
어른 이름 함부로 부르기  
어려워서 잃어버리고  
부르라는 내 이름  
친구마저 아니 불러주네

# 놀 때가 가장 좋은 날

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아트날라리 총감독,  
태이움직임  
교육연구소대표

신희홍

2016년 '날라리'? 좀 그렇지 않아요? 했던 날라리가 아트를 만나니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는 끼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경쾌 발랄한 의미를 담아 광주 문화예술교육의 이야기를 담는 축제가 되어 어느덧 4회째를 맞이하였다. 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동네예술배움터 광주Re' 단체와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 단체가 한 해 동안의 문화예술교육활동을 공유하는 축제로 올해 총 39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동아리 7개 단체의 축하공연도 함께 선보여 더욱 풍성한 축제로 진행되었다. 노는 것이 곧 우리들의 삶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오늘 하루, 한 번쯤은 어른들도 아이처럼 놀아보고, 가족과 함께 그림도 그려보고, 어른은 어른끼리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만 놀아보는 예술놀이터도 마련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39개 단체들과 '놀 때가 제일 좋아'라는 부제로 축제의 큰 그림을 그렸다. 기획팀(코디네이터, 전시, 체험, 공연기획단)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단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뽐내게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보았고, 39개 단체들은 자신들이 00할때가 제일 좋은지 생각해보고 축제를 준비한다면 각자만의 예술의 형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으로 준비했다. 단체들의 프로그램을 보면 평균적으로 놀이적인 요소가 많았으며, 장르도 보였고, 추억 속의 일상이든, 현재의 일상이든 자연스럽게 '일상'의 이야기를 만나게 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자기발견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시각을 얻음으로써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 각자만의 감성으로 축제를 준비했다.

'시를 예술로 만들 때 제일 좋아'라고 하는 단체 <아이엠(IM)>은 생각을 시로, 시를 예술로 이야기하였고, <마음놀이터>는 '서로의 삶을 응원할 때 제일 좋아'라는 부제로 클레이로 밥상을 만들어 누군가에게 선물해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또한 <메이아이>의 '술방을 가족 만들기'를 통해 미적체험과 동시에 가족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부채춤, 낭독극, 뮤지컬, 노래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무대를 60명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시켰다. '자화상 박스'에 자신을 맘껏 표현해보는 시간을 놀이와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전시까지 이어서 진행하는 종합 예술선물세트 체험을 <함께크는나무협동조합>이 무대 위에 꾸며주었다.

올해는 특히 호남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예비문화예술교육사 23명이 참여하였는데 그들에게는 미션을 주어 아트날라리의 스텝이자, 기획자이자, 체험하는 시민 등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역할은 마음놀이터 대표님과 노는 것입니다. 30분간 대표님과 놀아주세요', '오늘의 역할은 예술놀이터에서 안내도 해주시고, 정리도 해주면 됩니다. 단, 00하게 놀아보세요~는 하지 말아주세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마음대로 놀아보세요~ 라고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술놀이터는 마음대로 놀이터니까요'라고, '오늘의 역할은 주차요원입니다. 축제장 입구의 주차요원에게 다가가 말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20분 보너스를 드릴테니 놀아주세요~라고. 그리고 당신이 20분간 주차위원이 되어주세요.'라고 미션을 주었다.

처음부터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역할을 주었다면 축제를 즐기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경험해보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단체들이 어떻게 축제를 준비하는지, 무엇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지 등을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들에게 인상 깊었던 단체들을 소개하자면 도시에서도 흙과 씨앗을 만져보는 것이 큰 매력이었던 <놀이요점뽀>의 SC리틀파머, 고민 많은 현대인의 걱정을 덜어준 <(사)청년문화허브>, 요즘 책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는데 책과 가까워지며 즐거움을 쫓던 <책 문화공간봄 작은도서관>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져서 좋았다는 <마음놀이터>의 클레이로 만드는 밥상프로그램 등이 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휴식, 고요함, 이야기 등이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아트날라리는 어쩌면 단체들이 시민들에게 삶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기도 하다.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다.

나에게 문화예술교육은 그랬다. 어디론가 나를 데려다주었고, 낯선 즐거움을 선물해주었으며, 은근슬쩍 나의 삶을 이야기하게 하였고, 일상과 비밀상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도 선물해 주었다.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함께해준 기획단 김주완, 김태희, 김윤미, 이은나, 양중희, 추현경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축제장 곳곳에서 삶을 춤추게 해주는 춤추는 날라리 선생님들, 39개의 문화예술교육단체들과 7개의 예술동아리단체,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함께해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내며 글을 마친다.



# 지속가능한 지역축제에 대한 고민



1930양림쌀롱  
프로젝트 매니저

김꽃비

〈1930양림쌀롱〉은 광주의 근대를 소재로 양림동 마을 전역을 무대 삼아 차(茶)와 문학, 음악, 강연,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을 경험하는 복합마을축제다. 문화가있는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주)쥬스컴퍼니가 주관하고 있다. “마을 전역이 축제의 무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4년 차를 맞이했다. 양림쌀롱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양림동에서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로 고민했던 지점은 광주의 근대를 이 축제에 녹여내는 것이었다. 양림동은 일찍이 서양 선교사들이 정착을 시작하면서 근대 의료 서비스와 교육이 빠르게 시작된 곳이다. 행정구역 상 면적은 크지 않지만, 작은 동네에 수많은 학교, 병원, 교회가 위치해 있다. 건축물을 포함한 다양한 근대문화자원들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커피를 좋아했던 시인 김현승, 천재 음악가 정윤성, 광주의 어머니라 불리는 YWCA의 조아라 등 근대 광주 대중문화를 이끈 걸출한 문화예술인들이 출생하고 활동했다. 마을 곳곳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양림동의 다양한 씬(Scene)을 끊임없이 만들어준다. 양림동을 야간에 둘러볼 수 있는 이색 테마투어인 〈양림달빛투어〉, 근대 광주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1930모단걸다이어리〉 등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들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니 마을의 이야기를 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는 이 축제를 만들어가는 주체에 대한 고민이었다. 수많은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마을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합적인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길 원했다. 카페, 빵집 등 지역의 상점들이 제휴를 맺어 참여하고, 마을의 여러 문화공간들과 기관들이 협력한다.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마켓을 꾸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다. 축제를 계기로 마을의 수많은 커뮤니티가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원했다. 1~2년 차에는 행사 때마다 민원문제, 주차문제 등 우여곡절도 많았다. 마을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또 열심히 듣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해가 가면서 단순히 참여에만 의의를 두던

분들이 축제의 호스트이자 마을의 호스트로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큰 변화였다. 우리 지역의 청년 아티스트와 “광주”, “양림동”, “광주의 근대”를 주제로 지속적인 아트워크(Artwork)를 해보자는 것도 하나의 큰 과제였다. 지역의 매력적인 스토리 자원을 바탕으로 마을이 그리고 지역이 청년 아티스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되도록 많은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양림쌀롱의 또 하나의 목표였다. 마지막으로 방문객들이 이 축제를 즐기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었다. 우리는 이 축제를 통해 외부인들이 마을을 가치 있게 향유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길 원했다. “핫플레이스”로 소개되며 너무나 짧은 기간 빠르게 흥하고 쇠하는 전국의 유명 마을들을 우리는 이미 많이 보았다. 쓰레기 문제부터 소음, 주차, 사생활 침해 등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마을들의 공통적인 골칫거리다. 양림동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앞으로도 이곳에서 오랜 기간 정착해 살아갈 사람들이 많다. 마을이 자신의 터전을 외부인들에게 나누고 양보하는 만큼, 방문객들도 축제 당일 단순히 마을을 소비하고 떠나는 것이 아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들의 방문과 소비가 마을에 긍정적인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림쌀롱에서는 쌀롱페이(전용팁블러+음료교환권3장)라는 유료판매 제도를 첫 회 행사부터 적용했다. 이것은 축제기간 양림동을 찾은 방문객들이 마을 안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향유함에 있어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이었고, 판매 수익을 축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나눔으로서 축제가 실질적으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또한 축제에 대한 국가지원금이 끊어지더라도 자체적으로 이 축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했다.

지난 11월 2일, 4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의 마지막 양림쌀롱 행사가 열렸다. 여전히 부족한 점은 많다. 우리가 기대했던 수많은 목표들을 마을 안에서 잘 풀어내고 있는지 의심도 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양림쌀롱이 내년에, 내 후년에도 계속되길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이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조금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줄 협력 파트너들이 마을 안에 이제는 정말 많이 있다는 점이다. 덕분에 필자도 조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지역축제로서의 양림쌀롱의 미래를 기대해보고 있다.



# 문화예술교육, 시작이 반이다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측면과 연계하여



문화공간 싹

## 채성태

생동하는 광주 문화예술교육 현장 소식을 매달 뉴스레터로 받아보는 애독자로서 그 현장을 마주할 기회는 반가움이었다. 시민 삶으로 다가간 문화예술교육 현장은 열정과 즐거움이 뉴스레터에 가득했기에 광주로 가는 길은 기대가 컸다.

첫 만남, 교육이 마무리되고 참여자끼리의 대화에서

“오늘 재미있었어?”

“응 재미있었어!, 엄마! 다음 주는 더 재미있을 것 같고, 기대돼!”

“엄마가 이 프로그램 잘 신청했지!”,

“엄마! 춤추는 것 재밌지?”

“응 재밌더라, 방송댄스 인줄 알고 걱정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누구나 춤출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아빠들도

적극적으로 춤추잖아!”

“오늘 반가워요!, 어디서 사세요?, 우리 딸은 엄청 재미있었나 봐요! 이 프로그램 놓쳤으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잘해주셔서, 믿음이 가네요.”

“저는 광주에 살면서 가까운 곳에 이런 좋은 문화공간이 있는 줄 몰랐는데 참 좋네요. 이제 자주 이용해야 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첫날에 이처럼 참여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 반응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교육 시작과 마무리 과정에서 참여자의 표정, 행동, 참여자 간 관계 친밀도는 분명 변화된 모습이었다. 이러한 참여자의 긍정적 반응은 단체의 교육에 그 비밀이 숨어 있었다.

보통 교육의 첫 차시는 형식적인 오리엔테이션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단체는 참여자와 첫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참여자와 교육의 관계를 밀착시키려 공력을 드리고 있음이 교육 운영에서 느껴졌다. 그것은 참여자

스스로 교육의 주체이고 주인임을 인식하며 교육 참여의 자신감을 찾는 과정이었다.

단체는 참여자가 프로그램의 특성 및 운영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설명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을 맛보고 느끼며 지속해서 참여하고 싶도록 참여자 감정을 움직였다. 또한, 참여자의 생각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강사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생각을 여는 것이 창작표현의 출발임을 단체는 참여자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는지 그 과정을 참여자와 함께 천천히 귀하게 풀어내고 있었다.

‘내 주변의,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모든 일상이 춤과 연계할 수 있음을, 교육에서 느끼고 사고하며 표현으로 즐겼다. 참여자는 단체의 장르인 춤에 대한 두려움을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떨쳐내게 하고 있었다.’ 그로인해 참여자는 교육의 첫 만남으로 자신에 숨어 있던 새로운 표현 언어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날 교육이 시작이었지만, 함께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 하였기에 앞으로 교육에서 참여자와 단체가 펼칠 만남 은 희망으로 가득 차올라있었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참여자가 교육의 주체로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즐기는 프로그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운영단체가 기획단계에서 얼마나 참여자 삶의 여건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그 삶을 고려한 프로그램에 참여자를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실행 과정은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참여자는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에 편안함을 느끼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즉, 문화예술교육은 그 준비 과정부터가 시작이며, 그 준비를 통해 참여자의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교육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은 시작이 반이다.

한때, 나는 삶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다. 그 당시 다양한 환경의 삶은 내 호기심을 자극했고, 날 끌어당겼다. 그 삶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도 내 열기의, 내 입장에서 재미를 추구하며 구도를 짜고, 내

프레임에 삶을 가두는 내 만족의 활동이었다. 선의의 의도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더 나은 삶이되길 바랐던 생각이었으나, 그것은 내 교실에서 시작된 내 욕심임을 현장은 보여주고 들려주며 가르쳐주었다. 현장 삶의 주체는 그들이고, 그 어떠한 삶도 귀하지 않은 삶은 없으며, 모두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다고....

나는 그러한 삶의 존재를 이해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내가 기획한 활동에는 삶의 존중이 없었고, 만나야 할 삶과 밀착되지도 함께 어울리지도 못한 내 생각의 내 만족을 위한 활동임을 경험이 쌓이며 알게 되었다. 그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 삶의 이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과정에서 삶과 함께할 방향과 방법도 찾을 수 있고, 그 삶에 소중한 교육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 후, 나는 새로운 기획에 앞서 누구를 위한 활동인지를 되새김하며 성찰하는 태도가 생겨났다.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다양한 삶과 함께하는 기획에서 삶의 이해 과정은 내가 지켜야 할 과제이며, 내 방향을 인도하는 답도 지역과 그 삶에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광주 문화예술교육 현장은 시민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과 단체도 많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내 부끄러운 과거와 닮아 있는 단체의 활동도 보여 안타까웠다. 대부분의 단체 문제는 지역적 현실과 참여자의 여건보다도 단체 입장에서 계획된 교육이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참여자 삶의 이해는 무의미해졌고, 참여자에게 왜 교육이 필요했으며, 그 참여자와 무엇을 함께 나누려는지 교육 주제도 설정되지 못한 채, 교육 운영 행위의 결과만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한 교육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하든 아무 상관없는 다수를 위한 행사의 단순 체험과도 같아 보였다.

교육 운영방식의 문제는 단체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충분했으나, 단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참여자에게 주입하며, 강사가 제시한 방법을 따라 하도록 요구했고, 그것을 참여자의 표현이라 말했다. 참여자가 표현에 대해 주체로서 인식하고 사고할 시간도 없이 어찌 그것이 참여자의 진정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참여자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주체성을 무시한 결과로 문화예술교육의 운영방식과는 거리가 먼 교육이었다.

지역적 배경과 삶의 여건에 따라 현장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삶도 존재했다. 그러나 단체는 현장을 느끼지도 이해하지도 않았기에 현장의 절실함을 발견하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왜 그 사업을 지원받아 그 지역에 찾아갔는지 의문이 생긴다. 현장의 주민들은 그 사업이 자기 삶 가까에서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문화예술 활동은 배부른 특정인이 하는 것이라 치부하는 주민도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단체가 조금만 더 현장과 가까워졌다면 그 삶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며, 주민의 생각도 변화되어 그 사업이 자기를 위한 활동임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이 문제는 비단 몇 단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민 삶으로 다가가 펼쳐지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사업에서 참여자 선정 및 모집에 단체의 단일함이 문제다.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과 대상이 있었기에 그에 따른 프로그램도 계획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교육 실행에서는 기획의 절실했던 대상은 사업을 지원 받기 위한 수단의 존재가 되어 있고, 교육에 실 참여의 대상은 관련 기관이나 아는 단체의 협조를 통한 급조된 참여자로, 우리는 사람만이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이 되어 가는 형국이었다.

광주는 광주 특성에 맞게 시민 일상에서 더 가깝고 쉽게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사업과 지원사업이 조화롭게 잘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광역도시에 비해 활발하게 문화예술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이다. 그래서인지 시민 삶의 다양성을 고려한 사업 유형도 확장되어 있으며 인적 자원도 풍요로워 문화예술교육이 생동하는 도시로 느껴진다. 그런데 도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략이나 지원은 시민 삶과 가깝게 촘촘해지고 많아졌으나, 현실에서 시민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그것 같고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 여긴다. 시민은 단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접하고 느끼며, 그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현장에서 보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화예술교육이 시민 삶으로 가깝게 다가가기 어렵고, 시민 공감을 얻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 점에서 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취지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단체의 역할에 대한 자존과 현장을 바라보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단체의 장르적 특성이나 장점이 사업에 활용되는 것은 맞지만, 시민 삶으로 다가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면 그보다도 지역을 살피며 시민 삶의 이해 과정이 문화예술교육의 시작임을 단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삶의 이해를 통해 시민과 함께할 방향과 방법도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현장은 뉴스레터에서 보이던 열정과 즐거움도 만날 수 있었으나, 그 기회가 다양한 시민 삶으로 다가가지 못한 현실이 보여 아쉬움은 남지만, 광주는 시민 삶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기에 그 변화를 희망하고 응원하며 돌아왔다.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풍경을 상상하며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측면과 연계하여



(사)삶지대연구소 소장

## 최지만

“당신은 어떠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아파트 광고는 점차 아파트의 실내 주거공간을 설명하기보다는 주변의 주거환경 조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교통은 어떠하며, 주변의 상권과 학교, 문화시설, 생태조건, 안전 등 실제 공간적 조건보다는 주변의 주거환경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흐름 또한 비슷한 느낌을 준다. 초기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실험들이 더욱 중요했으나, 점차 어디에나 있는, 언제든 누릴 수 있는,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 물론, 이러한 확장성이 문화예술교육의 저변을 확대한 것은 사실이나 빠른 속도의 확대에는 과대포장이 많아지는 아파트 광고처럼 문화예술교육 또한 포장만 요란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든다.

한 연구에서 삶의 질과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반경 2km 내에 당신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방식이 있었다. 이 반경 범위 내에 대화를 나눌 친구가 얼마나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커뮤니티가 있는지? 문화적 향유 또는 문화를 소비할 시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 방식이었다. 반경 2km라는 범위는 일상적 접근이 쉬우며, 도보 이용이 가능한 범주에서의 생활권 환경 범위인 것이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환경 또한 내 삶의 주변 환경과도 같은 것이다. 내 삶의 언저리에 함께 자리하며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삶의 풍경’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기에 지역 문화예술교육이 고민해야 하는 지점은 삶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의 풍경과 조건을 고민하고 상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지역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업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정부에선 2018년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고, 광주 또한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을 최대한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9-2022)〉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들의 주요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골자 중 하나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에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질적 전환과 지역 스스로 변화를 생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이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이하 기초센터)의 부분이다.

광역형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기초단위의 기초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실현과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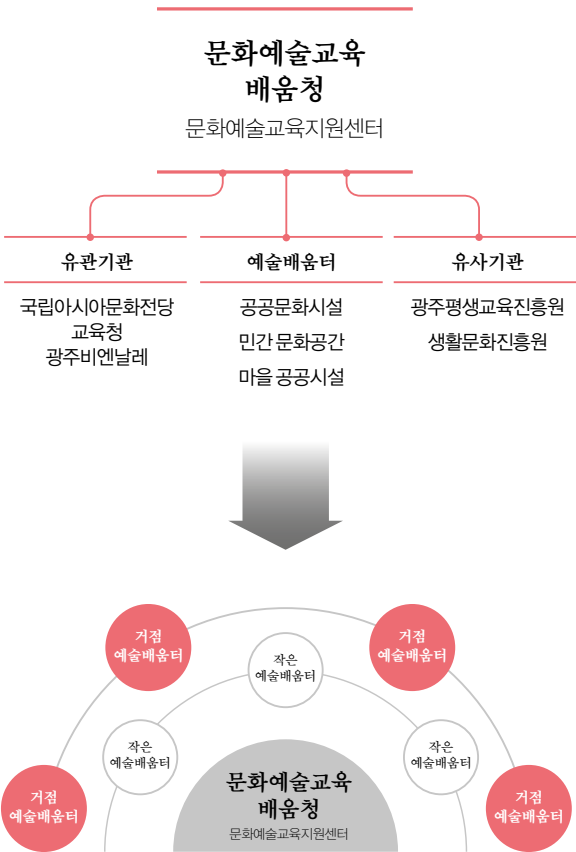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이러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여러 연구와 추진단을 통한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향성이 기초단위의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거점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으며, ‘예비지원-시범운영’ 단계 등을 설정하여 지역 스스로가 방향과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요한 지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이 행정 전달체계로의 기능보다 현장의 실행체계로의 전환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핵심가치로는 ‘협력’, ‘지역맞춤’, ‘지속가능성’을 중심 가치로 두고 있다.

기대되는 광주 문화예술교육의 풍경

이러한 흐름에서 광주 문화예술교육 또한 2009년부터 축적해온 다양한 활동들을 모아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의 방향이 〈광주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9-2022)〉에 담겨있는 문화예술교육 배움청의 개념(아래 그림 1. 참조)이며, 거점형 예술배움터와 작은 단위 예술배움터로 연결되는 플랫폼 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계획과 고민 지점은 광주가 수립한 방향성과 중요한 맥락적 연결고리를 갖는다. 단순히 기초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차원에서의 접근이며, 광역센터의 역할전환(허브기능과 싱크탱크, 플랫폼 등)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광주문화예술교육은 2011년 창의예술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5개 구가 연계되는 형태의 ‘삶과예술배움청’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실험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기에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여겨진다.

광주문화예술교육의 풍경을 상상하며 큰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찾는 과정

올해 전국의 다양한 지역을 순회하며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를 만나는 일을 해왔다.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필요한 지원이 많은 상황이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과 소통하고, 존중하며, 기다리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느꼈다.

큰 변화가 많을수록 그 흐름에 휩쓸려 갈 우려가 크지만, 스스로 변화를 찾는 과정이 더욱 중요할 것이며, 문화예술교육이 우리 내 삶과 어떤 관계성을 맺어 나가며 삶의 풍경으로 자리 잡아 나갈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생활환경의 속도를 쫓아가기도 힘이 든다. 선점하고 경쟁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놓치지 않고 스스로 경험을 축적하며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속도와 리듬, 느슨한 연대의 길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적 가치가 발현되길 기대해 본다.

# 2019 광주문화예술교육의 흐름과 방향



광주북구문화의집  
관장

## 정민룡

광주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이 정책으로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된다. 초기 광주문화예술교육은 어느 지역보다 새롭고 실험적인 프로그램의 사례가 넘쳐났다. 한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표방한 <경자씨의 재봉틀>을 통해 생애전환(50+)사업의 수범사례를 만들었으며 <어린이복수축제>를 통해 노작예술교육이라는 선도적인 교육콘텐츠 모델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삶과 예술 배움청’이라는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창의예술학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기초지역 거점 마련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 또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이름 대신 ‘광주리’라는 이름으로 광주형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문화예술교육이 파편화된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주라는 그릇에 문화예술교육의 성과가 모여질 수 있게 만들려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광주문화예술교육의 발전 흐름은 앞으로 <작은 예술 배움터>와 <거점 예술 배움터>를 중심으로 체계화 되고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은 배움터는 가장 작은 동네 단위의 예술배움터를 말한다. <작은 예술배움터>는 마을커뮤니티 공간,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 공간, 기타 민간 문화 공간, 사회복지공간을 포함한 동네단위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다.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마을활동가, 평생학습, 사회복지활동가, 문화기획자들이 모이는 장소다. <작은 예술배움터>는 다시 <거점 예술배움터>로 그 활동이 수렴된다. 거점 예술배움터는 주로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예술가 선생님을 발굴하고 그들이 모여 학습공동체를 꾸리며 지역에 맞는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거점 예술배움터>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용공간으로써 예술학교의 모습을 띄기도 하고 지역 내 문화자원을 연결하고 협력하는 마을학교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광주리’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초기 광주형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 삶과 예술 배움청-작은 예술배움터-거점예술 배움터로 연결된 체계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광주문화예술교육의 흐름은 지역 분권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정책변화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광주 지역적 특성을 강조한 광주형 문화예술교육의 구체적인 상을 만드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 거점 예술배움터를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부터 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를 시범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광주지역의 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의 역할은 주로 단순 프로그램 지원기능뿐 아니라 동네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자원을 엮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초센터는 동네에서 펼쳐질 문화예술교육의 자원인 사람과 공간,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뽕뿌리 단위의 플랫폼이다. 따라서 동네 문화예술교육의 확장성과 연결성을 실험하는 역할이 중요해진다. 생활문화영역, 마을 만들기, 평생학습 영역과 만나는 협력사업을 기획하는 곳이 기초센터가 되어야 한다.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거점 예술배움터>가 된다.

###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한사람을 위한

####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시민들 개개인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로서 문화예술교육, 교육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삶에 관심을 두는 태도 등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와 더불어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개개인들의 이야기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역할, 개인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강조한 표현이다. 어떠한 대상과 계층도 배제되지 않는 전 생애에 걸쳐 누리는 ‘포용사회’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인정하고 문화예술의 종다양성을 유지·확산하는 ‘문화다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가 더욱더 중요해 질 것이다. 이것은 광주의 민주·인권·평화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 호모 헌드레드 시대(백세시대)에서

#### 문화예술교육 역할

초고령화 시대에 있어 복지적 의미로서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뿐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노년으로 부티의 문화예술교육’도 중요하다. 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인 살아온 저력, 지혜와 재능, 그들만이 갖고 있는 개인적·사회적 관계 네트워크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발현된다면 이는 노인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 자산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확장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개개인의 노년의 잉여 시간을 보내는 차원을 넘어 선배시민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장해가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문화예술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여가사회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확산

이미 워라벨 시대, 소확행이 주요 문화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여가 문화정책은 더욱더 중요해진다. 따라서 개인의 여가, 사회적 여가를 보내는 방편으로 문화예술교육은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 예술동아리들에 대한 교육지원, 직장인들을 위한 예술교육, 생활문화로써 문화예술교육,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가로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적인 여가문화를 넘어 사회적인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여가는 문화향유에 대한 개인적 동기와 문화적 욕구로부터 출발(기반)하여 개인적 여가생활을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보다 가치 있는 사회문화적인 활동으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다.

필자는 종종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다른 이름으로 ‘근린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근린성에는 친밀감, 소지역, 동네, 접근성, 일상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내년에도 문화영역에 있어 ‘지역’은 여전히 중요한 화두이자 이슈가 될 것이다. 지역이 바로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것이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의 주인이 분명해야 하고 작아야만 하고 눈에 직접 보여야 한다. 우리 생활의 곁에 항상 있는 것이어야 한다.



통신원  
취재글



# 문화예술교육은 우리의 삶이다



통신원  
**김수영**

직접적으로 접해보지 못했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다가가고자 시작했던 광주문화재단 통신원을 끝맺음 지을 시간이 왔다.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아직도 내 첫 번째 취재가 이렇게도 생생한데 말이다. 첫 취재 연락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인터뷰를 진행하며 떨리던 나의 목소리, 취재가 끝나고 나오면서 풀려버린 다리, 그래도 어떻게든 취재를 해냈다는 그 뿌듯함. 절대 잊지 못할 순간들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와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담당자 선생님들과 참여자분들과의 대화가 통신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을 직접 누비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받은 이 수많은 감정들과 깨달음을 내 부족한 글 솜씨로 전달해드려야 하는 부담감이 엄청났던 것은 사실이다. 현장의 분위기, 다채로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으나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도 원고를 쓰면서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있었다. 바로 문화예술교육은 우리 삶 그 자체, 우리 인생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단비 같은 활동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교육이다. 삶의 활력소가 되어줄 것이다.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확신이 들었다. 그러니 꼭 참여해봤으면 좋겠다.

1년 동안 문화예술현장과 독자들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했던 10기 통신원 활동이 이로써 마무리된다. 참으로 시원섭섭하다. 아니 사실 미흡했던 모습만 떠올라서 아쉽기 그지없다. 하지만 덕분에 1년 동안 통신원으로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성숙해진 나의 모습으로 만족하려한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시는 담당자 선생님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취재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통신원을 위해 고생해주신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COLLECT  
NEWS



# 오롯이 자기 자신 되기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 '봄이 가고 그렇게 여름이 오듯이'

요즘 벚꽃들의 향연으로 세상이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 봄이 찾아왔다. 언제 '겨울'이었냐는 듯이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 불고, 땅 속에선 푸릇푸릇한 생명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2019년의 봄을 기억하기 위해 꽃들과 사진을 찍으며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는 어느새 다가온 봄을 느끼고 있다. 하나같이 길거리에 꽃들을 보며 봄을 느끼고 있을 무렵, 중년여성의 웃음꽃이 가득 핏으로써 봄을 알리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다. 바로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_힐링캘리이다.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라? 독특한 이름의 의미는 잣과 콩나무에 나온 거대한 콩나무와 주렁주렁 열리는 땅콩을 결합한 이름이다. 거대한



▲ 도자기 강사 손은진, 대표 양중희, 보조강사 서지선



▲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하는 양중희 대표님

나무는 문화예술교육을 의미, 땅콩은 교육을 받은 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에서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듯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15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상반기에는 여성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남성 대상의 수업이 진행된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중년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4월 4일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협회의 이름에 담긴 바람처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 원래 모집 정원은 15명이었지만 인기가 너무 많아 17명의 중년여성 분들이 한 반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봄이 지나 여름이 오듯, 살다보니 어느새 오롯이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 엄마가 되어 중년이란 나이가 되어버린 어머니들... 중년이 되면 심리적인 불안감, 걱정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중년은 청년시기의 끝으로, 그들이 젊었을 때 가질 수 있었던 기회, 목표 등의 상실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생물학적인 쇠퇴를 생각하게 되고 자신들의 인생 의미와 방향에 대해 재평가하게 되고, 미래의 목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삶을 관조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우울증이 오기 마련이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는 이 시기 어떤 방법으로 현명하게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찾아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도자기와 캘리그래피를 접목시킨 이 프로그램은 직접 도자기를 만들고, 캘리그래피를 연습하여 자신이 직접 만든 도자기위에 글귀를 새겨 넣는 것을 반복 한다. 도자기 수업을 통해 활동적이고 후에 부엌에서 자신이 만든 도자기들을 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는 단어쓰기를 시작으로 문장쓰기, 자신이



▲ 작년 중년남성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 영상 시청

적고 싶은 것을 적어보기 순서로 진행된다. 그냥 주어진 글을 무미건조하게 쓰는 것이 아닌 나를 알아가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글씨를 찾아가는 것이다. 차분하게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집중하다보면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자기에 대해 집중하고 질문하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보조 선생님인 서지선 선생님은 2년 전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집에 가서 수많은 연습을 하셨고, 다음시간에 쓸 좋은 단어나 글귀를 생각하다보니 생각하는 게 긍정적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다. 더불어 자신이 직접 작성한 좋은 글귀의 캘리그래피를 집안 곳곳에 붙여 두고 가족들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 둠으로써 가족 모두 호의적으로 변화했다고 말씀해주셨다. 첫 출발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변화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방과 후 수업을 나가셔서 학생을 가르친다고 하시니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좋은 표본이 되신 게 아닌가 싶다. 이 기회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보여준다.

Q 오늘 첫 수업 진행하셨는데 소감 한 번씩 말씀해주세요

“ 양중희 대표 |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셀렘 가득했어요.작년 분들도 지금 동아리를 만들고 친목을 다지고 계시듯이, 올해도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길 바래요~ 앞으로 함께하는 수업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 손은진 강사 | 오늘 첫 수업이 도자기 수업이어서 더 걱정했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첫 스타트 잘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차곡차곡 실력도 쌓고,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분위기 너무 좋아서 앞으로 수업이 재밌을 것 같아요!

“ 서지선 강사 | 알려주는 입장으로서는 첫 수업이라서 너무 떨렸는데, 이번 팀이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가 가득해서 잘 마무리 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도자기수업은 없었는데, 도자기 수업을 함께 하게 되어 더 재밌었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큰 꿈이 있으신 걸 보니 앞으로의 수업 분위기는 의지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봄에 시작되어 어느새 여름이 오면 작은 공간에서 전시를 하며 마무리가 된다. 15주라는 기간 동안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발전된 모습으로 프로그램은 종료되겠지만, 선생님들께선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작년 팀(이하 ‘아몬드 캘리’)처럼 동아리를 만들어 꾸준히 소통하며 활동하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다. 즉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의 준말인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것이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이며 큰 포부가 아닐까싶다. 이번 제복처럼 자연스레 시간은 지나간다. 우리는 시간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나아갈 일만 있지 후퇴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인생은 더 찬란하고 빛이 날 것이기에 더 이상 삶과 가정에 지쳐 무기력한 삶이 아닌 비슷한 연령대와 소통하며 자기계발을 하는 시간이 부족 많아지길 바란다. 어린왕자의 ‘가장 중요한건 보이지 않아’라는 명언처럼 문화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던 진솔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이것으로 인해 삶의 가치와 질이 증가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 INTERVIEW



# 누군가의 기억은 훗날 역사가 된다

‘달할매와 달줍마’ - 문화점방



▲ 이강하 미술관의 전시 풍경 (빨간색 표시 부분이 달할매 작품)

우리는 수백 가지 아니 수만 가지, 셀 수 없을 만큼의 새로운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 수 많은 경험들은 과거가 되어 기억이라 칭해진다. 기억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시간적 측면에서 불필요하면 잊게 되는 단기 기억과, 장시간, 때로는 평생 동안 유지되는 장기 기억이 있다. 또한 본인의 추억이 담긴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기억과 사회 공동체로서의 기억, 집단 기억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개인 기억 중, 학창 시절 자주 다니던 문구점이나 서점, 음식점은 학창 시절 기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시간이 지나 그 공간을 가본다면, 타임캡슐을 타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마저 들 것이다. 반대로 이런 공간들이 사라져버렸다면, 얼마나 슬프고 아쉬울까? 그 시절의

다양한 추억과 다시는 맛 볼 수 없는 음식의 맛까지... 팬스레 서러울 것이다. 이렇게 학창 시절 기억 속 공간이 없어져도 서글픈데, 오랫동안 나의 보금자리였던 곳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달님을 닮았다는 덕림산 덕분에 월산이란 예쁜 이름을 갖게 된 광주 월산동은, 70-80년대 주택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한 평생 이 동네에 거주하신 분들부터 시집와서 몇 십년간 이 곳에 가정을 꾸린 분까지 이곳과 오랜 기간 함께한 분들이 많다. 이 동네와 함께 한 세월이 긴 만큼 이들에게 월산동은 한 평생 희로애락이 담긴 기억들로 가득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곳이 재개발로 인해 주거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졌다. 삶의 기본요건 중 하나인 주거에 문제가 생기다보니, 신경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불안한 그들에게 문화가 지닌 치유의 힘을 빌려 생활에 대한 새로움, 자극, 작은 울림을 통해 일상의 변화를 불러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다. 할머니와 아줌마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분들을 달할매와 달줍마라는 애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 공간 탐방 시간으로 이강하 미술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전 수업 시간에 이강하 미술관에서 기획한 518명의 광주시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한 〈5월, 평화의 꽃길〉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들은 ‘무등산 화가’ 이강하 작품 속 우리 민족의 선(線), 혼(魂), 맥(脈)이 담긴 오방색과 비단길을 현대적 5



▲ 임의행진곡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적고있는 달할매



▲ 임의행진곡을 부르는 달할매

월의 꽃길'로 표현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은 이강하 미술관에서 전시 중이었고, 그래서 이번 수업은 작품에 직접 참여한 작가로서 전시된 작품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현재에도 5.18민주화운동의 청산작업에서 발생한 오류와 미흡한 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 운동은 1980년대 광주시민들이 함께 겪은 애통한 집단 기억이자, 개인 기억이다. 또한 각자의 역사이기도, 광주 전체의 역사이기도,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한 5.18 민주화운동은 앞으로도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우리의 기억이다.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광주에서는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전시를 진행한다. 역사와 예술의 만남으로 매년 감사함을 느끼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하며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이렇듯 5월 광주를 재조명한 많은 예술작품들이 5.18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예술을 통해 5.18을 직접 겪은 세대에게는 치유의 역할을 하고, 직접 겪지는 못한 세대에게는 광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달할매와 달줍마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이강하 미술관 역시 예술로 기억되는 5월의 광주, 나아가 자유·평화의 꽃길이 되길 희망하는 차원에서





▲ 이강하 미술관에서의 수업을 마무리하며

전시를 기획했다고 한다. 오월 민주 여성회 작가, 정순임 강사님과 함께한 이번 수업은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얼굴을 표현하고, 자신의 기억 속 5.18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읽어보고, 불러보는 시간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다시 상기시켰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달할매, 달춤마도 계셨다. 아직도 우리들에겐 아물지 않은 상처라는 것을 보여준다. 거기에 정순임 강사님은 비통하고 원통한 마음을 춤사위로 표현하기도 하셨다. 역사와 예술의 만남이 주는 말하지 못한 감동과 벽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후 각자 앞에 주어진 재료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형상화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옆에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광주사람이 아니라서, 5.18에 대해 큰 관심도 지식도 없었어요. 광주로 이사를 왔어도 십년 정도는 그저 남의 이야기, 역사적인 사실뿐이었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점점 5.18때 희생당한 아이들의 나이쯤 된 세월이 지나자이 어린아이들의 격렬하고... 몸부림치며 지켜 왔던 이 광주, 그 사건 5.18에 대해느끼며 제대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5.18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 달춤마 중 한 분의 이야기

“5.18 당시 나는 우리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 우리 애 아빠는 싸우러 나갔지.우리 엄마가 임신한 내가 잘못 될까봐 어디도 못나가게 했었어, 그래도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없어가지고 주먹밥을 만들고, 돌을 모아둔다던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도우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밖에 없었지,,, 5.18에 대해서는 말로 다 못해... 얼마나 무서웠는지“

— 달할매 중 한 분의 이야기

그 시대를 직접 겪었던 세대와 그렇지 않았던 세대의 개인기억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그 시절로 돌아가 볼 수 있었고, 아픔과 공포를 공감할 수 있었다. 특히 필자는 개인적인 기억이지만, 달할매들의 생생한 현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기억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달할매와 달춤마의 문화 공간 탐방시간은 5월을 맞이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 5.18민주화운동을 예술로써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본인들만 가지고 있던 기억을 끄집어내어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고장 광주에 대한 아픔과 나,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슬픔까지 어루만져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예술은 꺼내놓기 힘든 감정, 기억을 표현함으로써 편안하고 지속적인 울림을 주는 역할을 한다. 달할매·달춤마에게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힘든 감정, 기억도 있지만 현재 재계발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든 동네의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슬픔, 안타까움, 아쉬움의 감정이 가득할 것이다. 이번 수업시간을 통해 개개인의 기억들이 하나의 큰 역사 속에 모두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배운 듯이 이 기억들은 훗날 월산동의 역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수업시간처럼 5.18민주화운동과 월산동과 같은 개개인의 아픈 기억들은 문화가 지닌 치유의 힘을 빌려 이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고,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그 기억들을 잊지 않길 바란다.



▲ 이강하 미술관의 전시 풍경



▲ 작품을 만들고있는 달할매와 달춤마



# 안녕, 안녕하니?

알로하, 하와이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말, 안녕누군가와의 관계를 시작하는 말, 안녕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주문, 안녕

당신은 지금 안녕하나요?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안녕한가요?

‘안녕’은 나와 너를 이어주는 말이자 아주 오래된 기도다. 내 곁의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나에게도 꼭 건네야 하는 말 바로 안녕이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안녕을 묻지 않고 우리는 서로의 안녕을 바랄 틈 없이 살아가고 있다. 무심한 나날 속 7,694km가 떨어진 섬에서 우리와 안녕하고자 누군가 찾아왔다. 7월 셋째 주 금요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에 그 주인공과 함께 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방문했다. 자연을 사랑하고



▲ 알로하 하와이 첫 번째 워크숍 모습

자유를 지지하는 섬, 하와이에서 날아온 하와이 할머니 알로나(Alona), 그녀의 손자 쿠포노(Kupono)와 함께 하는 시간이다. 그들과 함께 한 ‘알로하, 하와이 (Aloha, Hawaii)’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안녕, 하와이’라는 의미로 하와이의 안부를 묻고, 하와이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다. 하와이와 나를 연결해주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자. 알로하, 하와이~ ^L^

3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첫째 날에 <오리엔테이션>과 <하와이 이야기>를 진행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알로나, 쿠포노를 비롯해 참여한 노리(샴디에서 부르는 청소년을 의미하는 별칭)들도 각자의 별칭을 말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서로 친해지기 위해 간단한 게임을 진행했고 덕분에 분위기는 풀어지고, 활기를 띄었다. 이제 서로 다가갈 준비는 끝났다.

이어서 진행된 <하와이 이야기>에서는 알로나와 쿠포노가 챗트를 부르면서 막을 열었다. 챗트는 (연이어 외치는) 구호 혹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곡조의) 성가를 의미한다. 그들이 부른 첫 챗트에 대해서 알로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인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단하게 챗트가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하와이 전통 챗트를 힘차게 불렀다.

*E homai*

*E ho mai e*

*O na mea huna no’eau*

*O na mele e*

*E homai*

*E homai*

*E ho mai e*

감사히 받아들이다.

지혜를 받아들이다.

달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쿠포노와 노리들

이 챗트는 다른 이의 지혜를 받아들이겠다는 고요한 다짐이라고 한다. 처음 접한 하와이 언어를 차근차근 배워나가며 서툴지만 입을 모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면을 보지 않고 오롯이 옆에 있는 동지들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부르기까지, 하와이 전통 문화를 몸소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제 하와이 전통 문화도 알아봤으니, 현재 하와이가 안녕한지 물을 차례가 왔다. 알로하, 하와이? 알로나와 쿠포노가 살고 있는 하와이의 아름다운 산인 ‘마우나케아산’은 하와이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한다. 그 이유인 즉 신성한 산이기도 하고, 마을에서 사용하는 물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곳은 개발제한지역이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산꼭대기에 거대한 전망대를 세우고자 개발을 허가해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이 곳에서는 시위가 진행되고



▲ 알로나와 쿠파노에게 챌트를 배우는 모습

있으며 하와이 사람들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품지원과 전망대 구축 반대를 지지하고 있는 중이다.

KA KIA'I MAUNA

단단히 서서 마우나케아산을 지키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와이의 이미지는 휴양지로서 여유롭고 평화로운 곳이다. 하지만 하와이는 현재 안녕하지 않다. 알로나와 쿠파노를 통해 하와이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그들에게 힘이 되고자 TMT(Thirty Meter Telescope) 시위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각 팀별로 전지편지를 만들었다. 이로써 하와이와의 첫 만남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하와이 전통과 문화, 그리고 현 시점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바쁜 삶을 살아가며 서로에게 안녕한지 물어볼 시간도 없었던 우리에게 이번 시간을 통해 함께 둘러 앉아 눈을 맞추며 인사하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감싸 안아주고 축복해주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나라에 대한 안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로써 다른 나라에게 관심을 가지며 소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다. 우리 함께 외쳐보자 너는 안녕하니? 거긴 안녕하니?

#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아이엠쌤>

이번 9월호의 키워드는 '생애전환기'이다. 여기서 전환기는 사전적의미로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시기를 말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생애전환기를 떠올려보면 앞서 이야기한 전환기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인생에서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일련의 사건들이 생각 날 것이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인생에서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니 일반적이지 않고 무거우면서 크나큰 사건이여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지 않는가? 마치 위인들의 일대기처럼 말이다.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간다. 서로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훗날 기억하는 부분이 다른 것처럼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 다르다. 이렇듯 사건의



▲ 4일차, AC클리나멘의 김현주 강사





▲ 서로의 손을 마주잡으며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들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고 변화했냐는 각자 다른 일이다. 그럼 특별한 일을 통한 터닝 포인트가 아닌 사소하고 작은 일로도 누군가의 인생에서는 큰 작용을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마지막 4일차에 체험워크숍과 라운드토크로 지역문화예술 전문가와 사례를 공유하면서 토론으로 이어졌다.

### 손으로 소통하기

당신은 손으로 주로 무엇을 하나요? 내 손이 참 잘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내 손이 잘못했다, 후회 된다고 느꼈던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고 남은 평생 손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게 함께 있어왔으며 언제나 함께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도지 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적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손을 A.C클리나멘의 김현주, 조광희 강사님은 문화예술교육의 키워드로 잡아 풀어냄으로써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먼저 4일 동안 한 마디도 해보지 못했던 선생님들끼리 짝이 되어 위에 있는 질문들을 서로 돌아가며 화자와 청자가 되어 이야기 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주제는 손이었지만 이를 통해 같은 직업인으로서

느끼는 고충과 한 인간, 부모라는 역할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며 진실 되고 깊은 이야기까지 이어졌다. 손을 마주잡으면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그 현장은 눈으로 말로 공감해주며 위로해주는 모습들이 가득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점차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 손으로 표현하기

손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기쁘거나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 박수를 치고, 불안할 때는 손을 떠다던가, 화가 날 때는 문을 쾅 닫는 식으로 표현된다. 그래도 가장 명확하게 감정을 표현할 때는 글을 쓸 때이다.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신문지에 본인을 지금 괴롭히는 것에 대해 썼다. 그리고 자신이 쓴 신문지를 마주하고 그 내용을 크게 말하면서 손을 통해 격파하고 찢어버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속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손을 통한 감정의 해소를 경험할 수 있었다.

손으로 생각 모으기선생님들이 워크숍을 참여하며 느낀 고민지점 또는 소통하고 싶은 여러 이슈와 키워드를 써서 바닥에 붙였다. 그 후 한 명씩 나와 자신이 공감하는 이슈에 자신의 털실을 쪽 이어 나갔다. 이로써 교사들의 관심 지형도가 바닥에 펼쳐졌다. 말하지 않고 손을 통해 그들의 생각들이 많이 모아진 키워드들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형도 중, 털실의 밀집도가 높은 이슈를 중심으로 각자 토론하고 싶은 곳으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 세 명의 전문가(김현주, 조광희, 신희홍강사)가 라운드테이블의 팀티칭 역할로 투입하며 심도 있는 내용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그들은 한동안 학교현장에서 문화예술과 연계시키는 실질적 경험을 토대로 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론 제언 등을 공유하며 열띤 생각 펼치기, 모으기가 이어졌다.

이번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교과연계 통합예술 교육 워크숍 ‘아이엠샘’ 을 통해 배운 것처럼 문화예술교

육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교사라고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함께 경험하고, 소통하며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합적 사고를 하게 하는 것이 문화예술이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배우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다. 사제시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요즘, 경직되고 정적인 수업의 형태에서 벗어나 몸도 움직여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단 몇 시간일지라도 놀이처럼 서로 고민거리, 문제점을 편안하게 말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이 짧은 시간에 선생이든, 학생이든 각자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만들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작은 전환점들이 모이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로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작은 전환점의 잠재적 능력을 믿고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많은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 털실을 가지고 지형도 만드는 모습



▲ 라운드테이블, 토론 중인 모습

# 봄에서 겨울까지 9개월간의 문화예술기록기



통신원  
**김수환**

“우리 회사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취재하고 기사 작업하는 사람을 뽑는데 한번 지원해봐.” 사소하고 가벼운 말이었다. 퇴직하고 한참을 놓고 있는 친구가 안쓰러워 한 번 던진 말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내가 물었다. “그래? 기한이 언제까지야?” 그렇게 시작된 나의 광주문화재단 통신원 활동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고되었고 ‘예상외로 즐거웠다.’

처음으로 현장 취재를 나갔던 봉다리콘텐츠연구회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 축제〉의 첫 수업은 축제로 시작했는데, 축제라는 느낌보다는 동네 행사에 가까웠다. 그래서 당황했다. 봄비가 보슬보슬 오기 시작했고, 축제 시간이 다가오자 4월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추워지기 시작했다. ‘아, 취재 어떻게 한담? 사진은 또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오지?’라는 걱정에 생각이 많아졌다. 그런 나의 생각이 기우라는 듯, 동네 주민들은 마련한 수육과 막걸리, 떡, 각종 과일들이 축제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봉다리콘텐츠연구회에서 준비한 밴드음악이 현장의 흥을 돋았다. 참여자들은 차후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말을 악기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간이역 마당을 축제 분위기로 바꾸어 나갔다. 취재는 성공적이었다. 그럼에도 4월 뉴스레터 올림에는 신지 못했다. 조금 더 취재하고 싶었다. 처음의 각오뿐만 아니라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악기를 다루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타나는 개인의 변화를 담아내고 싶었다. 그리고 9월 나의 첫 취재를 뉴스레터 올림에 올릴 수 있었다.

첫 취재가 올라오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 동안 나는 광산문화원,

유아문화예술교육, 창의예술학교, 은암미술관, 전통문화관, 광주현대무용단 퍼블릭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했다. 문화예술 속 새롭게 경험한 지식과 느낌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취재하면서 깨달은 것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찾아서 질문을 준비하던 실제로 취재를 가면 더 술하고 참신한 이야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나의 깨달음이 새삼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터이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지만 각각의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부터 목적, 그리고 열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를 자극했다. 그런 자극들 덕분에 ‘아마 난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쯤 포기하고 있던 백수를 구조했다. 다시 사회라는 바다에 뛰어든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지금은 아직 미약한 한 발자국이지만 창대한 마지막을 위해 하나하나 완성하고 있다.

글을 쓰기 시작한 4월부터 12월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고, 문화생활이라면 책, 영화, 뮤지컬 정도로 한정 짓던 나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세계를 알게 해준 고마운 통신원 활동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나갔으면 좋겠다. 한낱 백수인 나를 광주문화재단 통신원이라는 직함을 달아주고 명함과 통신원증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다. 힘들었던 즐거웠던 항상 ‘마지막’이란 단어는 사람의 마음을 애뜻하게 만든다. 2019년도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통신원 활동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 나간다. 나는 지난 4월보다 더 넓고 깊은 문화예술의 눈을 가지게 된 사람으로 성장했다. 내년에 나는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살아갈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기대되는 건 광주에 이토록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들이 있어서가 아닐까.



# 일상에서 예술을 가꾸는 문화예술 키움터

광산문화원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시행하며, 생활 속에서의 예술을 양육하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광산문화원은 젊은 문·예인부터 장년층에 이르는 어머님들 각각의 예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향토사 연구의 결과를 분기마다 ‘어등골 문화’잡지와 ‘어등의 맥’으로 발간해 배포하기도 한다.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닌, 자신이 향유하는 모든 것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광산문화원은 오늘도 광산구 상무대로 265 광산생활문화센터 2층에서 열린 공간으로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싶은 광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광산문화원내 작은 도서관과 주민 쉼터



▲ 요가 강좌 중 ‘뱀(코브라)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

## 광산문화원,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지역 문화 개발·보존 및 활용을 위해 개설된 광산문화원은 올해로 54주년을 맞이했다. 지역 문화의 국내·외 활발한 교류와 더불어 지역 소모임 활성화 컨설팅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까지 광산구 구민들을 위해 다채로운 문화 융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작년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3회 담장 너머 뭐 하나’와 ‘2018 광주 클럽데이’는 문화와 예술이 광산구 구민들의 일상 속에 어떻게 어우러졌는지 잘 보여주는 축제였다. 올해 역시 20여 개가 넘는 동호회와 문화강좌를 토대로 생활문화교류 축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꾸준히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뒤에서 보살피며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법이다. 오늘 그 역할을 맡고 계신 김민영 팀장님과 함께 광산문화원을 면면히 살펴보자!



## 1913송정야시장 가기 전 여기서 쉬다 가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작.은.도.서.관

당신이 스터디 할 공간을 찾는다면 이만한 곳이 또 없을 것이다. 바로 광산문화원의 로비다. 광산문화원에 첫 발을 디디면 어느 카페 부럽지 않은 넓은 공간이 눈에 들어오는데,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그림들은 '배동신 아동미술대전'에 출품된 작품들이다. 이곳은 열린 공간으로 누구든 편하게 와서 쉴 수 있고, 바로 옆 작은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빌려 읽을 수도 있다. 덕분에 뜻하지 않게 찾아왔더라도 작품들과 도서들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머물게 되는 공간이다. 만약, 1913송정야시장을 구경하려다 너무 일찍 도착한 광주민들은 힘들게 쉴 곳을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서 알찬 시간 보내자.

2019 문화학교 신입생은 고르는 재미가 있다! 가족들과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일주일이 시작하는 즐거운 월요일 오전!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뻘뻘한 이곳은 광산문화원 건물 3층이다. 대학의 유명한 강의라고 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수강생이 모이는 것을 보는 건 드문 일이다. 하물며 지역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노래교실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수업과 더불어 광산구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광산문화원의 열렬한 홍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신나게 춤추며 건강해지는 웰빙 댄스

**Q** 생활 문화 동아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강좌를 개설하고 계신가요?

“ 우리 문화원 강좌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장년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수업들을 주로 개설하는 편이에요. 오카리나와 같은 다루기 쉬운 악기 수업부터 캘리그래피, 난타, 웰빙댄스와 같은 수업들을 개설해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광산 노래교실과 요가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수강생 수가 늘어나서 그동안 애써 보람이 느껴졌어요.

설명을 듣다 보니 서구 구민인 나도 소문이 자자한 요가 강좌에 관심이 생겼다. 갑작스러운 청강 요구에 흔쾌히 OK를 외쳐주신 광산문화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직접 지친 몸을 깨우는 요가 강좌를 체험해보았다. 트로트 가락 속에서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광산문화원의 요가 수업은 타 학원의 요가 수업과 차원이 달랐다. 요가를 담당하고 계신 오성희 강사는 수강생의 얼굴 한 명 한 명을 확인하며, “모든 것은 10년은 해야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을께, 존말할 때 결석하지 말어잉!”라며 익살스러운 사투리로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리고 시작된 본 수업! 스트레칭 시간에도 온몸이 저릿저릿하던 본인은 뼈와 근육을 재배치하는 마음으로 힘겹게 동작을 이어나갔다. 나만 힘든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본 순간, 자연스럽게 강사님의 동작을 따라 하는 ‘중년의 레이디’들을 보며 그들의 유연함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윽고 마지막 사바사나 자세. 실제로 마무리하는 단계이자 명상을 하며 숨을 가다듬는 시간이기에 자세가 흐트러질 만했으나, 끝까지 숨을 고르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수강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 월봉서원 뒤편 판사등산(백우산)에 비구름이 내려앉은 모습

위인을 따라 예술가의 길로 광산문화원이 이토록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예술에 힘을 쏟게 된 배경에는 광산구의 걸출한 위인들이 한몫했다. 전남 광산군 출생의 용아 박용철은 <시문학> 창간을 시작으로 순수 서정시의 시대를 열고, 문학 평론가로서 활동과 극예술연구회를 통해 집필과 출연 등으로 한국 초기 극예술의 초석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떠나가는 배」, 「밤기차에 그대를 보내고」 등이 있다. 광산문화원에서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용아 박용철 백일장’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용아 박용철의 생가는 현재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어 광산문화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근대 비평문화관 건립 예정에 있다. 해당 문화관은 앞으로 인문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문 기반 거점 시설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브랜드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광산문화원에서는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이 돋보이는 황룡강을 따라 조성 예정인 문인벨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고봉 기대승을 기리는 월봉서원을 시작으로 조선 중기의 문인 설강 유사가 지은 호가정까지 약26km에 달하는 ‘황룡강 문인의 길’은 11개의 광산 명소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콘텐츠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시행하며, 생활 속에서의 예술을 양육하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광산문화원은 젊은 문·예인부터 장년층에 이르는 어머님들 각각의 예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향토사 연구의 결과를 분기마다 ‘어동골 문화’잡지와 ‘어동의 맥’으로 발간해 나누어 주기도 한다.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닌, 자신이 향유하는 모든 것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광산문화원은 오늘도 광산구 상무대로265 광산생활문화센터 2층에서 열린 공간으로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싶은 광주민을 기다리고 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 광주의 유아문화 예술교육은 새싹을 틔우는 중

유아문화예술교육사업 담당자 인터뷰



▲ 성남아트센터와 성남문화재단이 합작으로 개발한 어린이 오락실 키트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제정으로 전공자를 위한 교육에서 ‘모든 이를 위한 예술(Art for All)’로의 변화와 함께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특히 초중등 시기에 비해 유아기에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은 생애 기초학습능력의 함양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및 다문화 가정과 장애 유아의 문화예술 교육은 지리·경제적으로 어려워 경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2019년 국가적 차원에서 유아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설명하자면 어린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의 첫 걸음마를 쉽게 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유아기에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가 다른 시기에 비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자면, 유아기에 올바른 문화예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후에 상당한 사회적·개인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재 영유아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센터를 비롯해 어린이들을 위한 박물관, 미술관이 빠르게 성장해나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도 전라남도과 광주지역에는 유아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기반 시설 및 단체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영국의 문화예술교육은 5세부터 18세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한 건축, 연극, 관현악단, 영화제작 등의 문화예술 기관이나 예술가 등과 지속적인 공동 작업을 통해 창의성을

개발하도록 목표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문화적으로 낙후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많은 자원과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파트너십으로 선정된 예술 단체들은 학교와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어 상호 도움이 되는 활동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전문 인력과 학교의 연결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있어 가장 필요한 1순위가 ‘유아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파견(52.1%)’이었다. 이런 요구를 토대로 올해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19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전문가와 강사 등을 포함한 단체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유아문화예술 정윤정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 만화경으로 보는 세상은 형형색색이다

Q 이 사업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네. 이 사업은 광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원래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서울지역을 기반으로 각 지역에서 기관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각 지역의 재단 또는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광주지역의 문화예술시설 또는 기관에서 유아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광주문화 재단에 사업 참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이 되는 거예요.

Q 이 사업의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처음부터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개발부터 함께 한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의 목적은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문화시설 및 자원을 토대로 한 지역 중심의 유아 문화 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 선정된 지역단체에는 기획자, 연구진, 강사를 비롯한 연구개발과 같은 인력 비용은 물론 컨설팅, 워크숍, 교구 개발 비용까지 지원할 예정에 있어요.

Q 그럼 이 사업을 참여할 단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교육 도중에 사용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키트는 성남아트센터와 성남문화 재단이 합작해서 만들었던 키트인데요.

어린이 오라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직접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개발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은 또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서 성남아트센터에 전시도 하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놀이와 문화예술이 섞이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어요.

Q 그럼 공부하는 것보다 체험하는 쪽이 많겠네요?

“ 네. 유아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사업이 유아기 감수성과 사고능력 계발을 목표로, 지식과 기술 습득보다는 체험, 표현, 감상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며 음악·미술·무용(체육) 등 각 분야를 연계해 통합적 방식으로 유아기의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의 신청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Q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현재 단체들을 모집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5월부터 하게 될 텐데 8월까지의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가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제 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전의 기획 단계와 현장 시행 후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흥원에서 컨설팅을 가질 예정이랍니다.

Q 총 몇 개의 단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3개의 단체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각 단체별로 최대 8천만 원이 지원되고, 3개의 단체 중에서 한 개의 리드 기관을 선정해 선생님들의 연수도 함께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리드 기관에는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지원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 사물이 나뉘져 보이는 카메라 필터

Q 마지막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데 가장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 유아문화예술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개발도 해야 하고 키트도 만들어내야 하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해야 하는 상당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하려는 기관에서도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럼에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선정돼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부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아들을 위한 질 좋은 프로그램들이 연구·개발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는 것에 최대한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한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비단 부모만의 노력이 아닌 주위의 모든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이를 위해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국가적으로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들의 시행이 앞으로의 유아들의 행복한 문화 예술적 삶의 실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INTERVIEW



조물조물, 아이들 손에서

# 다시 태어나는 고물의 비상!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생활디자인 프로젝트 “고물의 재탄생”

다들 그런 기억 하나쯤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방학 숙제로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했던 그런 기억. 필자는 ‘만들기’라는 것에는 전혀 소질이 없었다. 특히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에는 더욱 취약했다. 그래서 만들기 숙제가 생길 때 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방학 숙제와 관련 없는 어른이 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만들기와 점점 더 멀어졌다. 그런 나에게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생활디자인 프로젝트 “고물의 재탄생” 취재라니. 그렇게 밀어냈던 만들기가 “안녕? 우리 너무 멀어져 있었지?”라며 갑자기 튀어나온 기분이었다. ‘만들기’란 무엇일까?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활용으로 만드는 창작물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그때의 나로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근본적인 물음들과 함께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서구 시소 센터를 찾았다.



▲ 수업 시작 전 아이들과 오늘 할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선생님들



▲ 글루건을 이용해 수레를 마무리 하는 모습

뒤편에 넓은 잔디 마당이 있는 시소센터는 막 하고교한 아이들과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로 북적거렸다. 수업하는 공간에는 이미 도착한 아이들이 이름표 스티커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알록달록 꾸미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은 광주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통신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나, 또 어디까지 작품을 만들었나, 구경하러 왔어요!” 열 명 남짓한 학생들이 모이자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 교실 구석에 우뚝 서있는 나를 소개시켜 주었다.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자 한 아이는 부끄러운 듯 눈을 돌렸고, 또 어떤 아이는 활짝 웃으며 반겨주기도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한반 이룬 생활디자인 프로젝트 “고물의 재탄생”반은 아이들 스스로 복수로 변신해 수레도 직접 만들고, 그 수레에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고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하는 수업이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재료들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고 엉뚱한 상상력을 더하여 작품을 완성해 가며 아이들은 창의력을 구체화 시킬 수 있다. 특히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인근은 1995년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계획된 도시로, 95%이상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 주민들

간의 소통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 동네이다. 그런 공간에 아이들이 버려진 물건을 수집하기 위해 마을을 탐험하는 행위 자체가 마을과 사람 사이에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자신이 무엇을 만들지 계획안을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그린 계획안은 자유로워 마치 피카소가 그린 그림들을 연상케 했다. 그리고 느꼈다. 어린 시절 내가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처음부터 완벽하려 했기 때문에 계획안을 그릴 때에도 한 번에 ‘짠’ 하고 완성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았던 내가 생각났다. 계획이라는 것은 원래 고치고 또 고쳐가면서 완성되는 것인데 말이다. 계획안을 점검하는 시간이 끝나고, 지난 시간동안 만들었던 수레를 좀 더 손보는 시간을 가졌다.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 어른이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수레가 정말 탄탄해 보였다. 몇몇의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글루건을 사용하여 못이 튀어나온 부분을 안전하게 손보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오늘은 어떤 동네를 탐험할 것인지, 또 어떤 고물들을 주워와야 작품에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 하며 아이들 모두가 프로젝트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 직접 만든 수레를 가지고 동네탐험 시작!





▲ 어떤 버려진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아이들

“아까 오면서 금호대우 아파트에 커다란 인형 봤어요!”,  
“저는 바퀴가 필요한데요?”

라며 선생님에게 기대에 찬 목소리로 여러 의견들을 전달하는 모습에 ‘작품’이란 단어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어렵고 생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다. 아이들이 만든 수레를 가지고 직접 버려진 물건들을 주우러 가는 역사적인 첫 날! 아이들은 아파트 한 곳 한 곳 자세히 둘러보며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했다. 캠코더, 거울, 여행용 캐리어 가방, 토스트기. 생각보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물건들이 버려져 있었고, 아이들은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수레에 담았다. 수레에 담긴 양이 많아질수록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나는지 재잘재잘 웃고 떠들며 마을 탐험을 계속했다. 이 물건들이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작품에 사용이 될지 궁금해졌다.

현재 시소 센터 생활디자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계신 박혜진 선생님에게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했는지 물음을 던졌다. 그러자 “다양한 경험을 통한 내적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하기 힘든 경험을 제공하는 배움터의 역할을 수행하자!’라는 것이 시소 센터의 목적이에요. 창작물을 창조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일상의 재미와 활력을 찾아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힘을 키웠으면 해요. 또 아이들이 ‘고물의 재탄생’ 프로젝트에 참여해 삶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혜, 태도를 손과 몸으로 익히고,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서 물건을 소비하는 삶이 아닌, 생산자로서 물건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라고 답해주셨다. 다채로운 경험이 그리고 창작활동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에 중요한 영양분이 된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왜 그토록 초등학교 방학 숙제에 ‘만들기’가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아마 만들기를 ‘창작활동’이 아닌 ‘숙제’로 인식한 나에게 문제가 있었으리라. 필자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이토록 재미있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 것에 감사하며, 버려진 물건들이 아이들 손에서 멋진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 공원에서 전시될 그날이 기다려진다.

7080의 유쾌한 반란!

## 인생, 지금부터 시작인디?

봉다리콘텐츠연구회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 축제〉



▲비가 많이 쏟아지던 축제 당일, 밴드 모달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광주광역시 임곡동은 주민의 47%가 40~60대의 장년층이다. 20~30대 못지않게 다양한 욕구와 자아실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지리적·경제적 이유로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시골이라 부르기도 도시라고 부르기도 애매모호한 ‘임곡’. 이 지역에 주민들의 욕구를 조금이나마 채워줄 모임이 생겼다. 바로 ‘임곡 봉다리 밴드’다. ‘임곡 봉다리 밴드’가 축제를 열다는 소식에 지난 4월 임곡동을 방문했다. 마을 주변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었고, 내 또래의 20대는 눈을 찢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다. 광역시라는 중소도시의 광주에 익숙한 나에게는 드넓게 펼쳐진 논밭과 산등성이가 훤히 보이는 한적한 임곡이 광주라고 믿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축제가 열리는 간이역





▲임곡 봉다리 밴드의 첫 무대

마당만은 활기가 넘쳤다. 과일과 수육, 막걸리와 떡 냄새가 고소하게 풍겼고 마을 주민들은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서로 음식을 권하고 삼삼오오 모여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곡고 밴드 ‘모달’ 이 연주를 시작했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 축제>라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계기로 임곡의 주민들이 마음에 드는 악기를 접적어 앞으로 약 7개월 간 꾸준히 배우게 된다. 전문가의 공연을 보며 악기를 처음 배우는 마을 분들이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하나가 스물스물 내 안에 자리 잡았다. 악기를 배우고 여러 사람들과 합을 맞춰 연주하고 공연을 여는 것이 몇 달만에 이루기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40~60대 분들이 드럼, 기타, 건반을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나로서는 잘 그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나의 편협한 생각은 8월 두 번째 공연을 관람 후 모두 사라졌다. 황룡강 다리 밑에서 열린 두 번째 축제는 참여한 마을 주민들의 열정을 볼 수 있었다.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지 느낄 수 있었다. 축제의 오프닝은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김수환 학생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알라딘 수록곡인 ‘Speechless’와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가 이어졌다. 임곡동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 무대에 올랐으며 계속해서 ‘임곡 봉다리 밴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건투를 빈다는 응원의 말을 전했다.

축제에서 대미를 장식한 것은 당연히 ‘임곡 봉다리 밴드’다. 지난 4개월간 주민들과 함께 연습한 권준희 강사는 “한 곡 한 곡 심혈을 기울여 연습했고, 한 땀 한 땀 장인이 바느질하듯 곡을 바느질하여 준비한 자리다. 그만큼 관객 여러분의 힘찬 함성과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공연을 소개하며, ‘연가’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첫 곡으로 연주되었다. 올해 초봄부터 이어지는 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매주 월요일마다 공을 들여 연습해서 그런지 모두들 매끄럽게 악기를 다루고 있었다. 잠깐 연주자들의 소개와 무대에 오른 소감을 말하는 자리를 가진 후, 산울림의 ‘개구쟁이’에 이어 마지막 곡인 ‘여행을 떠나요’까지 총 3곡을 안정적으로 연주하며 무대를 마쳤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석에 앉아 있는 마을 주민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무대를 즐겼다.

어머니와 함께 임곡 봉다리 밴드에 참여하고 있는 박정원씨는 “임곡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엄마와 함께 참여하게 됐다.”고 밝히고, “처음에는 제가 음치여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참여하시는 분들과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 연습할 수 있었다.(웃음) 이번 공연을 보고 막내 동생도 악기를 배워보고 싶다고



▲임곡 봉다리 밴드의 첫 무대



▲ 임곡 봉다리 밴드가 마지막 곡인 ‘여행을 떠나요’를 부르며 마무리 하고 있다

했다.”고 말하며 공연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광주 중심이나 장성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장년층이 많았던 임곡동 주민이었기에 남다른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빠른 실력 향상이 있었던 것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임곡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도시 외곽지역에 사는 많은 주민들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갈증을 느끼고 있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었다.

현재 임곡에서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 축제>라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권준희 선생님은 “40~60대를 타겟으로 장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 점점 늙어가고 침체되어 있는 마을에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말하며 “중년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타인의 삶과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 개개인의 자아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임곡 봉다리 밴드’는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실력을 높이고 개인의 일상, 지역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자작곡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10월경에 임곡마을에서 개최하는 백우축제 무대에 올라 마을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즐거움을 드릴 계획이다.

# ‘단짠단짠’달콤 짹짹했던 지난 10개월의 시간



통신원  
**김재철**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전시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하고 글쓰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글을 써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도전했다. 하지만 당당했던 도전의 자신감은 첫 취재부터 난항을 겪었다.

첫 도전, 첫 취재부터 마지막 취재까지 통신원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동안 쓴 글은 혼자 쓰고 혼자 읽는 글로 비판과 개인의 생각을 편안하게 적었지만 통신원 기사는 달랐다.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잘 못된 정보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였던 기획자, 작가의 열정과 뜻을 다 전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컸다. 프로그램과 작품에 대한 열정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바람과 뜻을 전하고 싶었으나 그 뜻을 많은 이들이 이해하도록 풀어쓰고 담기에는 분량의 한계와 글의 분위기를 맞추기에는 쉽지가 않았다.

통신원 원고쓰기가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통신원활동의 가장 큰 재미인 것 같다. 통신원활동은 ‘단짠단짠’인 것 같다. 취재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는 달달함과 원고를 쓰면서 얻어가는 짹짹한 스트레스. 이 두 조합이 통신원의 지난 10개월을 책임졌다.

통신원 활동을 하면서 인상 깊은 취재들은 어린이 프로그램들이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취재를 하면서 잃어버린 동심을 배운 것 같았다. 작품과 프로그램을 일차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배울 수 있었다. 그동안 많은

작품을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점점 그 내용의 의미를 찾는데 집중한 나머지 작품이 주는 일차원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작품이 주는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품이 주는 첫 이미지를 놓치고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통신원 지원서에서 들었던 질문이자 취재 인터뷰로 자주 물어본 질문이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작품 감상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처음 작품을 감상할 때 ‘예쁘다, 멋있다, 재밌다’로 시작하여 흥미를 갖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 하였다. 그러다 취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대부분 질문에 대한 응답은 문화예술과 우리들의 삶은 하나이고 문화예술교육은 그 기틀을 마련하고 자연스럽게 삶과 연결시키는 활동이라는 내용이었다. 취재 전까지는 문화예술을 특정 활동으로만 생각했지만 통신원을 마무리하는 지금 문화예술을 보다 넓은 폭으로 바라보고 삶과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0개월 저마다 길게 혹은 짧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활동의 기간은 짧았지만 배움의 깊이는 깊었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이었다.

COLLECT  
NEWS



# 숲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생생체험

협동조합산림문화연구소 “숲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자연미술”

봄을 채 느끼기도 전에 여름이 ‘혹’ 들어왔다. 아스팔트는 뜨겁게 달궈지고 건물 숲에는 더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들에게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해 도심 속에 위치한 작은 자연으로 들어가 보았다.

광주 서구에는 해발 약 73m 높이의 조그마한 백석산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을 뒷산과 같은 느낌을 주는 이곳은 다양한 나무들과 꽃들이 함께 자라 도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자연을 벗 삼아 새로운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다. 바로 “숲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자연미술” 프로그램이다. 이는 ‘광주문화재단’과 ‘협동조합산림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초등학교 어린친구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갖고 있다.



▲ 협동조합산림문화연구소 “숲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자연미술”



▲ 비 온 뒤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을 보며 보석이라 말하는 아이들  
“와! 보석이다 보석! 선생님 이거 보석 같아요!”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산림문화연구소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었다.

Q 이 사업의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이 어린시기에 추억의 숲을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세대는 숲에서 자랐어요, 여기서 놀이가 일상생활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도심에서 살면서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챗바퀴 도는 듯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유년시절 이런 기억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숲이 아이들에게 지금은 동네 놀이터가 되고 후에 성장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요즘세대들은 핸드폰, 디지털이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렇게 놀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활동을 한다면 축구라던가 체육관에서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이렇게 원초적으로 흙을 가지고 놀고 나무를 가지고 논다거나 숲을 한 바퀴 돌면서 열매열린 것들을 본다거나 애벌레들 자라는 것도 보고 풀잎위에 물방울 맺힌 걸 보며 우리 애들에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자연을 느끼며 감성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친구들 땅파다 곤충친구들 나오면 어떻게 해야해요?”  
“조심해야해요!”  
“선생님 여기 뿌리있어요 뿌리!!”

▲ 자연과 하나가 되어 노는 친구들

Q 소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오로지 애들이 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라는 것을 바라고 더불어 이곳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숲에 대해서 모두들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연생태 학습이 추가적으로 되겠지요. 그래서 곤충이 알에서부터 애벌레, 번데기, 성충,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실제로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계절엔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면 꽃향기가 우리를 반기고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말아보자고 “아 냄새 좋다.”하며 자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문화예술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태백산맥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정래’ 작가님이 벌교에서 생활하던 어린 시절이나 숲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감성적으로 담겨있거든요. 경험하지 않는 것은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신원선생님 세대들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경험이 많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회를 자주 주는 게 아이들에게 감성을 살리고 문화의 토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연환경을 제공해서 문화 예술적 토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하는 게 저의 바라는 점이에요.

Q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예술 교육이란 무엇 인가요?

“저는 문화예술교육이 직접적으로 애들이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생각이 한정되어있지 않고 나무에 흙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그 쪽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부모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해서 반드시 참여해서 우리의 철학이 무엇이고 아이들 창의적인 생각한다는 것, 이렇게 노는 것 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사고로 발전하는지 말해주거든요. 부모님들께 여기 오면 옷을 더럽혀서 가는 게 잘 노는 것이다. 그래서 현옷을 입혀서 보내주라고 말씀드렸더니 협조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숲에 보면 애벌레들이 있어요. 개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지 가령 로봇을 만드는 회사나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면 로봇 다리가 4 개부터 많게는 20개가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다리를 움직여서 걸어가게 되는지를 프로그래밍 해서 넣는다면 애벌레가 걷는 모습을 상상해서 넣으면 할 수 있겠죠. 또 자연에서 나오는 디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폭스바겐을 보면 ‘비틀’이라는 풍덩이차가 있어요. 풍덩이 모양을 자연에서 가져와 만들었잖아요. 이런 디자인들이 자연에서 나온다고 봐요. 이것도 예술이고 문화라고 생각해요. 자연에서 이런 것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연 안에 과학적인 것에서부터 미래가 다 담겨있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예술은 그런 기초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닦고 먹어요.”

“일회용 용품은 사용하지 않아요.”

“평소에 집에서 잘 먹지 않는 콩도 여기에 오면 친구들이 먹으니까 신기하게 같이 먹어요.”



▲ 자연이 주는 간식을 먹는 친구들



▲ 꽃향기 카나페(지난 주 간식)





▲ 자연에 고인 빗물로 손을 씻는 친구들

“건강 이런 것들도 자연 속에서 함께 클 수 있다고 봐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외에서는 이럴 줄 알아야한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문화적·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 어린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하는 인성이라던지 사회에서 제공해야하는 건강 이런 것들도 자연 속에서 함께 클 수 있다고 봐요”

소장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참여선생님의 생각을 잠시 물어보았다.

Q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 제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어렸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알았었다면 무조건 시켰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삶이 자연이랑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웠는데 지금 애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면 이런 경험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 번씩 왔다가면 애들이 아까도 흙 만지고 놀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첫마디가 “엄마한테 혼날 텐데” 물 한 방울 딱 튀니까 아 “어떻게 하지 엄마한테 혼날 텐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혼 안내는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애들이 저런 말 안하고 비 오면 나가서 막 만지고 놀아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동이 편리한 금호동 지역에서 광주 전역으로 참여대상을 넓혔는데 광산구, 북구 멀리서도 찾아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 폰, 컴퓨터, TV, VR(Virtual Reality) 등을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 눈으로 보기 힘들고 직접 체험하기 힘든 것들을 이제는 간접적으로 보고 체험하며 이를 통해 경험하기 힘든 상상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상상력들을 얻는 것이 우리들 각자의 머릿속에 자신만의 상상력이 채워질 공간을 특정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몇몇 개인의 상상력으로 대신 채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디지털 체험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디지털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에서 얻는 아날로그 체험이 우리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고 할 수는 있다. 아날로그 감성. 이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자연 속에 그린 그림이 마음속에서 나의 생각대로 움직인다.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가 나의 마음속에서는 자동차 핸들이 되고 내가 상상하는 로봇으로 탄생한다. 비록 이들은 디지털로 구현된 형태보다 투박하고 멋없을 수 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디지털보다 더 화려하고 멋있을 수 있다.

토요문화학교 “숲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자연미술”은 봄학과 가을학기로 나누어져 운영된다. 가을 학기 참가자 모집이 차후에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카페 산림문화연구소(<http://cafe.daum.net/ecothesoap>)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작은 것들을 위한 움직임

태이움직임교육연구소 “나는 춤추는 안무가”



나는 춤추는 안무가. 처음에 프로그램의 제목을 듣고 K-POP음악에 맞추어 춤을 배우고 자신만의 즉흥적인 안무를 새롭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취재길을 나서게 되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일주일간 일상생활에서 얻은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시작하였다. 흥겨운 멜로디에 맞추어 앞뒤양옆으로 온몸을 쭉 펴주고 피로로 뭉친 근육을 잘 주물러주면서 일주일간 못 본 친구들과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마음으로 춤을 추기위한 준비를 하는 듯 보였다.



▲ 걷기 동작에 맞추어 개성 있게 돌아다니는 친구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며 프로그램 제목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편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흔히 알고 있는 대중가요가 아닌 흥겨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멜로디에 몸을 맡기며 ‘암호를 외워라’라는 놀이를 시작했다. 1번부터 5번까지 각 번호마다 걷기, 멈추기, 같은 포즈로 둘이서 멈추기, 높낮이를 다르게 둘이서 멈추기, 여러 명이 포즈취하기로 프로그램 선생님이 말하는 번호에 맞추어 즉흥적으로 친구들과 개성 있는 포즈를 취하며 모든 행동이 하나의 안무가 되고 여러 명의 행동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지고 있었다.

이어서 ‘자기가면 업그레이드’가 시작되었다. 지난번 교육시간에는 교육 마지막에 부모님 앞에서 할 공연 때 쓰일 가면을 각자의 개성에 맞게 색칠하고 표현해 만들었다. 각자의 가면은 개인의 개성뿐만 아니라 한 주간에 있었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지난주에는 슬픔이었던 가면이 행복한 가면으로 바뀌고 저번 주와 다른 오늘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개성을 더해가며 세상에 하나뿐인 그들만의 특별한 가면을 만들고 있었다.





▲ 벽에 붙은 동작을 읽고 각자의 개성에 맞게 표현하는 친구들

가면을 꾸미고 이어서 ‘동작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앞서 만들었던 자신의 가면을 생각하고 그와 어울리는 동작을 생각하고 이를 단어로 적는 것이었다. 일종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방식인 것 같다. 각자 받은 5개의 동그란 스티커에 원하는 동작을 각각 적어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자신의 안무를 완성하는 모습이였다. 한 사람이 5개의 동작을 만들었지만 여럿이 만들다보니 겹치는 동작들도 있었다. 하지만 동작들이 모여 5개가 10개가 되고 20개, 30개가 되어 다양하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동작까지 공유하며 상상도 못한 작품이 탄생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동작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표현할 시간이다. ‘동작을 읽어오.’는 한 명, 한 명 무대로 나와 친구들이 벽에 붙인 스티커에 적힌 동작을 읽고 춤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같은 단어를 읽어도 모두 다르게 개성에 드러내며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앞 친구와는 다른 동작을 읽고, 같은 동작을 읽어도 다른 안무를 하며 각자의 상상력을 표현하는 모습이 이 프로그램의 주 목표가 아닐까 싶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수줍어할 법 한데 적극적으로 나와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이 신기하고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더욱 빛내는 듯 보였다.

오늘 프로그램의 끝이 다가왔다. 모두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모습이 적힌 서로의 가면을 쓰고 즉흥적으로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몸으로 표현하였다. 잔잔한 멜로디에는 조심스러운 안무를 흥겨운 멜로디에는 그에 맞는 신나는 안무를 옆 사람 눈치 안 보고 자신만의 움직임으로 펼쳐나갔다. 여러 명이 각자의 느낌에 맞추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즉흥적인 것 같은데 잘 짜여진’ 한편의 공연을 보는 듯하였다. 흔히 알고 있는 대중가요, 대중적인 춤이 아닌 즉흥적 멜로디에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춤을 추며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고 참여한 친구들 모두가 예술가가 되었다. 여기 참여한 친구들은 알게 모르게 문화예술교육을 몸으로 흡수하고 문화예술을 하나의 일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 내가 만든 가면에 어울리는 동작을 단어로 적어보자



▲ 동글게 돌면서 다른 친구들의 동작을 살펴보기



▲ 각자의 개성과 감정에 맞추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가면



### 신희홍 대표님과과의 만남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춤이라고 하면 기능 중심 또는 K-POP댄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 하고 싶은 춤은 ‘삶 중심의 무용교육’으로 초등학교 고학년학생들에게 ‘일상’이라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춤을 통해 비언어적인 신체 감성을 표출함으로써 자기표현, 협동능력, 복합적인 문제해결능력 등 자신의 삶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다움의 삶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 자신의 동작을 벽에 붙여 다함께 공유하기

이 사업이 주말(토요일)에 실시되고 위치 또한 광산구에 있는 소촌동이라는 곳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장소인데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들이니 “프로그램이 토요일이고 무료이다 보니 결석률이 더러 있었는데 올해부터 참여자를 선정하면서 신청하는 동기를 물어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춤’과 ‘일상의 어떤 이야기를 춤으로 만들고 싶나요?’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하고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스스로 출석부에 체크를 하게 함으로써 책임감을 부여하였더니 높은 출석률을 보이고 프로그램의 가치도 상승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 자신의 동작을 벽에 붙여 다함께 공유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가 밝은 표정으로 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실 텐데 사업을 통해 바라는 점이 있는지 질문을 들여 보았다. “주말예술배움터라는 사업이름처럼 결과물에 집중되지 않고 초등학교 고학년학생들에게 일상의 이야기를 놀이로, 춤으로 만날 수 있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여 무한한 자기표현이 주는 즐거움으로 풍성한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기획자인 저와 강사들에게도 왕년에 춤췄던 그 시절로 돌아가 맘껏 표현하고 창작 및 공연하는 주말예술배움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질문의



▲ 서로의 가면을 쓰고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맞추어 춤을 추는 친구들

답변을 들으니 참여자들의 밝은 표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배움이라는 단어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확실히 두고 참여자들에게 배움을 강요했다면 ‘모두가 즐겁게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마지막 질문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에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렸다. “늘 그렇듯 낯설음과 함께 즐기고 웃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마도 문화예술교육은 나에게 ‘낯선 즐거움’ 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낯설음과 많이 즐기면서 진짜 나를 만나고 싶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답변을 들으면서 매번 많은 것을 배운다. 이 질문의 끝은 나만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주장을 갖는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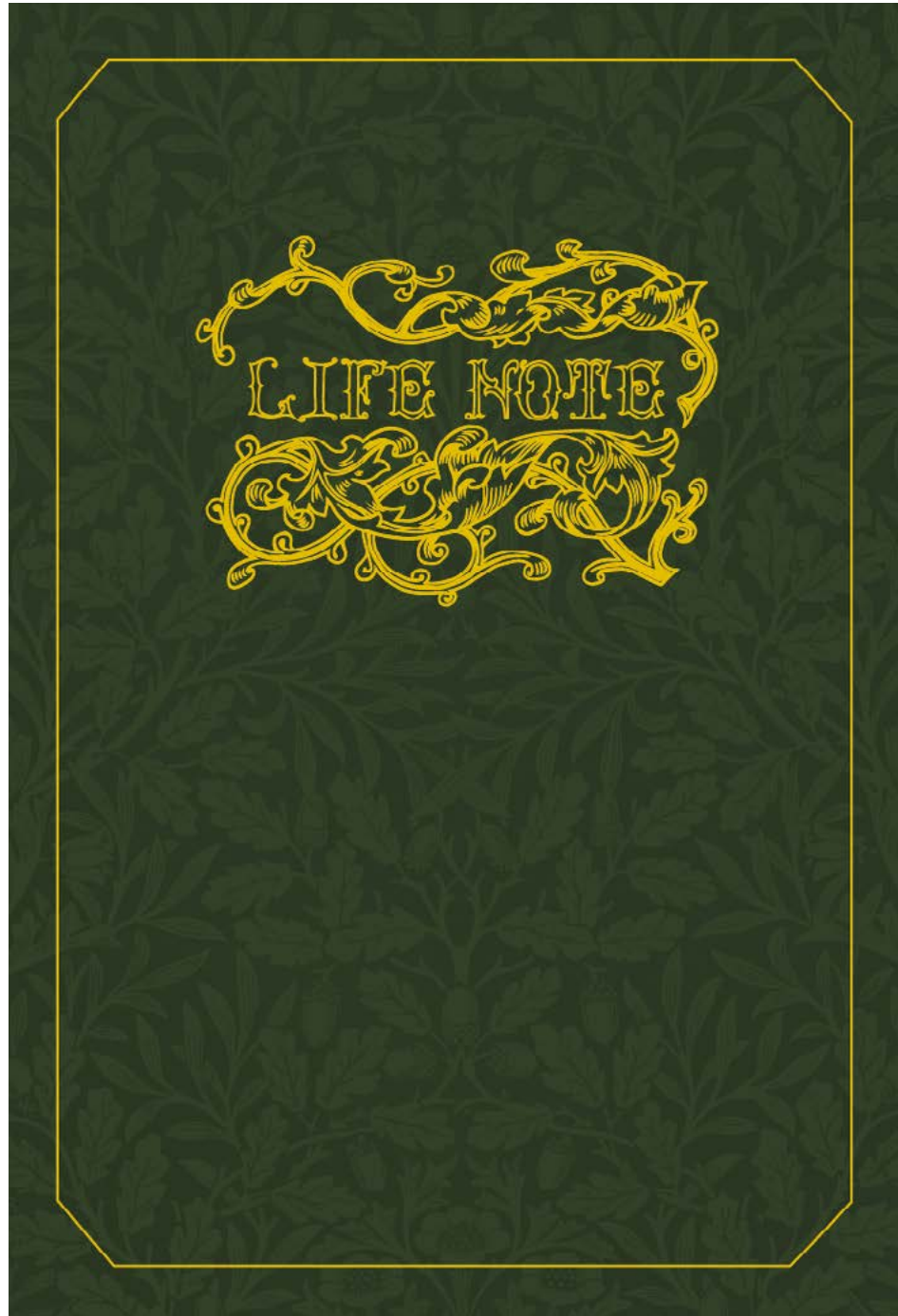
짧지만 긴 만남을 뒤로할 때 질문하나를 받았다. “춤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서 나온 답은 춤은 누군가에게는 예술의 수단이고, 누군가에게는 돈을 벌기위한 직업이고, 누군가에게는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행동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내는 매개체이다. 이보다 더 많은 답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거듭삼아 그들만의 춤에 대한 정의를 만들 수 있으리라 필자는 생각한다.

매주 토요일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즐거움과 열정 그리고 상상력을 재료삼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카페 **태이움직임교육연구소**(<http://cafe.daum.net/tae-e>)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나의 삶이 영글다

서로배움 <더 깊은 문화예술적 사유를 위한 라이프 노트 개발>



▲ '라이프 노트' 표지

“하루를 사유한 내용을 글로 쓸 수 있으십니까?”, “한권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사유하여 글로 쓸 수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누구나 한번 쯤 또는 꾸준히 일기를 쓰거나 작품을 감상하고 감상문을 써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루라는 시간과 한편의 작품 안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떠올리며 깊이 있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향을 ‘라이프 노트’가 제시해준다.

월곡동에 위치한 청년문화의 집에서 ‘라이프 노트’제작을 위한 회의가 한창이었다. 그곳은 진지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었다. 노트의 분량과 내용, 콘셉트와 디자인을 정할 때는 진지하면서도, 참고서적을 이야기 할 때는 서로가 작품을 추천해주면서 “어떤 책 읽어보셨어요?”, “이 시 읽어보셨어요?” 라는 질문이 오가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 노트를 접할 이들에게 다양한 내용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었다. 프로젝트 회의를 뒤로하고 ‘라이프 노트’ 제작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프로젝트 기획자와 그 시작의 배경과 의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이프 노트’제작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와 ‘라이프 노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이프 노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인문공부모임’에 참여하면서 꾸준히 한 권의 책을 모두 읽고 글을 쓰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좋은 책들을 모두 다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좋은 내용을 짧게라도 읽고 나의 하루 혹은 삶에 대해 사유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라이프 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라이프 노트’는 인문, 철학적 사유와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입니다. 노트의 왼쪽은 인문철학 서적의 내용이 오른쪽은 빈 페이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빈 페이지에 왼편에 있는 내용을 읽고 생각난 것이나 하루를 보내면서 사유한 내용들을 적어보는 노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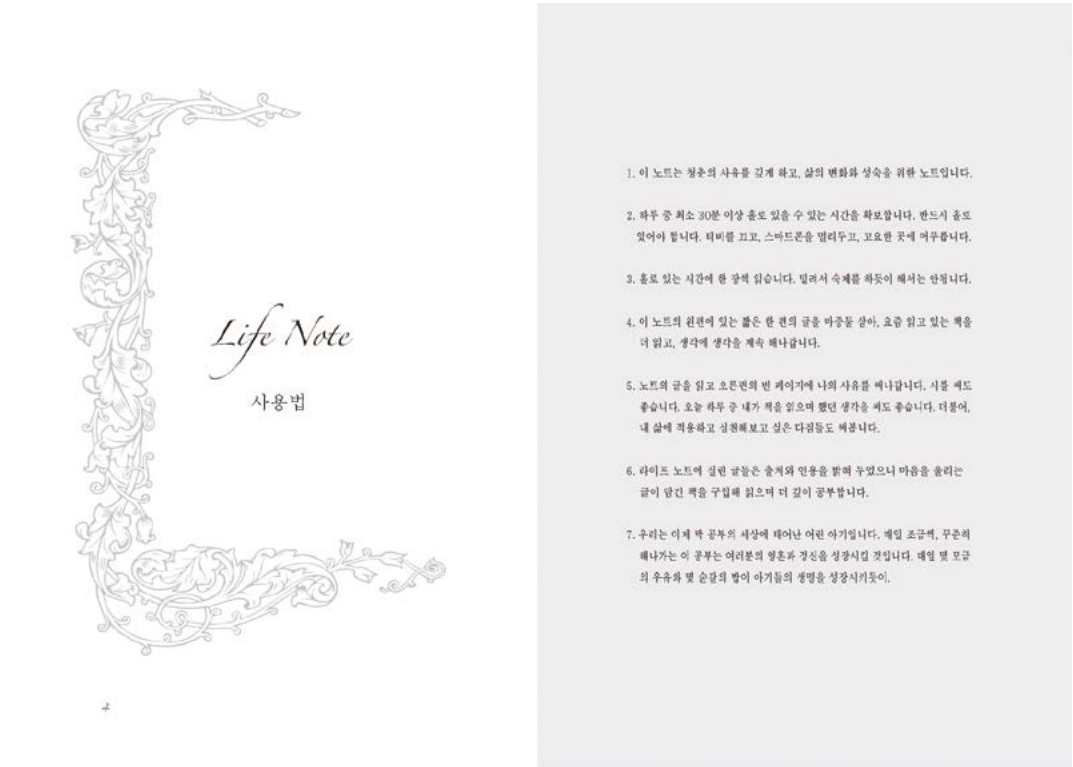
라이프 노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존에 제작된 ‘라이프 노트’에 내용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이전 노트와 매끄럽게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사전에 기존사용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과 좋았던 점을 파악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같은 경우 단순히 예쁘기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 연구 중입니다. 또한 기존의 내용은 인문철학도서의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끔 편하게 글을 쓰고 싶거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사용하기에 무거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적인 내용을 추가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서적과 콘텐츠들을 조사해보고 어떻게 배치할 것 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들이 모이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예기치못한기쁨’이라는 인문 공동체에서 공부를 함께 했던 선생님과 청년들이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함께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함께 해보게 되었습니다. ‘라이프 노트’제작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것은 단순히 흥미위주의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방법을 찾아보고 실행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트를 누가 접하고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자기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 나라는 인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라이프 노트의 새로운 버전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활용하여 삶과 작품을 깊이 있게 사유하고, 가끔씩 가볍게 삶을 전환하는 매개체로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라이프 노트' 여는 글



▲ '라이프 노트' 사용법

Q 이번 ‘라이프 노트 개발’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 정○지 선생님 | 라이프 노트라는 것에 무궁한 것들이 담길 수 있다는 걸 느꼈다. 내가 읽고 좋았던 글, 도움이 되었던 공부의 내용들을 이 프로젝트에 담을 수 있다는 게 뜻깊게 느껴졌다. 만들고자하는 내용의 디자인들을 고심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형상화된다는 것이 좋은 공부였다고 생각한다.

김○연 선생님 | 라이프 노트는 사람의 사유와 생각의 확장을 도와주는 매개가 될 수 있다. 깊은 사유가 삶에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사유가 확장되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유를 도울 것인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어떤 책을 고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그 과정을 나에게 대입해보고 라이프 노트에 대한 고민들이지만 그 고민들은 사실 내 사유와 생각, 내 삶에 대한 고민과 같다. 그래서 단순히 라이프 노트를 만드는 일이 아닌 내 삶과 함께 생각 해 볼 수 있어서 좋다.

# INTERVIEW

Q ‘라이프 노트’에 대해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 정○지 선생님 | 매일을 사유할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말해주고 싶다. 우리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사유할 내용들을 담으려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고 싶다.

김○연 선생님 | 하루에 한번은 오로지 삶과, 그 삶을 살아가는 나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잡생각을 비우거나 멍 때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 잠시뿐이다. 가라앉은 내 상태를 원위치로 데려올 수는 있어도 더 나은 삶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 잡생각을 내 생각으로 이어가야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런 질문은 사유를 통해 나오고 그 사유가 깊어지고 무르익는다면, 답 또한 나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사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복잡함과 막막함을 조금 덜어줄 것이 아마 라이프 노트가 아닐까 싶다.

라이프 노트의 두 번째 버전은 11월 말쯤 완성본이 나올 예정이다. 두 번째 라이프노트는 문화예술활동가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청년문화공부모임’에서 먼저 사용해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사용을 해보고 난 후, 사용자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고, 보완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다.



거점예술배움터 ‘예술교육살롱’ 특집

# 우리 부담 없이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아아볼까요?



▲ ‘커피 한 잔’ “우리 차 한 잔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모임의 이유가 무엇일까?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모임을 갖게 된다. 과거에는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근래에 들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모임 또한 일(업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임의 분위기와 내용도 점점 딱딱해지고 있다. 단순히 목적을 달성하고 모임을 끝내기 위해 정해진 틀에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끝낸다. 이제는 모임이 편하게 즐기는 자리가 아닌 모임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무거움이 있다. 지금 필요한건 부담 없는 편안한 모임이다.

광산구에 조금 특별한 모임을 찾아가 보았다. Salon de modoo(살롱 드 모두) 프로그램은 광산구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를 거점으로 ‘태이움직임교육연구소’가



▲ ‘밥&Drawing’ “밥 한 끼 해요, 우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區)안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예술가들과 문화예술활동가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살롱의 취지에 맞게 소통하고 차 한 잔하고 밥 한 끼하며 자연스럽게 관심 있는 것들을 교류하며 즐기는 장을 만들고 있다.

살롱은 18세기 프랑스 문화로 단순한 사교와 오락의 장이 아닌 성별과 신분 간의 벽을 깬 대화와 토론의 장이었으며 문학공간으로서 문화와 지성의 산실이자 중개소와 같은 역할을 했다. 자연스럽게 공간에 모여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시대의 이슈라던가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 중에 음악가가 있으면 연주도하고 화가가 있으면 그림도 그리고 삶속에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이 녹아 들어있는 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 김천용(야호센터교육실장)기획자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좋은 문화예술프로그램도 많지만 살롱과 같은 자연스러운 장이 없다는 아쉬움을 전하며 이번 프로그램이 그 기반을 만드는 실험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했다.

Salon de modoo(살롱 드 모두)는 8월부터 지난11월까지 4번의 예술교육살롱이 진행되었다. 각 회차는 ‘커피 한 잔’, ‘밥 & Drawing’, ‘Mood & Wood’, ‘쉽 & 숨’이라는 주제와 컨셉으로 구성되었다.

8월에 시작한 ‘커피 한 잔’은 차 한 잔 마시며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벼운 대화를 나눌 때 “커피 한 잔 할까요?”라는 질문을 한다. 프로그램의 첫 만남을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한다.

9월은 ‘밥 & Drawing’으로 함께 밥을 먹고 Drawing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경험하는 시간이다. “밥 한 번 먹을까요?” 지인들과 한 번씩 주고받는 대화이다.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면 식구(가족)가 된다. 편하게 서로가 함께하고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는 장을 마련한다.

10월은 ‘Mood & Wood’로 목공으로 무드등(Mood Light)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다. 함께 모이는 사람들 중에 목공예술가가 있다. 그들의 삶과 활동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장을 마련한다.





▲ '쉽&쉽' "어서와 작업장은 처음이지?"

11월에는 '쉽 &쉽'으로 삶의 공간에 들어가 그 안에서 쉬어간다. 모임의 일원 중 담양에 작업장이 있는 예술가가 있다. 거기에 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작업실에서 작품도 만들어보고 쉬어도 본다. 작업장이라는 개인적 공간을 공유하고 예술가의 개인적 공간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그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경험한다.

살롱에는 '마담'이 있다. 마담은 공간의 주인으로 주최자 역할이다. 살롱이라는 공간에서 대화의장이 펼쳐지도록 준비하고 공간의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모임을 자기 삶 속에서 즐기는 것으로 본인의 공간을 오픈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Salon de modoo에서는 신희홍(태이움직임교육연구소 대표) 그리고 김태희(아이엠(IM)) 두 기획자가 그 역할을 맡았다. 신희홍 기획자는 커피 한잔할 때, 밥엔드로잉할 때, 마담역할을 하며 모임을 자신의 삶 속에서 즐겨보니 활동에서 좋았던 부분들을 개인의 삶과 살롱 공간에 더함으로써 새로운 미적인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들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마담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간도 제공해주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자신의 색깔을 담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살롱을 진행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태희 기획자는 살롱의 공간을 구성하고 참여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드로잉, 목공, 예술가들의 작업장을 가보는

경험들이 항상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닌데 이러한 경험을 자연스럽게 모여서 하게 되니까 재미있었고 흥미도 생겼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 모임의 이야기를 참여자들과 함께 작은 책자로 만들어 예술교육살롱의 내용을 전하는 활동을 통해 꼭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을 통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기획자이자 살롱의 참여자로서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와 인상 깊은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다. 김천웅 기획자는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를 중요시 한다고 전하며 현재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많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문화예술 전공자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참여자는 영원히 참여자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참여자는 소비자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문화예술 또한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운 삶에서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닌 소비가 끝나면 활동도 수동적 참여에서 멈추게 될 수 있다. 이번 살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작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자발적으로 즐기고 다양한 활동을 한번 시도해보는 장을 마련해주는데 의미가 있다. 짧은 기간에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시도를 해봤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이나 업무를 일부로 찾아서 하지 않으면 예술가들이나 다양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런 살롱을 하면서 부담 없이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보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게 큰 포인트이다. 이런 활동이 계속 노출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연스럽게 함께한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게 된다.

신희홍 기획자는 이번 활동 중 11월 살롱의 '쉽 & 쉽' 주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살롱 프로그램에서 마담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가서 편하게 쉴 수 있었다. 활동 내용으로 작업장에서 숯대 만들기를 했는데 준비된 부품이 아닌 자연에서 나오는 자연물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았다

이번 활동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내 삶으로 이어져서이다. 내 방에 숯대를 두고 아침마다 보고 나온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파이팅"이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전체적인 활동 모두 인상 깊었지만 이번 활동이 현재 내 상황에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다. 각자의 삶 각자 전공과 경험이 다른데 이런 살롱이 다양한 삶을 모아주고 본인의 삶에 반영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번 Salon de modoo(살롱 드 모두) 프로그램이 단체와 기관이 협약해서 이루어지면서 보다 자유롭게 구성되어진 것 같다. 살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역인들, 예술인들 입장과 기관입장 양쪽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생각을 했다. 태이움직임교육연구소를 하면서 예술가이자 기획자를 하고 있기에 중간자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체계적인 틀에 벗어나 배움터이지만 교육과 배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 같다. 문화예술은 자연스러움 속에서 일상으로 받아들여진다. 교육과 배움이 아닌 부담 없이 모인 공간에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살롱이라는 공간의 기능이다. 이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그들의 다양한 삶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서로를 알고 얻어가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인 것 같다.

지난 5개월 동안 기획자 3인과 광산구의 예술가, 문화예술활동가(김지아, 노효숙, 박연숙, 박은덕, 배채은, 신은경, 정수지, 정인선, 정진영, 최재덕 등) 몇몇이 모여서 4번의 예술교육살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2월의 마지막 문화예술교육살롱은 'Merry Life&Merry Art'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를 맞아 그 동안 참여했던 예술가, 활동가들이 주변의 더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요소를 함께 나누며 삶 속에 스며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는 12월 21일(토) 오후 4시에 야호센터 3층에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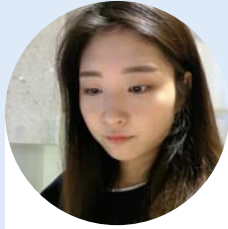


▲ 'Mood &Wood' 나무 무드등을 만들어 봅시다!



# 2019

## 기쁨의 현장을 누비다



통신원  
**김태희**

“문화예술과 교육이 함께하는 삶을 꿈꾸지만 현장의 경험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이번 통신원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광주문화재단 통신원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며 이를 생생히 글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통신원으로써의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 문득 어떠한 마음으로 올해 통신원에 지원했는지 궁금해져 지난 3월에 작성한 지원서를 열어보았다. 지원서를 읽으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느껴 직접 현장을 부딪혀보자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던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 문화예술교육을 시작하여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 현장부터 어린이들의 열정이 가득했던 현장, 국제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인이 함께했던 현장, 또 공감과 위로로 가득했던 현장까지. 지원서에 작성했던 포부처럼, 또 나의 기사의 마지막을 항상 함께하던 ‘문화예술은 기쁨’이라는 문구처럼 3월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기쁨의 현장을 누볐다.

문화예술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이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얻는 기쁨이나, 타인을 통해 얻는 기쁨,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껴지는 상대적인 기쁨과는 달리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정과 정서를 풍성하게 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절대적 행복감이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이러한 기쁨을 안다면 좋겠지만,

스스로 이를 안 다는 것은 힘들다. 그렇기에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신원 활동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다.

올해는 통신원 활동을 통해 그 어느때보다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으로 뒤덮인 삶을 살았다. 이번 기사를 마지막으로 글로써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모든 교육생들과 프로그램 기획자분들, 그리고 현장의 열정과 감정을 전하는 등 굉장히 유의미했던 통신원 활동을 마무리한다.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콘텐츠를 통해 감정적인 풍요를 누리고 현장과 독자들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 통신원 활동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과 콘텐츠를 통해 감정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란다.

COLLECT  
NEWS

# 우리의 움직임은 춤이 될 거야!

댄스컴퍼니 베베 '우리가족 몸 사용 설명서'

4월 20일 햇살이 가득한 토요일, '우리가족 몸 사용설명서'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작은도서관을 찾았다. 첫 입장부터 평범치 않았다.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은 마치 미션임파서블의 한 장면 같았다. 교실 전체에 줄이 묶여있어 안으로 들어가려면 온 몸을 사용하여 들어가야 했다. 선생님과 반갑게 첫 인사를 나누고 바로 온 몸을 이리저리 사용하여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말뿐만이 아닌 몸을 사용하니 첫 만남부터 친밀감이 올라가는 듯했다.

수업시간인 1시가 다가올수록 참가자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온통 줄로 엮여있는 교실을 보고 눈을 초롱초롱 빛냈고, 수업이 채 시작하기도 전 에너지를 발산하며 행복한 웃음소리를 만들어냈다.



▲ 에너지를 발산하는 몸놀이



▲ 몸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수강생들

몸이라는 신체를 매개로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몸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가족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 발레컬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인 '우리가족 몸 사용설명서'는 13주 동안 수업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는 발레컬 '우리가족 몸 사용 설명서'제작, 발표 및 피드백이다. 친하더라도 감정을 표출하는데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몸놀이 단계를 통해 서로 친해지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3주차까지는 몸놀이 단계로, 이번 주는 줄을 이용한 수업이 진행됐다. 교실 곳곳에 묶여있는 줄을 온 몸을 이용해 통과하기를 시작으로 몸 기록하기, 고무줄놀이 순으로 수업이 이어졌다. 온 몸을 이용해 육체적으로 신나게 놀았다가 차분히 자신의 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에너지를 고무줄놀이를 통해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학부모님들이 보호자가 아닌 참가자로서 함께한다는 것이다.

보통 아이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아이들만 활발히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학부모까지 모두 참가자가 되어 프로그램과 하나가 되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더욱 집중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제 참여 학부모님들은 어린들도 아이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방법을 알게 되어 좋았으며 앞으로도 가족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마음과 몸이 열렸다면 4주차부터 본격적으로 발레동작 익히기에 들어간다. 가족들만의 '우리가족 몸 사용 설명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기획자와 강사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몸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가고, 서로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며 가족 간의 유대가 더 끈끈해져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마지막 13주차가 끝난 후 참가자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벌써부터 그 변화가 기대된다.





▲ 어른 아이 구분 없이 함께 즐거워하는 수강생들

수업이 끝나고 ‘우리가족 몸 사용설명서’기획자와 강사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진은정 기획자와의 인터뷰다.

Q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너무 즐거웠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 소개 및 기획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는 것을 보고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현대화되는 사회에서 가족들이 각자 너무 바쁘다보니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술적인 것들을 접목시켜서 가족과의 화합적인 부분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었어요.

Q 프로그램 소개 중에 ‘발레컬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발레컬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발레컬이 조금 조금 생소하죠?(웃음). 발레컬은 발레와 뮤지컬의 합성어로 과거 국립발레단에서도 발레컬 공연을 올린 적이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유아 아이들에게 발레를 재밌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다가 ‘ 발레컬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되었어요.

Q 1~3주차 프로그램에 있는 ‘몸에 대한 반성문 쓰기’가 인상 깊었어요. 특별히 이 프로그램에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 과거 몸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돌아보고 내 자신 또는 더 나가가서는 가족들과 바른 몸을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어요. 과거 자기 몸을 너무 혹사하면서 지내지는 않았는지, 가사노동, 육아노동, 직장 및 학업 스트레스 등에서 각자의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내 몸 스스로를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어요. 13차시까지 쪽 몸에 대한 기록을 진행하면서 나중에는 몸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해보고자 해요.

다음으로는 오늘 수업을 즐겁게 이끌어주신 윤선복 선생님과과의 인터뷰다.

Q 3주차까지는 몸풀기로 진행되는데, 1주차에서는 비석치기, 2주차에는 고무줄놀이가 진행되었어요. 3주차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 다음 시간에는 작은 보자기들을 엮어 만든 큰 보자기를 이용해서 몸풀기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충분히 놀면서 하나의 음악을 연결해서 보자기를 다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고 놀다가 가위를 가지고 보자기 전부 다 자르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소한다는 기분으로요. 자른 것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가슴에 품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하면서 본인들의 움직임이 무용이 되는거죠. 이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그걸 전체로 연결해서 영상촬영도 해보려고 해요. 아직 결과는 보지 못했지만 다 끝나고 나서 돌아보면서 “ 우리도 모르고 했던 움직임이 결국엔 춤이 됐네, 예술이 됐네. 하나의 군무가 됐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요. 그래서 즉흥무용같이 연습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흐르게 지나가는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Q 혹시 일부러 비석치기, 고무줄놀이를 프로그램에 집어넣었나요?

“ 맞아요. 세대 간의 교감이나 공통점을 찾고, 엄마들은 너희 나이에 이런 놀이들을 했다는 것을 공유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놀고 즐겁게 했던 놀이인데 지금은 수업시간이 아니면 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 해보고,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과거의 노래를 지금 상황과 맞는 노래에 맞춰 고무줄놀이를 해보는 등의 시도를 하면서 현 시대와 과거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시도하게 되었어요.

Q 보통 아이들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시고 활동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이런걸 보면서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게 느껴지더라고요.

“ 실은 엄마들도 아이들 때문에 왔지만 와서 보니까 나도 좋았고, 저희 또한 이들을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하고 나니까 내가 더 좋았다라는 걸 느꼈으면 해요. 참여자들과 함께 저희 강사들도 행복도를 높일 수 있도록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 우리는 무조건 즐겁게 하자. 모두가 즐거운 거 하자.”라고 말했는데 지금으로서 이 목표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공통질문을 드렸다.

Q ‘모두가 즐겁게 즐겁게’라는 마인드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즐거움 외에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분들이 얻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진은정(기획자) | 앞서 이야기 했듯이, 요즘에 각자의 일을 하다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가족 간의 유대관계 같은 부분들이 이곳에 와서 더 가까워지고,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스킨십을 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바라봐주고, 응원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몸놀이를 통해 세대 간의 공감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러한 기대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해요.

윤선목(강사) | 요즘에 여기저기 현장을 돌아다니면 몸을 사려야 할 때 사리지 못하고 몸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청소년들이 이른 시기에 흡연을 시작한다거나 거친 말을 사용하는 것 처럼요. 저희 차시 중에 서약서를 쓰는 게 있어요. ‘나는 나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등 문구를 가족들과 함께 만들 거예요. 이러한 서약서를 만들으로써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몸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져갔으면 좋겠고, 후에 가족과 함께한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박희정(강사) | 요즘 아이들이 시간만 나면 컴퓨터, 핸드폰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몸으로 하는 걸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기회를 통해 이렇게 놀이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릴 적 밖에서 신나게 놀았던 것처럼 이 공간 자체가 아이들의 재미있는 놀이터가 되고 아이답게 해맑고 예쁜 추억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또, 4차시부터는 제가 발레를 가르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몸의 소중함과 바른 자세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Q 선생님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요? 혹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 진은정(기획자) | 문화예술교육은 그냥 ‘즐거움’ 같아요. 문화예술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깔깔 거리고 웃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과거엔 몸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 이러한 점이 교육현장에서 이뤄진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껴요. ‘문화예술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구나,’라고요. 그렇기에 엔도르핀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윤선목(강사) | 문화예술교육은 다 1등을 할 수 있고, 다 꼴등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1등이 꼴등이 될 수도 있고, 꼴등이 1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교육 중 문화예술교육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 ‘그냥 경험해보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놀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해요. 또한 사회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교육 해서 뭐해?”가 아니라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많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어요.

박희정(강사) | 문화예술의 경우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수업을 통해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요.

# 익숙한 동네를 여행하기

2019 문화이모작 전지적 동네 시점



▲ 아트스페이스 대강당에서 진행된 전지적 동네 시점 'READY 찬찬히 숨쉬기'

평소와 다른없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아침에 외출준비를 하고, 평소와 같은 버스를 타고, 평소와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내다본 창문 밖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항상 다니던 곳이 처음처럼 느껴지고, 항상 지나던 정류장들도 새롭게 느껴졌다. 매일같이 다니던 그 길이 마치 여행지가 된 기분이었다. 익숙하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동네가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에 있는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빠르게 변하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더 들어가 동네의 모습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익숙하게만 느껴지는 동네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새에 많은 변화를 거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우리의 동네를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고 여행자처럼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2019 문화이모작 <전지적 동네 시점>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다. 빠르게 돌아가는 우리 도시의 일상을 천천히 보고자 하는 이들을 만나보았다.



▲ '몸으로 상상하기' 수업 중인 신희홍 선생님과 참가자들

<전지적 동네 시점> 프로그램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동명동, 사직동, 월산동을 무대로 활동할 문화매개자를 양성하며 8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5주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무대로 동명동, 사직동, 월산동이 선정된 이유는 광주의 다섯 구마다 한 동씩 선정을 진행한 후, 그중에서 보다 복합적인 공간을 찾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첫 번째주에는 'READY 찬찬히 숨쉬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문화이모작과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이론적 기초 소양 강의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날은 광주문화재단 김윤기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역문화진흥원 유상진 부장의 '문화이모작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첫 번째 강의가, 광주도시재생공동체 센터 유미현 교육연구팀장의 '도시재생&공공성'이란 주제로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됐다. '문화이모작의 모든 것' 강의에서는 문화이모작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발전 과정, 사업 체계도, 운영 결과와 성과를 다루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 후 계속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연계성이 취약하다는 이모작의 취약점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이후 진행된 '도시재생&공공성' 강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을 돌아보며 진정 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벽화마을 외의 도시와 문화가 창조적으로 만나는 방법과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나는 방식을 실제 사례와 함께 나누었다.

둘째 날은 태이움직임교육연구소 신홍희 선생님의 '몸으로 상상하기' 수업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 수업은 전날의 이론강의가 아닌 멘토와 참가자들이 다함께 몸을 사용하여 서로와 동네에 대해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어색함을 깨는 가벼운 게임을 시작으로 앞으로 자신들이 여행하게 될 동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팀워크를 다졌다.



▲ 강의를 진행 중인 최서영 선생님과 송교성 선생님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다. 이날의 강의는 골목잡지 <사이다>를 발행하는 더페이퍼의 최서영 선생님의 '지연문화를 키우는 마을이야기' 강의와 부산 갯강이마을을 재탄생 시킨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의 송교성 선생님의 '갯강이마을과 문화적 도시재생' 강의가 진행됐다.



▲ '몸으로 상상하기' 수업 중인 신희홍 선생님과 참가자들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강의를 들으며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다들 어떠한 계기로 이번 프로그램을 함께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사직동에서 전지적 동네 시점을 진행하게 된 권준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임곡동에서 마을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학생들과 꿈다락으로 임곡동에 들어갔고, 올해는 지역특성화사업 동네배움터에서 임곡동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 번 들어가서 마을을 보니 마을 어른들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해보고 싶어졌어요. 단기로 마을에 1년 들어가서 기능적인 것을 가르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는데 동네가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주광역시인 반면 생태학적으로는 시골인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닌 특징이 있더라고요. 높은 건물도 없고 마을 어른들과 소통할 소통공간도 없는, 동인구의 50%이상이 65세 이상인 이곳을 조금 더 생기 있고 발랄하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마을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전지적 동네 시점 공고가 떴고, 여기를 오면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프로그램에는 세 개의 동네가 있었는데 그 중 사직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사직동에는 김종오 거리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통기타거리도 있어요. 지금 마을 사업으로 들어가서 제일 기본으로 갖고있는게 음악밴드 활동인데, ‘음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마을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가 계속 고민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사직동이 저와 맞다고 생각이 들어 선택하게 되었어요.

Q 이틀에 걸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한 소감은 어떤가요?

“ 어제 진흥원에서 오신 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로 사람들을 생기 있게 하는 게 하고, 점점 일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가 중요해 지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진흥원에서 오신 부장님이 세세하게 역사적인 맥락까지 짚어가면서 이야기해주어 현재시점에서 내가 이 마을사람들, 지역주민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얻었어요. 오늘 오전에 했던 활동들은 심리학을 전공한 제가 자주 써먹는 활동들이에요. 근데 오전에 한 활동들은 조금씩 변형된 것들이 있어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구나’ 라는 또 다른 팁도 얻었어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임과 동시에 잘 만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Q 5주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얻어가고자 하나요?

“ 결국은 똑같아요. 내가 지금 들어가는 마을의 주민들과 무엇을 할 것이냐가 1번이고, 2번은 그 무엇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3번은 얼마나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어느 만큼 서포터를 하고 빠질 것인가 예요. 5주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 이 세가지가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걸 가져가고 싶어요.

‘READY 찬찬히 숨쉬기’에서는 왜 전지적 동네 시점을 해야 하는지, 문화예술이 어떠한 동네를 바꾸는 힘을 가졌는지에 대해 알아봄과 동시에 멘토와 참가자들이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참가자들은 익숙한 현장에서 낯설과 새로움을 발견할 여행자가 되어 동네를 찬찬히 바라보고 달릴 준비가 되었다. 익숙한 곳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항상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나의 도시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익숙하여 그냥 지나쳤던 동네를 천천히 여행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하면 어느새 나의 동네가 곧 새로운 여행지가 되어있을 것이다.

상상력을 지어보자!

##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간

2019 어린이 목수축제

똥똥똥. 마치 “저 여기 있어요!”라고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듯 우렁찬 망치질 소리가 시청 밖으로 힘차게 울려 퍼졌다. 힘찬 망치소리는 혹여 장소를 못 찾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던 내게 비웃음을 날리듯 나를 어린이 목수들의 아지트로 이끌었다. 그리고 발걸음이 도착한 그 곳엔 열정의 땀방울과 해맑은 미소를 가득 머금은 70여 명의 어린 목수들이 있었다.

70여 명의 어린 목수들의 정체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진행되는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노작형 예술캠프 ‘어린이 목수축제’의 참가자들이다. 올해 ‘어린이 목수축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학교’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 어린이들은 목수가 되기 전 9월 28일(토)



# INTERVIEW



에 예술가들과 만나 어떤 공간을 만들지 아이디어를 나누는 네트워크 활동을 거쳐 10월 4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의 상상이 담긴 미래의 학교공간을 짓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이틀째인 10월 5일(토) 저녁에는 패밀리 가든 파티 시간을 가지며 각 팀의 작품설명과 퀴즈 타임 및 다과 시간을 갖는다.

현장을 방문한 날은 프로그램의 첫째날로, 어린 목수들은 가장 중요한 건물의 뼈대를 만들고 있었다. 팀 별로 나뉘어 머리에는 헬멧을 쓰고 한 손엔 망치를 든 아이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해 혹여 아이들의 집중을 흐트러트릴까 옆에서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참가 어린이들은 총 6개의 팀으로 나뉘어 작업을 진행했는데, 6개의 학교들은 각 팀만의 개성을 듬뿍 담고 있었다.

“1m 82cm!”

“이걸 네모나게 만들자!”

“누가 연필 좀 갖다 줘!”

“이건 이렇게 해보는게 어때?”



▲ 어린이 목수축제 현장

줄자를 가지고 목각의 길이를 재고, 직접 못질을 하고, 건물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서로 나누는 소리가 현장을 가득 매웠다. 비록 어린 목수들의 외관은 어린이 일지 인정, 작업에 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진지한 전문 목수였다. 못과 망치, 톱 등이 가득해 혹여 위험하지는 않을까, 금세 질려 하지는 않을까, 의견이 충돌하여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와 같은 걱정거리는 그저 기우였다는 것을 아이들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당기는 힘을 더 올려!

각도는 45도로 맞추고!

자세는 바르게!”



▲ 어린이 목수축제 현장



▲ 각 팀별로 주제에 맞춰 학교를 만들고 있는 모습

이러한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데에는 예술가 선생님들의 공이 컸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문화예술기획자 정민룡(북구문화의 집), 백민(놀이패신명), 이세현(작가) 3인의 기획단과 7인의 지역 예술가 신양호, 박문중, 이재문, 백상옥, 박성완, 이재호, 배수민 선생님이 함께했다. 특히 지역예술가 선생님들은 각자 한 팀씩 맡아 아이들을 지도했는데, 아이들의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보조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지도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작품 만들기에 임하던 아이들이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시간, 아이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 줄 간식시간을 가졌다. 똥땅거리던 소리가 유일하게 잠잠해진 간식시간을 틈타 하늘색팀과 노란색팀의 예술가 선생님들과 잠깐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 백상옥 작가님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작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앞서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조각작업을 하고 있는 백상옥 작가입니다.

Q 이번에 처음 예술가로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 네, 재작년에 강사로 참여했었고, 올해 처음 예술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오늘 작업을 지켜보니 다른 팀들은 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하늘색팀은 버스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혹시 버스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 컨셉은 다양한 기능이 있는 슈퍼버스고, 이름은 ‘신기한 슈퍼버스’입니다. 오늘은 버스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사각형 틀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함께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를 선택한 이유는 교실을 주제로 잡으니까 ‘한 교실’과 같이 이름을 지어서 뭔가 틀에 박힌 결과물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등학교시, 또는 어딘가를 갈 때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버스의 특징에서 컨셉을 창안해서 교실이 이동하면서 어디든지 가서 도착한 곳이 교실이 될 수 있고,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모티브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오늘 첫 날 아이들과 같이 실질적인 목수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어떠셨나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생각보다 저희 초 학생들이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선생님들의 지도를 잘

따라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점은 잘 만들고 못 만들고를 떠나 무조건 안전하게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결과물은 못 나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쿨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무를 직접 만지고, 망치질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작가님들이 생각하시는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저는 문화예술교육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문화예술교육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림에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국, 영, 수와 같은 교과목이 아닌 이상 특히나 이런 문화 예술교육의 경우 시간 외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성적인 측면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발달할 수 있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수업을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커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야 그 다음 세대에도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박상완 작가님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작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앞서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박상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망치질을 하고 있다 보니 건축과 나왔다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조소전공도 아니고 그림 그리는 작가입니다.



▲ 각 팀별로 주제에 맞춰 학교를 만들고 있는 모습

Q 여러 해에 거쳐 프로그램에 참여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해 갈수록 축제에 참여하는 느낌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 네, 저는 올해로 3년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매해 주제가 달라 새롭게 느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회의를 거치면서 2층 오두막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교실을 주제로 외관과 기둥을 세우고 있어요. 구조물을 만들려면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Q 다른 팀의 경우 건물을 짓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노랑팀의 경우 그림을 그리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 저희 팀의 주제는 ‘이상한 미술실’로 잡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망치질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림도 함께 그리면서 놀자!’라는 컨셉을 잡아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 서로 힘을 모아 작업을 하는 아이들

Q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때마다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 생각보다 어른들이 계획하고 떠올리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동적이고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계획한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적극성에 오히려 계획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를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의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들도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또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아이들을  
놀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활동을 하지만 이  
활동이 일로 느껴지지 않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요. 올해의 방법은  
주제에 맞춰 물감을 꺼내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했어요.

Q 마지막으로 작가님들이 생각하시는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엇그제 봤던 기사가 떠오르네요. 아이들 학습

성취도에 관한 통계조사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학습시간이 많은 친구들보다 문화예술을 접해서  
다른 사고를 했던 친구들이 학업성취도와  
학습효율이 높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학습시간은  
상대적으로 중간단계의 친구들보다 적은 반면,  
문화예술분야쪽으로 많이 투자하고 접한 친구들이  
학습시간이 적으면서도 성취도도 높았고, 사고도  
다양하게 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에 공감했어요.  
문화예술을 많이 접한 친구들이 더 다양한 사고와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문화예술교육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날엔 학교의 기틀을 작업하던 아이들이 마지막 날  
완성된 학교를 보면 얼마나 기뻐할지 눈에 섰었다.  
어린이 목수가 되어 직접 망치질을 하고, 길이를 재고,  
톱질을 하며 흘린 땀방울은 아이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자신들의 상상을 직접  
현실로 구현해 냈다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아이들에게 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내년에는 어떠한  
상상력과 열정을 가진 어린 목수들이 찾아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 새로운 나의 의미를 찾는 시간

지영씨의 인생부록



지난 10월, 광주문화재단에 ‘지영씨의 인생부록’을 함께할 지영씨를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영씨의 인생부록’은 3-40대 새로운 나의 의미를 찾아가는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출산과 육아로 생애 변곡점을 맞아,  
새로운 나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총 6번의 만남을 계획했다. 그렇게 광주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지영씨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새로운 나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광주문화재단으로 모였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만남의 장소는 한 해의 마무리가 다가옴을 알리듯 연말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따뜻한 빛의 조명들과 소담하고 정갈히 담겨있는





▲ 연대기 작성법에 대해 설명 중인 아봉, 임아영 선생님



▲ 이력서를 작성하기 전,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



▲ 이력서를 작성 중인 지영씨들

간식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포근한 느낌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강연듣기, 영화보기, 이력서쓰기, 수다떨기, 내 마음 들여다보기 등으로 채워졌던 만남은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주는 프로그램의 마지막 주로, 이력서를 작성하는 시간이었다. 이력서를 작성하기 전, 강사 아봉의 리드로 모두가 동그랗게 둘러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내 인생 최고의 스펙은 무엇인지, 내 인생의 귀인과 악인은 누구인지, 나만 아는 나의 이력은 무엇인지 등 그동안 가슴 깊이 품고 있던 지영씨들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영씨들의 모습에 나조차도 감정적으로

쥘어지는 기분이었다.

서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 후 본격적인 이력서 작성에 들어갔다. 여기서의 이력서는 보통의 이력서와는 조금은 달랐는데, 본인의 학력과 경력 등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연대기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연대기에는 자기 연민은 빼고 생각나는 지금까지의 일과 사건을 작성함과 동시에 스스로 연대기의 제목을 정한 후 그 뒷장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써내려 갔다.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학부시절 올 A+ 성적을 받아 전액장학금을 받고, 8년동안 쇼핑몰을 운영하고, 10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도 하고, 대학교 언어교육원에 한국어강좌를 처음으로 개설하기도 했던 지영씨들의 삶이 고스란히 연대기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갔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만남의 날. 여전히 따뜻한 분위기의 장소가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이 정이 들었던 지영씨들은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사실에 등장부터 아쉬움이 가득했다. 마지막 만남에서는 6번의 만남을 마무리하는 시상식과 방구석토크가 이어졌다. 한 명 한 명에게



▲ 연대기 작성법에 대해 설명 중인 아봉, 임아영 선생님

맞춰진 상들과 선물에서 프로그램 담당자님들과 참가자분들이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진심으로 생각하는지가 느껴졌다. 이후 편하게 자리에 앉아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느꼈던 점들을 나누고, 편지를 읽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의 선에 위치한 서로를 응원하기도 하며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기도 했다. ‘나’를 찾기 위해 이곳에 모여 끝에는 ‘우리’가 된 마지막의 시간이 지영씨들에게는 계속하여 따뜻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마지막이 너무도 아쉬워 쉽게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지영씨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 속에 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졌다. 그들에게 있어 이번 프로그램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말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참여자 선영님 인터뷰

Q 처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계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 포스터가 광주맘카페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참가하게 되었어요.

Q 6번의 강연이 끝났는데 끝난 소감은 어떤가요?

“ 회차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들도 있지만 적당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었던 거 같아요.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시간이 갈수록 스스럼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주고, 저도 100%는 아니었지만 처음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나를 드러낸다는 게 별거 아닌 듯 해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은데,

만난 사람들이 코드가 잘 맞아서도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Q 앞으로도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져 나갈 건데, 이 글을 보고도 주저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프로그램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주저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 한동안 아이를 키우면 거기에 빠져 밖으로 나올 생각을 잘 못 해요. 용기도 없고, 타인을 대할 때 자신감도 없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 진짜 못하겠는데, 그래도 해볼까? 해볼까? 해볼까?” 하고 한 발자국만 나오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가자” 하고 손잡고 가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고 어떤 계기가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이런 용기는 스스로 해야 돼요. 지금은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한 번 해볼까?” 이런 생각 꼭 하셔서 꼭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엄마, 아내, 며느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가 자기가 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게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말해주고 싶어요.

Q 마지막 질문인데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일단 여기와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남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겠다. 그런데 본인들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남의 이야기 듣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또 그들이 필요하다면 내가 티가 나지 않더라도 도움을 많이 주고, 여러 사람이 그러다보면 세상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참여자 지영님 인터뷰

Q 처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계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일단, 이 프로그램에 조건이 있잖아요. 3-40대, 임신, 출산, 뭐 이런 거 주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은 삶이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나’ 하는 갈증이 되게 심했던 거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네이버에서 우연히 프로그램을 보게 되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Q 처음과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일단 ‘더 나은 삶’이라는 갈증이 제 자신과의 대화와 다른 지영씨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저한테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악몽 같았어요.

무조건 버텨야 한다는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 찼었는데 3주동안 함께 하면서 일상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짜 나만의 행복한 것들을 찾게 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내 최고의 스펙이 지금의 내 이력서를 증명하는 순간이 되었고, 인생부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길을 배운 것 같아요.

Q 6주간의 만남이 끝났고 앞으로 다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생긴 목표라던가, 아니면 하고 싶어진 것들이나 하는 게 있을까요?

“ 일단 주변 사람들이 저 보고 요즘 되게 부지런해졌대요. 항상 마음 속으로 해볼까 했던 것들을 용기내서 문화센터 댄스레슨을 끊었어요. 그런 외적인 변화가 있었고, 저한테 가장 좋았던 건, 내적인 아름다움. 내적으로 아름다워지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이 프로젝트가 저한테는 제 인생의 프로젝트가 됐던 거 같아요.

Q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프로그램 지영씨의 인생부록이 지영씨에게 있어 어떤 의미였는지를 마지막으로 여쭙보고 싶어요.

“ 진짜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지금 서른 두 살 이긴 하지만 거의 5-60대 일어날 법한 일들을 겪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더 많이 또 배울 수 있었던 삶의 과정이었던 거 같아요. 이런 과정을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지영씨의 인생부록>이 정말 제 인생의 부록 같은 존재가 되었던 거 같아요.



▲ 이력서 작성 후 자신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 마지막 만남의 아쉬움을 나누고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서로

그저 프로그램의 마지막주에 현장을 찾아 두 번의 만남을 가진 것이 다였다. 그러나 지영씨들의 이야기와 프로그램을 향한 애정은 내 안에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채웠다. 누군가의 딸, 엄마, 아내로 살아온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 했던 동시에 이 자리에 나와 자신을 드러낸 그들의 모습이 알 수 없는 정함을 느끼게 했다. 3주간 진행된 6번의 만남이 지영씨들의 삶에 있어 지영씨들이 갇히 되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지금까지의 수식어가 아닌 말 그대로 나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새로운 나의 의미'를 찾기 위해 모인 지영씨들이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 이 터닝포인트가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오랫동안 따스하게 함께하기를 바란다.



# 소모되는 기쁨



통신원  
마민주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통신원으로서 1년이 끝났다. 통신원 기사를 쓰는 것이 한 달을 세는 단위가 되면서 나는 올해 마지막 달까지 10건의 기사를 냈다. 그 과정이 마냥 쉬웠던 건 아니었다. 아니, 나에게서는 유난히 어려웠다.

내가 가진 습관 중 하나는 하루가 끝나면 내가 얼마나 소모되었는지 가늠하는 것이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어른이 되면서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일을 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어떤 일을 하면 충전되었다. 그렇게 소모되는 과정을 살피면서 분류하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하는 것과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것.

그중 통신원으로서 활동하며 글을 쓰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식견을 높이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자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통신원 모집 공고가 나길 애타게 기다렸다. 그러나 정작 통신원이 되어보니 두려운 일투성이었다.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내가 낯선 사람이 되어 그들이 날 경계하는 것. 모두 내가 싫어하고 못하는 것들, 나를 소모시키는 것들이었다.

기획회의를 통해 선발된 곳을 중심으로 광주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이 벌어지는 현장을 취재하고 인터뷰한 걸 글로 써내야 하는 게 통신원의 일이다. 글을 쓰는 건 결과물이니까 중요하지만, 현장에 참여하고 취재하는 것은 결과물을 내기 위한 과정이니까 마찬가지로

중요하단 건 당연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게 낯가림이 심한 나에게서는 취재 한 번에 하루의 에너지가 다 소모될 만큼 두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통신원 활동을 하는 초반에는 애를 많이 먹었다. 사실 끝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두려운 게 많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많이 소모되었음에도 나는 내년에 올라올 통신원 모집 공고를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모되는 것이 어찌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이 된다는 것을 통신원 활동을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두 번 말을 걸어보다 겨우 다짐하던 내가 어느 샌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느낀 점을 공유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취재를 하면서 낯선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거나 아니면 투명한 존재가 되어 관찰로만 끝내야 하는 상황까지 구별할 수 있게 되면서 소모된 내가 기특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있던 기획자분들과 선생님들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통신원 담당자 선생님이 이끌어주셨다. 또 어찌면 이게 통신원 활동 중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긴 변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앞서 말했듯 지금도 두려운 게 많다. 그러나 통신원 활동을 하면서 나는 많이 변했다. 자발적으로 소모되는 것의 기쁨을 알았고, 소모된 나를 칭찬하는 법을 배웠다. 통신원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낯선 사람에게 전보다 어색하지 않게 먼저 말을 걸 수 있고, 좋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권유해볼 수 있게 됐다. 10건의 기사를 내면서 나는 전보다 발전되었음을 실감하며, 통신원 활동에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COLLECT  
NEWS

# 우리가 모이면 예술꽃이 핀다는 것을 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제 10기 통신원



▲ 제10기 통신원들과 센터 관계자들

광주의 문화예술교육현장을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줄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통신원들이 선발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27일, 아트스페이스 2층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서 제 10기 통신원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면서 선발된 통신원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통신원제란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허브사이트와 뉴스레터가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 정보의 중심적인 홍보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신원제의 운영목적에 맞게 선발된 11명의 통신원들은 위촉식을 통해 명의 위촉장을 수여받고, 통신원의 실무와 활동 방안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영순 단장의 글쓰기 수업과 정혜영 팀장의 센터 및 지원사업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통신원들에게는 광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업을 이해하고 기사를 쓰는 데 유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담당자와 통신원들의 기획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매달 이뤄지는 기획회의를 통해서 통신원들은 뉴스레터의 콘텐츠 구성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원들은 각자 진행할 사업들을 선택한 뒤 취재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처음 하는 기획회의인 만큼 회의실에는 낯선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통신원들은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음을 실감하며, 모두 첫 취재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각 사업 담당자들과 연락을 진행하며 취재와 관련하여 협의를 나누고, 실제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참여하여 취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1년 동안 통신원들은 기획회의를 바탕으로 매 달 광주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을 취재하고 그 결과물인 기사나 영상물을 뉴스레터에 신게 됩니다. 이는 센터 홈페이지에 실릴 뿐만 아니라 구독자 2천여 명에게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발송됩니다.

통신원들은 광주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력·프로그램·정책·이슈 등을 집적함으로써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트렌드와 방향을 인지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광주 지역 문화예술교육활동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술꽃이 피어나는 현장일 것입니다. 저희 통신원은 앞으로 여러분의 예술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이 광주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예술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촉장을 받는 통신원



▲ 글쓰기 수업을 받는 통신원들





▲ 기획회의를 하는 통신원들

앞서 말했듯, 통신원들의 기사와 영상물은 월간 온라인 뉴스레터로 제작됩니다. 이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온라인 뉴스레터 <울림> 게시물의 왼쪽 하단에 이메일을 입력하여 정기 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매달 통신원들의 기사들과 재단의 주요 사업, 빛고를 아트스페이스의 전시 공연내용, 유관기관 및 단체, 지역 활동가들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소식을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가랑비에 젖은 꽃망울들이 봄을 알리듯, 통신원들의 열정이 담긴 취재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이 사람들의 굳은 삶에 스며들어 문화예술 향유의 가치를 꽃피우길 바랍니다.

## 아주 어린 사람들의 숲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 갤러리 <GO!GO! 숲 속으로>

“어린이는 손도 작고 발도 작지만, 생각까지 작지는 않아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림책 작가 베아트리체 알레마냐의 말입니다. 그녀의 책에는 반복되는 서사 구조가 존재합니다. 남들과 다르거나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이들이 결국엔 속할 곳을 찾고, 그곳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 <정말 멋진 선물이야>에서 잘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믿는 주인공 에디트는 엄마의 생일 선물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여정 끝에 자연스럽게 자아 존중감을 채우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 남을 배려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도서관에 가서 펼치는 책이 동화가 아니라, 수학 문제집일 때 아이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지난 5월 넷째 주에는 영유아와 어린이 대상을 주제로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2019.05.20.~25) 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은 행사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흐름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 해외 전문가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덕분에 최근 들어 유아기의 다양한 예술적 경험과 체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집중이 쏟아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조명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선 지난 5월부터 어린이미술관에서 온 가족이 숲 속 나무, 동물, 곤충을 작품으로 만나보고 감상할 수 있는 ‘GO! GO! 숲 속으로’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숲에 사는 다양한 동식물, 곤충을 소재로 그림책, 미디어아트, 회화 등 다양한 미술작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생태화가 이태수,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환경미술가 조성숙, 어린이 전문 작가 조성호 등 4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태수 생태화가는 그림책 <우리끼리 가자>에 등장하는 숲에 사는 동물, 식물 곤충 등의 이미지를 세밀하고 친근감 있게 묘사하였습니다. 연필선만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을 입혀 생동감 있는 아기 토끼와 숲 속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는 미디어 작품 <나비>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빛의 세계를 경험하며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나비를 오감을 통해 보고 들으면서 정신과 감각이 확장되어지며, 관람객은 아름다운 나비 떼들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어 즐겁고 행복한 빛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다는 조성숙 환경미술가는 꽃, 풀, 새, 바람, 땅 등 자연을 구성하는 생명을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회화작품에 녹아내렸습니다. 작가의 작품에는 자연 그대로 진실한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연의 순수를 추구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조성호 어린이 전문작가는 대자연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줍니다. 새, 고래 등 동물이 이동하는 모습을 고도에서 바라보고 상상을 결합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대자연의 모습을 순간의 시선으로 포착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나타내며, 그들의 자유로움을 그려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작가의 작품들이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쉽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작가들의 작품에 나오는 여러 동물과 식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술활동을 진행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 숲 속

생명에 대해 인식하게 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어린 시절 숲에서 놓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 ‘GO! GO! 어린이 숲 갤러리’전은 오늘날 어린이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그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숲 속 동물과 식물을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방식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장시키고 유아에게 주체적인 경험을 가능케 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숲을 주제로 만들어진 다양한 체험 전시를 경험하면서 더불어 살아감과 남을 이해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문화예술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 숲 갤러리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





# 세상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림책에 풍덩!〉 원화전시작가 이지현 초청강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넓은 광장에 낡은 자물쇠로 채워진 문이 덩그러니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발견하지 못한 건지 발견했으나 관심을 두지 않는 건지 그저 문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문에 한 아이, 단 한 아이만이 문을 쳐다봅니다. 문에게 다가가 문을 열어보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자물쇠의 구멍을 눈여겨보니 거미줄이 쳐져 있어 스산한 느낌을 줍니다. 아마 이 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잊혀져있는 것 같습니다. 문을 바라보는 아이는 문 뒤편의 세계를 궁금해 합니다. 가늠도 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생각합니다.



이지현 작가의 책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된 그림책 원화전시 '2019 어린이책놀이터 너나들이 〈그림책에 풍-덩!〉'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림책에 풍-덩!〉 전시는 세상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림책 『수영장』의 이지현 작가와 나이·성별·장애 등에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수박 수영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책 『수박 수영장』 안녕달 작가가 함께 '평화'를 주제로 5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시연계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먼저 '손안에 작은 바다'는 그림책 『할머니의 여름휴가』의 스토리텔링을 그리며, 바다를 담은 소품을 만든 뒤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조물조물~수박 비누에 풍덩!' 프로그램은 『수박 수영장』의 스토리텔링을 그리며, 수박 클레이 비누를 만들어 나만의 수박 수영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8월 10일,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이지현 작가와 특별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강연은 작가에게 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내용을 토론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 응답한 뒤, ‘나의 비치백 만들기’ 체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가는 책을 쓰게 된 계기나 영감을 얻게 된 순간, 책을 쓰던 과정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작가는 조카와 함께 다녀온 워터파크에서 영감을 얻어 『수영장』을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순간조차 놓치지 않고 영감으로 받아들인 작가의 관찰력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은 소란스러운 수면 위와 상반되는 수면 아래의 고요함을 담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소년이 다이빙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물놀이 속에서 소년은 가만히 서서 수영장의 한 곳을 응시합니다. 이내 물에 발을 담그는 소년의 표정은 차분합니다. 왁자지껄 소란스러운 사람들 모습 속에서 소년은 홀로 결연하게 다이빙을 합니다. 물속은 물 밖과 대조적으로



고요합니다. 그림책에서는 흑백의 사람들의 모습과 원색의 소년의 모습으로 대조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소년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가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작가님은 책의 마지막 장에 “세상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은 사람들에게...”라는 말을 남깁니다. 수영을 끝낸 소년과 소녀가 수영장을 나옵니다. 그들은 불쾌한 사람들의 표정과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만족스런 표정의 얼굴입니다. 마치, 자유를 만끽한 듯 행복한 모습입니다.

또 작가님의 다른 책인 『문』은 여행을 하다가 광장의 낡은 문을 발견하면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광장에서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해 열쇠구멍에 거미줄이 쳐진 문의 모습은 어딘가 이질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문』은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낯선 이방인에게 따뜻하게 다가서는 여러 동물들의 모습에 마음의 문을 여는 소년을 그립니다. 연필과 색연필로 묘사된 섬세한 그림뿐만 아니라 흑백과 색을 이용하여 소년의 마음을 짚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망설임 끝에 사람들로 비좁은 “수영장”에 다이빙 했던 소년처럼 『문』에서는 “문”을 열고 들어가 미지의 세계와 조우하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책을 읽은 뒤 아이들은 자신의 소감을 말합니다. “소년이 대단해요!”, “수영장은 진짜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나 한 아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그 문을 열 수 있나요?” 아마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문 너머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소년이 문에서 나오며 열쇠를 꽂아뒀기 때문입니다. 선뜻 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그 문을 연다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세계가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과 의지대로 그 무한한 공간을 다녀오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바우야 그리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PaTI x 바우하우스 협연 교육프로그램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휴머니티(Humanity)’를 주제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디자인센터 전시관에서 2019년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55일 간 진행됩니다. 특히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리는 본 전시는 <다음 세대에게 주는 선물>을 주제로 올해 100주년을 맞은 바우하우스 대학교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특히 많은 작가들이 그래픽 디자인, 오브제, 텍스타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바우하우스가 현시대에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였습니다.

전시기간동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 교육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그중 PaTI X 독일 바우하우스대학교 협업 교육 프로그램이 단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주 금·토요일에 광주비엔날레관 거시기홀에서 진행되는 ‘바우야 그리자!(Let’s draw with Baul)’는 7~9 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기초 디자인 워크숍입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종이크레프트 직조 프로그램으로, 협동과 창작을 통해 디자인에 대해 접하며 공존과 상생을 의미하는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인 휴머니티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독일 바우하우스 대학교의 마르쿠스 바이스베크 교수를 중심으로 바우하우스 대학이 지닌 공동체적 특징과 공예적 성격에 기반을 두고, 각 참여자가 그린 여러 무늬를 조합해 하나의 거대한 종이 카펫을 직조합니다. 기본 도형과 한글의 조형을 연계해 한글 자모를 원, 세모, 네모로 바꾸어보며 글자와 형태를 오가는 조형 원리를 체험합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만드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단체 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란 종이 위에 도형 틀을 올려놓고 파스텔과 손을 이용하여 틀을 채우다가 이내 페인트와 롤러를 이용하여 틀을 채웠습니다. 형형색색의 도형과 조형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채워집니다. 긴 종이를 다 채운 아이들은 함께 종이를 들어 교실 한 쪽에 옮기고, 새로운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칠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종이 카펫을 만들 종이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칸을 칠하는 아이들의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놀라웁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한 칸에 한 색깔만 칠하라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교수의 지도대로 색을 채웁니다. 그러던 와중, 한 아이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한 칸에 한 색깔만 채우는 거야?” 아이들은 스스로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며, 한 칸에 두 가지 세 가지 색깔을 채워 넣는 시도를 합니다. 여러 색깔을 이용해 단순히 칠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 나아가 여러 색깔로 문양을 그려 넣기도 합니다. 바우하우스 대학교의 상징색이라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용해 태극 문양을 만들고, 후에는 검정색으로 건곤감리까지 그려 넣습니다.

아이들은 다함께 하나의 큰 직조 카펫을 완성합니다. 협동을 통해 하나의 결과물을 창조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으로 가득합니다.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직조카펫과 인증사진을 찍기도 하고, 교수에게 다가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파주 타이포그래피학교 'PaTI'와 독일 조형학교 '바우하우스'의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은 아이들이 창의성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창의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매주 금·토요일에 광주 비엔날레관에서 진행되는 창의교육 프로그램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회가 끝나는 기간까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내게 펼쳐진 또 다른 세상



통신원  
송진주

직접 파견해서 생생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기자, 통신원(通信員). 지난 한 해 동안 ‘통신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 오면서, 나는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해왔으며, 어떻게 변화했을까 곰곰이 생각했다. 처음에는 크나 큰 기대 없이 내가 보고 느끼는 것들을 기사를 통해 함께 공유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시작했던 취재였다. 그러나 매 달 한 두건씩 기사를 쓰면서, 새로이 만나는 기관, 참여자, 기획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어느새 나도 점차 설렘 가득 부푼 가슴으로 통신원 활동을 임하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월초에 만나는 통신원 회의 때마다 통신원들과 지난 취재 에피소드를 함께 공유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정보도 나누며 수다 떠는 것은 통신원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힘을 불끈불끈 샘솟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처음에는 섭외 및 인터뷰의 과정을 거치고, 기사 작성을 하기까지 적잖은 두려움과 걱정도 함께 있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관찰하고, 참여자 또는 기획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임하고 느낄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쓰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 손 끝에서 나오는 글은 그 현장을 여실히 전달하여 비춰주는 거울과 같았다. 유아에서부터 중장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를 막론하고 그들이 실제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보고 느낀 것들이 몇 자 안되는 글로 모두 담을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열의와 성취감, 깨닫게 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처음엔 문화예술교육이 특정한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통신원 취재를 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은 평생 함께 하는 인생 공부 같은 생각이 들었다. 기획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참여자들은 삶의 활력을 얻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건 또 하나의 세상을 선사하는 일이지 않을까? 문화예술 안 세상에서 맘껏 자유롭게 뛰놀고, 배우며 평소 의식하지 못했던 사고와 감정이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로 알지 못한 초면인 사람들조차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금세 친근하게 되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

인생의 과정에서 매 시기마다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 잊고 지낸다. 나 역시 통신원 활동을 통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면들을 하나씩 깨달아 가고, 함께 동화되며 익혀가는 과정을 겪었다. 어린 유아들의 순수함, 청소년들의 호기심, 중장년들의 열정.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더욱 가치 있는 아름다움들을 엿보고, 취재하는 나 역시 새로운 세상을 접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통신원 활동을 하면서 만나 온 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또 다른 만남을 기억하고 날로 달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길 바라본다.

COLLECT  
NEWS

# 엄마들의 숨겨진 흥과 끼를 찾아서!

가족공예 동아리 '마마굿즈'



화창한 6월의 어느 날 아침, 장원초등학교 본관 건물에 들어서면서 왠지 모르게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오전 수업으로 인해 잠잠한 교실 복도를 지나 저 멀리 찻잔처럼 들려오는 아이들의 힘찬 목소리. 그 소리를 따라 마침내 그 곳에 발걸음을 멈췄다. 본관 2층에 위치한 그 곳의 교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저학년 어린이들은 자리에 앉아 앞에 선 학부모 선생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었고, 자리 잡은 책상 위에는 엄마들의 따스한 손길이 닿은 가족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한 두 분이 아닌 여러 명의 선생님들은 각 분단마다 아이들 곁에서 꼼꼼하게 관찰하면서 챙겨주셨는데, 엄마인 듯 선생님인 듯 알 수 없어 보이는

그녀들의 정체가 궁금했다. 수북이 쌓여있는 목장갑, 형형색색의 염료, 투명 재질의 비닐장갑 등 여러 준비물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고 친절하게 가족공예를 알려주시기까지 하는 그녀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 정체는 바로...학부모 엄마들로 구성된 가족공예 동아리 '마마굿즈'이다. 광주문화재단의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녀들은 2017년부터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올해 '마마굿즈'라는 이름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처음에는 그저 한 가정의 주부이자 엄마로만 존재했지만, 현재는 동아리의 회원이자 가족공예선생님, 지역 자원봉사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은 본래 동아리활동을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더불어 거주 지역에서 동아리 활동을 장려해주면서 시작되었다. '마마굿즈'는 산수 2동에 거주 중인 엄마들이 하나 둘 모여면서, 평소 하고 싶었던 공동의 관심사를 찾아보고 교육지원을 통해 얻은 문화 활동의 가치와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마마굿즈'의 엄마들은 현재 초등학교, 지역문화센터, 양로원 등 여러 기관 방문을 통해 재능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취재 당일에도 엄마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실용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 아이들이 사용한 형형색색의 목장갑



▲ 완성된 삼각김밥모양 가족지갑

쓸 수 있도록 가족 동전 지갑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었다. 저학년 어린이들에게도 어렵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하면서, 각각 아이들이 자그마한 손으로 가족의 길감과 안감에다 정성스레 색깔 바르기를 시작했다. 고루 색이 발린 가족을 손에 들고서 엄마 선생님이 드라이기로 말려주기를 기다리며 줄을 선다. 그 후 코팅하고 건조시킨 후, 엄마들이 직접 망치질로 똑딱 단추를 달아주면 가족지갑 완성!

“삼각김밥 주머니 지갑이 생기니깐 정말 좋아요!”

자신이 직접 색을 바른 가족이 금세 지갑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좀체 가족지갑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각기 다른 색깔과 무늬로 나만의 지갑을 만든 아이들은 갖가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예쁘니깐 집에다가 장식할거예요.”

“용돈 받은 동전들을 한가득 모아서 매일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제가 가진 작은 보물들을 넣고 다닐 거예요.”

등... 삼각김밥같이 생긴 자그마한 지갑을 통해서 웃는 아이들로 인해 한층 교실의 분위기가 활기찼다. 해맑게



웃으며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들은 정신없이 힘들었던 것도 잊은 채 항상 밝은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녀들은 엄마이자 ‘마마굿즈’라는 이름으로 환상적인 팀워크를 자랑한다.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번 이상 서로 자주 보려고 노력하고, 두 달에 한번 이상 조별로 자원봉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힘든 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계기는 무엇일까? 처음에는 단순히 자기계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교육 지원을 통해 점차 실력도 늘면서 지역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소외계층들에게 재능기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TV에서 재능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다른 사람 이야기로만 생각되었는데, 막상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배워서 재능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가족 지갑이나 머리핀을 선물해주면서 나눔의 기쁨도 함께 배우고 있다.



▲ 가족지갑 완성 후 뿌듯해하는 아이들

“가족은 환경생각해서 업사이클링(up-cycling)으로 제작도 가능해요.”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냅킨, 풍선 만들기 등 이런 저런 교육들을 받아봤지만, 가족공예만큼 실용적이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활동이 없다고 한다. 굳이 원재료를 구매하지 않고 집에서 쓰지 않는 헌 가족을 이용해

새롭게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환경을 위한 행동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공예를 하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쿵쿵거리는 망치질과 무거운 재료들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보니 살이 빠지고 근육이 많이 붙었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가족공예는 실용성과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활동으로 강력 추천하고 있다. ‘마마굿즈’ 동아리 회원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의욕적인 엄마들의 모임이라서 그런지 함께 하는 모든 이들조차도 힘이 샘솟는 기분이 든다. 이들은 점차 활동을 확대해서 앞으로 다른 마을 동아리와 협력하여 재능기부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그녀들의 꿈이다. 쉽게 접하기 힘든 가족공예를 동아리교육 지원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가족공방을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게끔 모임을 가져서, 더 많은 이들이 ‘마마굿즈’와 같은 활동을 하고자 한 것이다. 더불어 그들은 단순히 배운 것을 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마마굿즈’에 걸맞은 가족작품들을 만들기를 꿈꾼다.

“일단 도전해보세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망설였었는데 막상 해보니깐 꿈이 생기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마굿즈’ 동아리 회원들은 동아리 참여를 망설여하는 이들에게 꼭 해보기를 권유한다. 특히 ‘마마굿즈’의 마영희 회장은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감과 함께 다른 이에게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가족공예 동아리 교육을 받으면서 인연을 맺은 신성주 강사는 강사료를 떠나 강의가 아닌 봉사로써 현재 매번 동아리 모임에 함께 하고 있다. 그들은 단순한 동아리 모임 이상으로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써 함께 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기에 그들 활동의 앞날이 기대된다. 평범한 주부였던 엄마가 지역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작지만 큰 변화를 줄 수 있음을 ‘마마굿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자신의 흥과 끼를 찾지 못한 그대들이여, 지금 당장 도전해보길 바란다!

# 달(Doll)님아, 내 애길 전해줘

아르떼창 - 엄마 달(Doll) 엄니 달(Doll)

누구나 어린 시절에는 맘속 비밀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는 각별한 친구가 있다.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 친구 집에 놀러가 역할놀이 할 때에도 언제나 내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던 마론인형 ‘미미’. 이따금씩 동생과 싸워서 엄마한테 혼나 우울할 때면 미미에게 속상한 마음 토로하면서 공감과 위로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꼬마 시절 자그마한 손으로 움켜쥐던 그 친구는 내가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놓아주게 되었다. 어느덧 어른이 된 지금, 내 손에는 인형대신에 365일 24시간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 그 무엇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시대지만, 과연 우리는 맘속 애기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걸까?



▲ 강사 선생님과 함께 인형을 만들고 있는 학생들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 프로그램으로 아르떼 창 예술터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 12, 2층)에서는 ‘인형 매개체를 통한 가족소통’으로 <엄마 달(Doll), 엄니 달(Doll)>을 기획하였다. ‘엄마’라고 부르는 손자, 손녀들, ‘엄니’라고 부르는 아빠, 엄마까지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어우를 수 있도록 인형극 제작 및 마음 치유와 가족 관계 개선을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3~6학년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11차시(1~10차시까지 교육, 11차시 예술축제)에 걸쳐 6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참가비 무료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밤하늘을 비추는 달이 아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형 달(Doll)을 직접 닥종이에 밀가루 풀을 먹여서 만들어보고,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맘 속 애기를 인형극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

7월 27일에는 5차시 ‘드러내기:표현하기’를 주제로, 참여 학생과 가족들은 인형극을 위한 캐릭터 인형을 만들고, 인형작가 및 연극 전문 강사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라 캐릭터의 구체적 성격과 이야기 구조를 짜보았다. 참여 학생인 송유찬 어린이네 가족은 아르떼 창 예술터에 도착하자마자 석고상처럼 딱딱하게 굳은 새하얀 닥종이 인형들에 형형색색 예쁘게 색을 입히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도 학창시절 미술시간으로 되돌아간 듯 열심히 붓질에 재미를 붙이면서, 아들 유찬이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유찬이 인형이 매고 있는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아이가 손수 만든 인형은 큼지막한 가방을 등에 매고 어벤저스에 나오는 타노스의 건틀릿을 손에 끼고 있었다. 각기각색 크기와 모양이 개성 있는 유찬이네 인형들은 인형마다 어떤 성격으로 이야기가 진행될까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들이 만든 시나리오의 이렇다.

아들 유찬이는 평소 가족에게 불만을 가져 가출을 계획하게 되는데, 아빠는 그런 유찬이를 가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고, 엄마가 도깨비마냥 크나큰 방망이를 들고서 혼내려고 쫓아오자, 유찬이는 손가락을 튕기며 타노스의 건틀릿으로 모두 사라지게 한다.

요즘 들어 유찬이 엄마(김지혜)는 아들 유찬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오다 보니깐, 자신의 속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게 걱정이 되었다고 한다. 부모님의 관심으로 한 행동이 엄마는 잔소리, 아빠는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아들을 보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우연히 온라인 카페에서 본 프로그램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다.

“첫 수업시간에는 손가락 인형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평소에는 말하지 않았던 것을 인형을 통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소리 내어 말해보면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거 같아서 신기했어요.”

유찬이 아빠, 엄마는 작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아들을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말에 시간을 내어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사춘기 시절 아이들 대부분이 친구들 외에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할 창구가 생긴 것이다. 더불어 가족의 손때가 묻은 하나뿐인 인형으로 그들만의 인형극을 만들 생각에 좀 더 의욕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과정 기록



▲ 5.즐거움 분위기 속에서 닥종이 인형을 만드는 송유찬 어린이 가족



▲ 송유찬 어린이네 가족



▲ 엄마달 엄니달 기획자 최고운

“현재는 5차시까지 진행해서 인형극을 위한 상황만 설정된 상태지만, 좀 더 발전시켜서 아들의 독백파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는 독백이 가득한데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고민이 있을 때 친구들도 좋지만 부담 없이 부모에게도 이야기해주면 좋겠단 바람이 있어요.”

〈엄마 달(Doll), 엄니 달(Doll)〉에 참여한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바라는 대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인형을 통해 표현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인형을 직접 만들어 타자화 시키면서 간접적으로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평소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캐릭터 ‘토토로’가 되어보거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연어초밥’이 되어보는 것이다. 엉뚱하면서도 기상천외한 모양과 형태로 나타나는 아이들의 인형은 내면의 감정과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여 보여준다.

본 프로그램의 최고운 기획자는 ‘인형은 형태가 사람과 친숙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인형제작을 고려했다고 한다.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고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어 소통을 거의 안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대신에 인형을 손에 쥐어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닥종이’로 인형을 만든다는 것이 요즘 아이들에게 생소한 방법이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진행하면서 최대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그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창하지 않더라도 ‘내일 아침에 뭐가 먹고 싶다.’라는 소박한 마음 속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어릴 적 아장아장 기어가던 어여쁜 아이가 웅얼이하며 미주알고주알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었는데, 점차 자라 십대가 되면서 말 수가 줄어들고 소통을 하지 않게 되면 사소한 갈등조차도 증폭된다. 자신이 손수 만든 인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꺼내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한다는 건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하나의 실천이지 않을까 싶다. 맘 속 이야기를 직접 하기엔 낮부끄럽고 어색하지만 결국 내가 힘들 때 함께 하는 사람은 가족이다. 토요학교 주말예술배움터에서 진행하는 〈엄마 달(Doll), 엄니 달(Doll)〉을 통해 가족과 인형극을 하면서 서로간의 관계도 치유하고 회복하며 기억에 남을만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



# 마음으로 퍼지는 나와 너의 색깔

광산구청소년수련관 ‘알록달록 놀이터! 마음이 간지러워~’



빨.주.노.초.파.남.보.

비온 뒤 드넓은 하늘에 펼쳐진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을 넘어 그 안에 다양한 색을 담는다. 빨간색에서 보라색에 이르는 그 틈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수분을 가득 머금고 서로 어우러지기 시작한다. ‘나’의 색이 ‘너’의 색을 만나 또 다른 색깔이 되고, 알 수 없는 모양과 감정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참으로 경이로운 광경이다.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는 얼굴의 형상이지만, 닮은 듯 조금씩 다른 나와 너. 우리네 세상은 이처럼 서로가 다른 듯 닮아있는 무수한 색깔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루에도 수시로 달라지는 나의 마음은 어떤 색깔로 오늘의 나를 보여주고 있을까?



▲ 자신이 가진 알록이와 달록이를 함께 만나요

유난히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선선한 날씨였던 9월의 어느 날, 광주 서구에 위치한 소향유치원에 ‘알록이’와 ‘달록이’가 찾아왔다. 유아의 일상생활 속 경험과 환경에서 만나는 ‘색’이라는 주제로 〈알록달록 놀이터! 마음이 간지러워~〉를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중 하나로, 음악, 미술, 무용을 통하여 아이들의 활발한 신체운동과 올바른 의사소통 및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 마음의 감성을 건드리면서,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나를 표현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알록이와 달록이와의 만남을 통해, 참여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즐기고 선택하며,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취재 당일에는 2회차 수업으로 〈알록이와 달록이가 만나요〉가 진행되었다. 알록이와 달록이와 함께 보이는 색들이 같은 색 같지만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상상력으로 여러 마음과 그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몸소 보고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온 방 구석구석에는 다채로운 컬러의 알록달록한 스카프들이 여기저기 놓여있는 상태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등장한다. 독특한 사운드의 음악이 흐른 가운데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보고, 알록이와 달록이의 만남이 성사되길 기다린다. 나에게 있는 색깔을 찾아서, 마음의 모양을 살피고 서로가 어울려본다.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과 친구가 마음에 드는 색깔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만지면서 하나의 놀이를 시작한다.



“알록이와 달록이의 마음이 만나요. 우리 함께 마법을 넣어볼까요?”



▲ 알록이와 달록이의 경이로운 변화로 놀라는 아이들

알록이와 달록이의 그림책을 보기 위해 웅기웅이 모인 아이들. 알록이와 달록이의 탄생과 만남의 과정을 그림책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스토리텔링이 시작되었다. 각기 다른 색깔의 조그마한 알록이와 달록이는 여행을 떠나 어느 순간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크고도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준다. 이야기에 매료된 아이들은 알록이 달록이의 엄청난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작은 눈망울에 비친 알록이와 달록이는 하나의 색깔과 모양이 아닌 각양각색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마주한 알록이와 달록이 만남. 그들처럼 아이들도 역시 마음의 색깔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형형색색의 물감이 들어있는 주사기, 투명필름지 2장을 준비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랐다. ‘톡, 톡, 주우욱~’ 아이들은 사이좋게 색깔선정을 하면서 꼼지락 꼼지락 주사기를 짜기 시작했다. 어떤 색깔과 모양으로 내 눈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자신만의 알록이와 달록이를 상상하면서, 또 다른 투명필름지를 대고 손가락 끝에 마음을 모아 꾸욱 눌러본다. 마음을 담아 누르면서 넓게 퍼져가는 나의 마음의 모양.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양면으로 펼쳐질 나의 마음을 기대한다. 그리고 마주한 나의 예쁜 마음!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제목을 생각하고 쓰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낸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완성한 알록달록한 마음은 예쁜 이름의 제목으로 전시 및 감상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자신이 표현한 마음과 달리 친구들은 어떻게 나타냈을까, 어떤 이름을 지었을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감상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아이들은 한 명의 예술가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었다. 다채로운 색깔의 아름다운 내 마음을 예쁜 옷과 액세서리를 보듯이 아이들은 마지막에 만족스런 미소를 지어보였다. 알록이 달록이를 만났던 그 설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알록이와 달록이를 만났던 1차시 후, 2차시에는 ‘색’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마음을 보고, 3차시에는 ‘음악’을 통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본다. 마음을 직접 색으로 보고 소리로 들으면서 마지막 4차시에는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으로 가서 축제를 통해 알록이 달록이를 몸소 즐겨봄으로써 예술적 경험의 폭을 넓히게 된다. 이처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기반시설로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유아의 흥미뿐만 아니라 공감각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연구하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참여하고 있는 소향유치원 이문선 원장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 나의 마음을 표현해볼까



▲ 알록이와 달록이를 체험한 소향유치원 아이들

“참여하는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낮은 경험일 수 있지만, 문화예술경험을 개정 누리과정인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교육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연장에서 유아들이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있는 공연 기회는 유치원 현장에서 제공하는 인형극이나 미디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유아들의 경험을 확장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대가 큼니다. 유아기에 다양한 문화 경험 및 예술 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이번 유아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우리아이들에는 소중한 교육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처럼 유아교육이 단순한 학습 및 인지발달을 위한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인 아닌 문화예술을 융합하여 시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아교육의 새로운 방식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런 변화가 현장에 있는 많은 교사들에게 문화적 감수성을 일깨우고 소통하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아 시기의 문화·예술적 경험이 얼마나 유아들의 창의적 활동과 사고에 영향을 미칠지는 유아문화예술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확인 가능한 일이다. 지속적인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아이들이 꿈 꿀 수 있기를 바란다.



# 꽃 같은 인생의 파노라마

푸른연극마을 <내 인생의 드라마를 펼쳐보이리>

조용히 눈을 감고서 옛 기억을 더듬다 보면, 영화 속 트레일러처럼 무수한 장면들이 스쳐지나간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한 행복했던 그 당시를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고달픈 현실의 기억이 스치면 억장이 무너지는 듯 그 아픈 상처의 고통이 다시금 전해진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그간 겪으면서 내게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일일이 이야기하려하면 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나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내가 사실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은 온갖 풍파 속에서도 견뎌내고 끝내 찬란한 인생의 결말로 마무리 짓는 것처럼, 오늘도 아름다운 내 인생의 드라마 방영을 시작한다.



▲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경정하면서 무대에 임하는 그녀들



▲ 다른 이의 이야기지만 내 이야기같이 듣는 그녀들



▲ 자신의 인생 드라마를 펼칠 무대에 서있는 그녀들

지난 10월의 어느 날, 푸른연극마을 ‘씨어터 연바람’의 <내 인생의 드라마를 펼쳐보이리>에서는 일곱 가지 색깔을 지닌 중년 여성 배우들의 인생을 무대에서 만나 볼 수 있었다. 다소 낯선 듯 익숙한 그녀들의 이야기. 4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꽃다운 여인들은 가슴 속 깊이 묻어 두었던,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마음 속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 놓기 시작했다. 마치 드라마 속에서 연출된 주인공의 삶이 실제로 경험한 것같이 몰입되는 것처럼, 이는 다른 삶의 모습 같지만 내가 예전에 겪었던, 또는 앞으로 겪을 생각과 감정을 담았다.

이혜숙, 이은아, 주옥, 이명순, 강경숙, 김소연, 전현숙. 온전히 내 이름으로 불리며 무대에서 선보이는 나의 이야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DJ(김현우, 오새희)의 매끄러운 진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해보는 콘셉트로 연출하였다. 7명의 여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기하지만, 사실 실제의 모습이기엔 무대 위에서 몰입도가 높았다. 내 이야기를 직접 내 입으로 내뱉고, 대사를 읽다가 건잡을 수 없이 슬픔이 밀려올 때는 다른 여인들이 대신해서 대사를 낭독해주었다.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들이기에,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표정과 행동에서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누구나 한번쯤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일원이나 연인, 친구 등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인생의 중심에서 항상 가까이 해왔던 누군가가 어느 순간 사라졌을 때 그 절망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사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수많은 에피소드 중 하나이지만 평범한 듯 너무나 특별한 이야기로 공감을 갖게 한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거나, 친구 남편의 죽음을 마주할 때, 사랑하는 이의 배신으로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을 때 등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기에 겪는 이 모든 감정들이 더욱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 이를 누군가에게





▲ 서로를 안으며 위로하는 그녀들

내보인다는 것은 나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내미는 따스한 위로의 손짓이기에 그들의 인생 드라마는 너무나 특별하다.

무대 위에서는 보통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 새로운 나의 모습을 선보인다. 그렇기에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내 모습을 오롯이 드러낸다는 것은 별거벗은 듯 나를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들 역시도 사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까지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 초면에 모르는 남남이 만나서 입 밖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굳이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크나큰 도전인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큰 슬픔의 상처는 가질 수 있기에, 그 아픔이 단지 다른 사람의 상처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나의 슬픔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누구보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언니, 동생이 되었다.



▲ 〈내인생의 드라마를 펼쳐보이리〉의 이당금 기획자

〈내 인생의 드라마를 펼쳐보이리〉를 진행한 이당금 기획자는 본래 배우로서 자신을 표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다른 중년의 여성들의 삶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고 한다. 이를 준비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전했다.

‘나이가 들어 이제는 인생을 돌아봐야할 시기인데, 보통 주변에서는 자신의 깊은 속내를 이야기할 기회가 딱히 없어요. 긴 세월동안 무대에 서면서 연극적인 요소가 가장 깊은 감정을 풀어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로써 약 5개월간 20차시에 걸쳐 드라마 형식을 통해 감정적 치유도 더불어 이뤄지면서, 계절이 변하듯 참여하는 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만나는 시간을 예술적인 형태로 만나게 해주면서, 모두 이야기 속 나의 모습, 엄마의 모습, 친구의 모습, 결국 우리의 이야기로 잘 버물려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중년여성들을 위한 자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간 가져온 상처의 아픔을 잊기 위해, 이런 저런 활동을 찾다가,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게, 처음엔 회의적이고 적대감이 생겼지만, 차츰 글로써 나를 돌이켜보고 말로써 나를 보여주니 그 가운데 무거웠던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짐을 느꼈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자기에도 생기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도 참으로 따뜻하게 바뀌었고, 공감과 소통 속에서 남과의 소통이 결국에 나와와 소통으로 이어졌다. 눈물로써 보낸 긴긴 세월을 이제는 다 같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내 인생의 무대. 그 이야기 속에서 어여쁜 한 떨기 꽃송이로 피어나기 위해 ‘인생 최고의 배우’로 무대를 마친 그녀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꽃 같은 내 인생, 지금껏 잘 살아온 내 삶에 아름다운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 통신원하기 딱 좋은 날들을 보내고



통신원  
**이하영**

“그럼 딱 통신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2월, 졸업식을 마치고 진로를 걱정하고 있을 때였다. ‘대학원은 아직 가기 싫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하고 싶은 공부도 조금씩 하고, 글쓰기가 중요한 것 같으니 글쓰기 연습도 하면 좋겠다’고 막연한 계획을 이야기했다. 가만히 내 말을 듣고 있던 친구는 “그럼 딱 문화재단 통신원 하면 되겠네. 광주 문화예술 현장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글도 쓰고.”라며 문화재단 통신원 시절 작성했던 기사를 보여줬다. 어렵지 않다고, 관심 있는 분야니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응원의 말도 덧붙였다.

그렇게 문화 재단 통신원 활동을 시작했다. 친구의 말대로 광주 문화예술 현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취재 기사를 작성하게 됐다.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두 번씩 기관에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담당자 선생님과 참여자들을 인터뷰했다. 처음에는 괜히 수업 현장에 찾아가 귀찮게 하는 건 아닌지,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가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걱정은 잠시, 주의를 기울여 수업과정과 참여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프로그램의 취지와 앞으로의 목표, 보람찼던 순간들을 질문했다. 그리고 답변을 들으며 기획 의도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담당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러다 보면 떨리는 마음과 걱정은 사라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과 관심만 남았다.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내가 드린 질문을 듣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의도했던 것들과 목표를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를 꿈꾸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도 좋았다.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정과 미소를 보여주셨다.

COLLECT  
NEWS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현장에 가서는 ‘저도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보내고 싶어요’라는 말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는 ‘저 나이 들어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남겼다. 가벼운 칭찬이나 빈말로 들리셨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이 예술의 힘과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과 이를 알리려는 사람들, 알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다. 그런 세상에 아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 내가 방문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한 가지 더,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겁다, 학교 졸업 후 뭘 해야 할지 아직 확신이 안 선다, 근데 글쓰기를 즐긴다.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럼 딱 통신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헛망진창으로 시작해도 괜찮아

문화예술교육연구소일상 '엉망진창 오케스트라'



▲ 엉망진창 오케스트라 1,2기의 활동사진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갔던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봤다.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한참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비싼 악기들로 채워진 콘서트홀, 진지한 표정의 청중들, 웬지 격식을 차려야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오케스트라에 섰듯 다가서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만약 비싸고 배우기 힘든 악기가 아닌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들이 악기가 되어 무대 위에 오른다면 어떨까? 일상에서 쉽게 보고 구할 수 있는 도구가 악기가 되어 누구나 연주자가 될 수 있다면? 아마 가볍고 부담 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악기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연주자가 될 수 있는 ‘영망진창 오케스트라’ 3기 첫 수업이 열리는 날, 스스로를 ‘영망진창’이라 말하는 오케스트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기대감을 안고 광산구 더불어악 노인복지관으로 향했다.



### ▲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름표

수업이 열리는 공연장은 이른 시간부터 아이들 목소리로 가득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찾아온 어린 친구들부터 이미 아는 사이인 듯 들어오자마자 서로 인사를 나누는 친구들까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으로 이뤄진 ‘영망진창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었다. 옆에 앉은 친구에게 ‘오늘 뭐 할까?’라고 물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아직은 어색한 듯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 보기도 했다. 모두들 떨리면서도 기대되는 눈치였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일상의 주진옥 선생님께서 인사로 수업의 시작을 알리자,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수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일상은 문화예술 교육의 한 방법으로써 음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결합하여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해 보급하는 단체입니다. 단순히 기능 위주의 교육이 아닌 창의적이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고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이 음악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영망진창 오케스트라’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부모님들이 함께 자리했다. 프로그램의 취지와 앞으로 진행될 수업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지난 1,2기의 활동 내용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 속에는 생수통과 파이프, 깡통과 페트병 등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악기가 되어 아이들 손에 연주되고 있었다.

“어렵고 비싸다.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한다. 오랜 연습이 필요하다. 일반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정반대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악기를 한 번 연주해 보고 싶은데, 꼭 비싼 악기로만 해야 할까? 오랜 시간 테크닉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 쉽고 편안하게 친구들과하고 즐기며 연주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이 계기가 되어 기존 오케스트라가 가진 고정관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오케스트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싸지 않은 우리 주변, 일상의 오브제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고 친구들과하고 연주를 해보자.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를 이해하고 체험하고 이를 통해 악기가 소리는 원리를 이해하고, 이 소리를 우리만의 악기로 재해석해 악기를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엉망진창 오케스트라는 1회성의 체험 형식 수업도 아니고 만들기 수업도 아닙니다. 연주 방법을 배우러 오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악기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하고 어떤 악기를 만들지 상상하고 재료 탐색도 해보고, 상상한 악기를 만들다 실패도 해보고, 내가 만든 악기로 연주도 직접하고 공연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설명이 끝나고 간식을 먹은 뒤 공연장에는  
아이들만 남아 수업이 계속됐다. 부모님이 떠나고



▲ 엉망진창 오케스트라 1,2기의 활동사진





▲ '영망진창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름표와 깃발을 꾸미는 모습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손!’이라는 선생님의 질문에 손을 번쩍 드는 아이들. 이름과 학년을 소개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와 그림으로 각자의 이름표를 꾸몄다. 버스킹 공연에서 영망진창 오케스트라를 알릴 깃발도 제작했다. 다양한 악기 그림을 오려 깃발에 붙이고, 색을 칠해 깃발을 완성했다. 앞으로 있을 여러 차례의 공연과 버스킹을 함께할 깃발이었다.

“올해부터는 교육과 발표 형식의 공연에서 끝나지 않고 결과물들을 지역사회와 많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송정역 시장에서 상인들과 함께하는 버스킹, 노인복지회관에서 장구, 팽과리를 배우시는 어르신들과 함께하거나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하시는 선생님들과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그냥 공연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해요? 들고 다니면서 악기 연주해요?”라고 물으며 깃발을 휘두르는 아이들에게서 벌써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이 두 번째 프로그램 참여라는 금구초 6학년 유수인 학생은 “직접 악기를 만들고 간식 먹는 시간도 기다려지지만,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 공연 한 경험이 가장 즐거웠으며 앞으로 버스킹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양에서 친구와 함께 ‘영망진창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었다. 열심히 깃발을 꾸미는 모습에 두 친구가 만들 악기와 음악 소리가 벌써부터 궁금해졌다.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내 감정도 달라집니다. 이왕이면 많은 친구들이 음악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듣고 즐겼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랩이나 대중가요 등 음악을 듣는 거만 즐기고, 음악으로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생각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악기는 연주하는 것, 듣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음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악기에 관심을 가지고 음악을 즐기려면 악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악기를 이해할수록 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연주법을 궁금해하게 되거든요. 악기를 이해하다 보면 연주를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영망진창 오케스트라’의 경우 내가 만든 악기를 가지고 연주법도 직접 만들어 연주하기 때문에 악기에 대한 애착이 매우 커요. 악기와 친해지고 음악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영망진창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음악을 즐기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주진옥 선생님의 한마디는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했다. 실제로 ‘영망진창 오케스트라’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시작이 ‘영망진창’이었기에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영망진창 오케스트라’는 고물상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악기를 직접 제작해 몇 차례의 버스킹을 통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아이들 손으로 만든 악기들이 어떤 소리를 낼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악기들이 만들어낼 연주 소리를 기대해본다.





# 노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배우는 중이에요!

노작을 통해 경험을 배우는  
어린이 예술학교 ‘바퀴달린 학교’에 가다

“일자 드라이버 좀 줘봐”

“그거 손으로 하면 안 들어가! 전동 드릴로 해”

“아무래도 망치 가져와야겠는데?”

정비소나 건설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다. 문흥동에 위치한 ‘북구문화의 집’은 토요일마다 각종 공구를 찾는 초등학교생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하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신체활동을 통해 체화하는 노작학교 ‘바퀴달린 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다. 취재 전 ‘비밀 기지와 장난감 제작 수업’이라는 설명을 듣고 D.I.Y 키트를 책상 위에 올린 채 얌전히 둘러앉아 있는 초등학교생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예상과 달리 교실에 도착해 마주하게 된 건 커다란 자전거를 분해하고 있는



▲자전거 제작을 위해 자전거를 분해 중인 아이들

아이들의 모습. 자전거를 절단하느라 사방으로 불꽃이 튀고 연기가 자욱해진다. 위험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 교실에 들어가길 망설이고 있는데, 아이들은 익숙하게 공구를 들고 각자가 맡은 일에 열심이다.

“애들아 불꽃 튀면 망막 손상될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말고 조심해!” 서로를 살피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걱정을 잠시 접어 두고 수업이 열리고 있는 교실로 들어가 보았다.

‘장난감공장’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은 자전거를 분해해 자동차를 만드는 중이었다. 작년에도 자동차를 만들어 문화의 집 앞에 위치한 공원을 몇 바퀴나 돌았으며 들뜬 목소리로 자랑을 한다. “두다닥카라고 이름도 지어줬어요”라며 오늘 만들 자동차도 기대하는 눈치다. 비교적 조용한 옆 교실, 건축 반에서는 비밀기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 한창이다. 크기와 용도별로 정리된 수많은 공구들 사이에서 아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를 찾아내 못을 박고, 톱질을 한다.

‘바퀴달린 학교’는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학교 밖 학교로 ‘주말건축반’과 ‘장난감공장’ ‘땅과 예술’ 세 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예술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땅과 예술’ 반은 담양의 수북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디자인하는 ‘주말건축반’과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을 펼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장난감공장’ 수업은 북구문화의 집에서 진행된다. 어디든지 움직이는 ‘바퀴달린 학교’답게 아이들은 교실 안과 밖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비밀 기지를 짓고, 자전거를 분해해 자동차를 만드는 중이었다.

직접 탈 수 있는 자동차와 비밀기지 등 혼자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큰 규모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만큼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온다. “하나둘 셋 하면 일으켜 세워” “못 박는 동안 여기 잡고 있어 줘” 힘을 합치거나, “이 드릴은 크니까 내가 할게 너는 좀 더

작은 거 써”라며 동생을 챙기기도 한다. 이처럼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관계를 배워나가는 것은 ‘바퀴달린 학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바퀴달린 학교’ 프로그램을 수년째 담당하고 있는 박우주 선생님은 “수업에 1학년부터 6학년의 학생들이 섞여 있다 보니 아이들이 수업 안에서 관계를 배워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여러 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이나 처음 오는 친구들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의 보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함께 어울리고 도우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계를 배운다는 것이다.

수업을 지켜보다 보니 선생님을 도와 익숙하게 어린 친구들을 통솔하는 아이가 눈에 띈다. 여기저기 불꽃도 튀고 기계도 뽕뽕한데 무섭지 않냐고 물었더니 “무서울 것 같은데 해보시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라는 씩씩한 대답이 돌아온다. 지한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박지민 학생이다. ‘장난감 공장’ 참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박지민 학생은 수업 덕분에 직접 물건을 만들어 보는 일에 흥미를 가지게 됐다고 한다. 장래 희망 역시 의사 아니면 나무로 무언가를 만드는 직업을 꿈꾸고 있다. ‘바퀴달린 학교’를 다니며 상상력이 늘어난 것 같아 뿌듯하다는 박지민 학생은 수업이 재미있어 계속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중학생이 되어 오지 못하게 됐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처럼 ‘바퀴달린 학교’를 다시 찾아 주는 아이들과 이들의 성장은 선생님들에게 보람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 자동차 제작 모습



▲ 자동차를 완성한 아이들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한 해만 참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 프로그램에 연달아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질 하나, 톱질 한 번 하는 것도 무서워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유자재로 뭔가를 만들고, 동생들을 돕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전라도 말로 정말 ‘오진다’는 표현이 나오죠. (웃음)”

첫해에는 혼자만 왔다가 재미있었는지 다음 해에 자기 동생이나 언니, 형같이 가족을 데려오거나 친구와 함께 오는 아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박우주 선생님은 말한다.

어느새 자동차가 완성됐는지 아이들이 공구를 정리하고 공원으로 향한다. 조금 투박하고 단순해보이는 자동차지만, 차 위에 올라타 신나게 손을 흔드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뿌듯함이 느껴진다. 부모님이 사준 장난감이나 놀이공원에서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아닌 내가 직접 만든 놀이기구를 타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졌다. 아이들이 직접 손을 사용해 무언가를 제작하는 교육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북구문화의집과 같은 공간이나 ‘바퀴달린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박우주 선생님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북구문화의집에는 ‘낮은 작업장’이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칸칸이 재료장안에

들어가 있고, 도구나 부재료들이 비치돼있어 아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걸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핸드폰 거치대가 필요하다 싶으면 실제로 만들어 가기도 하고, 남자아이들의 경우 총이나 칼같이 장난감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게임 세계에서 마주한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도 만들어 보려는 것 같아요. (웃음) 정리도 잘 안 되고 관리하기 제일 힘든 공간이지만 공간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만들기에 대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구나, 이러한 욕구들이 정형화된 키트나 정해진 결과물을 요구하는 수업에 가려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기능을 배우고 선생님이 시킨 일을 수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깨너머로 배운 걸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언갈 창조해내고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들을 직접 해본다는 것. 그동안 위험하다고 만지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 칼을 다루거나 톱질, 심지어 용접과 같은 기술들을 접하면서 일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퀴달린 학교’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우주 선생님의 말처럼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만든다는 것은 아이들이 ‘나’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과정일지 모른다.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떠올려보고, 이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내 마침내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내가 원했던 물건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 만들기를 통해 사물과 세계를 정형화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스스로 이해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마음껏 상상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들,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결과물을 완성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놀지 않고 일만 하면 바보가 된다’는 서양 속담을 떠올려 본다. ‘바퀴달린 학교’의 아이들은 지금 신나게 놀며 손으로 배우는 중이다.

# 우리에게 필요한 ‘선생님’, 우리를 기다리는 ‘문화예술교육사’

농성문화의 집 <오밀조밀 생각대로 오브제 팩토리>



▲ 함께 책을 읽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

“선생님! 저 이거 잘못 끼웠어요!”

“선생님! 저는 방학숙제로 학교 가져가게 두 개 만들면 안 돼요?”

“선생님! 이 색깔 너무 연해서 안 보여요!”

“선생님! 저 이쪽 빠져나온 거 자르고 싶어요!”

“선생님!”

토요일 오후 농성문화의집은 ‘선생님’을 찾는 소리로 시끄럽다. 어린이 환경미술 프로그램 ‘오밀조밀 생각대로 오브제 팩토리’ 수업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과 옷, 현수막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예술작품을 만들고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미술 프로그램 ‘오밀조밀 생각대로 오브제 팩토리’의 수업은 동화책 <플라스틱 섬>을 함께 읽으며 시작됐다.





▲ 못 입게 된 청바지를 활용해 예술작품을 만드는 아이들

플라스틱에 몸이 끼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거북이, 몸에 타이어가 끼어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 바다사자, 아이들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강과 바다로 흘러간다. 바다에 커다란 플라스틱 섬이 생기고, 물고기와 새들이 죽어간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버려진 것들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다. 못 입는 청바지를 활용해 벽을 장식할 수 있는 오브제를 만드는 시간, 선생님과 아이들이 돌아가며 청바지에 담긴 이야기와 추억을 나눈다.

“제가 가져온 청바지는 사촌 형아가 커가지고, 작아져서 못 입게 된 바지예요.”  
“이거는 제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바지인데 뽕꾸가 나서 못 입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 삼촌 청바지예요. 삼촌이 살이 빠져서 이제 못 입게 됐어요!”

교실에서 제일 큰 청바지의 등장에 아이들이 웃음을 터트린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 각자 가져온 청바지를 오리고 수틀에 끼운 뒤 그림을 그려 장식하기. 청바지의 어느 부분을 오려야 하는지부터 어떤 색으로 그림을 칠할 건지, 어느 방향으로 청바지를 수틀에 끼워 넣어야 하는지 선생님을 찾는 소리로 교실이 시끄럽다.



▲ 아이들이 완성한 예술작품

하나둘 청바지가 작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완성된 ‘청바지 오브제’를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설명하는 시간도 가진다. “청바지 위에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만은 잃지 말자’라고 적었어요. 벽에 걸어 놓을 거니까, 자주 보려고요.” “이 작품의 제목은 자연이고, ‘쓰레기 말고 자연을 사랑하자고 썼어요” 한 사람씩 작품 설명을 마치자 “청바지라고 생각 못 하겠어요. 그죠? 이 작품을 보면 쓰레기를 쉽게 버릴 수 없겠는데요?”라는 선생님의 말이 뒤를 잇는다. 선생님의 칭찬에 아이들이 뿌듯한 표정을 짓는다. 아이들의 표정을 보며 이러한 예술 교육이, 수업을 만들고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해 직접 작품을 만들며 환경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수업 ‘오밀조밀 생각대로 오브제 팩토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 중인 문화예술교육사 김건희 선생님을 만나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문화예술 교육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를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김건희 선생님은 아직 문화예술교육사를 뭐라고 정의 내려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한다.



“기획서를 작성하고, 수업을 홍보하고, 참여자들을 모집해 수업을 운영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순간순간이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도 큰 것 같아요. 한국화를 전공하고 미술 학원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문화예술교육사 수업을 받으면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문화예술교육사가 뭘까? 뭐 하는 사람일까?’ 순간순간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수업 기회를 좀 더 많이 접해보고 경험해 봐야 저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수업 시간 ‘선생님’을 부르던 아이들의 목소리와 선생님 의 도움으로 작품을 완성하고 뿌듯해하던 아이들. 문화 예술교육 ‘선생님’이 필요한 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문화예술교육사’하면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을 주로 떠올리시는데 사실 문화예술교육사는 꼭 어린이 교육에 한정된 전문가가 아니에요. 문화예술 교육은 어느 연령에게나 필요하잖아요. 청소년, 청년, 어르신, 또는 가족들 역시 문화예술 교육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환경’을 주제로 택한 이유도 좀 더 다양한 연령과 풀어나갈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다양한 연령,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큼니다.”

김건희 선생님은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고 말한다. 자발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를 통해 나와 세상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의 힘이다. 김건희 선생님의 말대로 이러한 문화예술 교육은 아이들뿐만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교육일지도 모른다.

“요즘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자격증 제도에 허점이 많다 말이 많은데 한 명의

전문 인력을 키운다는 게 무척 힘든 일이잖아요. 문화예술교육사들이 가진 ‘전문성’은 현장에서 경력이 쌓여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건데,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나 전문 인력이야!’ 이렇게 자신을 뽐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배운 걸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는 게 가장 절실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즐겁게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운영하며 많은 걸 배우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을 믿고 기회를 주는 것’, 모든 문화예술교육사 선생님들께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교육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난다. 문화예술 교육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사’가 존재한다. 준비된 문화예술교육사들이 그동안 교육받은 지식을 실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이 많아져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해 ‘나’와 ‘세상’을 알아갈 기회를 주는 일인지도 모른다. 문화예술 교육사에게 준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기회로 돌아올 것이다. “선생님!” 농성문화의집을 가득 채웠던 선생님을 찾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떠올려본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선생님’은 이미 우리 곁에서 자신을 불러주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 예술을 통해 ‘환경’을 생각해보는 오일조일 생각대로 오브제 팩토리

# 예술에 대한 마음이 자라나는 콩나물시루

책 문화공간 봄 ‘무늬만 책, 일상을 기록하다’

“나에게 문화예술은? 깊이 생각해봤어요. 콩나물시루입니다. 구멍 뚫린 시루에서 흐르는 물에도 잘 자라나는 콩나물처럼 사람들에게도 문화가 스며들어 잘 자라기를요.”

‘책문화공간 봄’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무늬만 책, 일상을 기록하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시는 위명화 선생님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남구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책문화공간 봄’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곳이었다.



▲ 지수를 놓고 계시는 프로그램 참여자분들



도서관이 있을까 싶은 상가건물, 도서관으로 향하는 계단에서부터 어머니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사우나 옆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누구나 언제든 들어와도 괜찮다는 환영인사처럼 느껴진다. 공간을 가로질러 길게 놓인 테이블에서는 자수 수업이 한창이다. 꽃과 집, 글귀와 가족들의 모습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천 위에 새겨진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연대기를 만들고 수를 놓아 자서전을 완성한다.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이야기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취향, 내가 행복했던 시절, 오롯이 ‘내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혼이 나오고 아이가 나오면서 가족 이야기로 나 자신의 이야기는 묻혀버리더라고요. 이제 그거 말고 진짜 ‘나의 이야기’. 기왕이면 나의 어릴 적, 결혼하기 전의 젊은 시절,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표현해보자 하는 마음에 시작했어요.”



▲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모습

자서전 쓰기, 구슬생애사, 나만의 책 만들기 등 최근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비슷한 프로그램과 달리 ‘책문화공간 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예술 경험을 통해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수로 자신을 표현하기 전에 연대기를 작성하고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노트를 만든다.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태몽이나 아이들의 태몽을 한국화로 표현하기도 한다. 자수로 이야기를 담아내고 조그만 의자에 내가 좋아하는 문장들, 나를 표현하는 문장들을 새겨 넣기도 한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도 미술을 전공하고 아이들을 가르쳐 봤는데, 부모가 관심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예체능을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예술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문화 소외 계층이 주부이기도 하거든요. 어르신분들은 노인 대상의 프로그램이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예술을 접하죠. 유치원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엄마들은 어떻게 보면 피카소하고 고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예술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런 의미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과정을 세 개의 챕터로 구성해봤죠. 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는 말과 글로 표현하고 그다음에는 한국화로 표현했어요. 그다음에는 자수로 나를 표현하고, 자수 수업이 끝나면 서각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조그마한 의자에 내 인생의 한 줄을 조각해보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위명화 선생님은 특히 ‘예술’을 통한 삶의 경험, 교육을 강조한다.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돌아보고 변화하는 사람들, 삶을 보다 풍요롭게 가꿔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술에 대한 관심이 자녀들은 물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자수를 놓는 개인적인 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도 예정되어 있다. 우리 주위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전시된다. 예술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그저 내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가오는 11월 22일, 동구에 위치한 ‘예술공간집’에서 열릴 전시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의 도서관, 자수를 놓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크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문화 공간 봄은 주민들에게 어떤 공간이고, 또 앞으로 어떤 공간이 되길 꿈꾸고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너무 한정을 짓더라고요. 저희는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공공 도서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섬세하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책을 단순히 대출하고 반납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 제 기분이 어떤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와서 책은 물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도서관을 만들자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6년째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만 사랑방이 아니라 진짜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자식

나오길 기다리면서 책 읽는 분들도 계시고, 중학생 아이들이 오락실이나 노래방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쉬었다가고. 그럴 때 이 공간이 참 쓸모 있는 공간이구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이구나. 우리도 일본처럼 50미터만 가면 작은 도서관이 나올 정도로 도서관이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독서의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이 되면 도시 곳곳에서 책과 관련된 행사가 열린다. 행사장에는 ‘도서관이 나라를 만든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보라’와 같이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단골로 등장한다. 위명화 선생님의 말처럼 50미터만 가면 새로운 도서관이 나오고, 이사를 결정할 때 도서관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나라가 된다면 어떨까? 그 도서관이 ‘책문화공간 봄’과 같이 사랑방 같은 도서관,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다 나은 곳이 되지 않을까. 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문화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이를 통해 삶과 세상을 생각하게 만드는 ‘콩나물시루’로 가득한 세상을 꿈꿔본다.



▲ 자수로 완성한 내 이야기가 담긴 나만의 책

#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광주의 문화예술교육을!



통신원  
정연이

“예술동아리 선정단체 워크숍, 필름에이지 간헐골 영화교실, 광주광역시청소  
년살디자인센터 수수학당, 창의예술교육연구소, 한춤예술단, 경자씨와 재봉  
틀, 시인과 함께하는 문학산책, 제 10기 통신원 역량강화, 북구 문화의집 예술  
아지트 북구인사이드”

총 9번의 문화예술교육공간을 방문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번 통신원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다짐했던 것은 ‘한 달에 1번, 기사는 꼭 빠지지 말고  
쓰자’였다. 그렇게 목표한 바를 이루었고 광주의 문화예술 공간을 취재할  
기회가 생겼음에 감사한다. 누구나 기획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취재를 준비하고 다녀오면서 광주에 참 많다고 느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광주는 문화적으로 즐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주변  
시민들도 꽤 많다는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내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알고 있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다.

통신원 선생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며 취재 준비를 하는 것도  
즐거움에 한몫했다. 다들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취재하려는 분야도 많이  
겹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서로 배려하며 골랐기 때문일 것이다. 모두들  
취재하면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우리끼리 말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시간이었다. 각자 서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찰과 아쉬운 점들을 토로했다.

통신원 담당자는 매월 10명의 통신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담당하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월말에는 한사람씩 기사를 다 읽고 수정사항도  
알려주셨다. 처음엔 기사 쓰는 것에 긴장이 너무 많이 돼서 스스로 많이 읽고  
보냈지만 나중엔 나태해져서 조금 읽고 보냈다. 정말 신기하고도 웃긴 것은  
노력을 많이 기울인 기사에는 수정사항이 매우 없었다는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수정사항이 많을 때 다시 한 번 통신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담당자 선생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통신원들이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해줘서 정말 멋지다.

마지막으로 나 스스로 아쉬웠던 점이 한 가지 있다. 소감을 쓰면서 확인해보니  
내가 취재한 곳은 절반이상이 실내였다. 실외 공간의 교육프로그램도  
다녀왔으면 나중에 내가 문화예술기획자가 되었을 때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  
아쉽다. 하지만 훌륭한 실내 공간에서의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광주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기획자가 된다면 취재를 하며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들에 신경을 써서 기획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획을 잘 이끌고 뜻이 맞는 여럿이 모여 광주 문화예술교육에  
싱그러움이 되고 싶다. 통신원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광주의 예문화예술교육을!

COLLECT  
NEWS



# 예술동아리의 가능성, 현장의 첫 워크숍을 방문하다

예술동아리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산을 움직이는 자는 작은 돌을 들어내는 일로 시작한다.”고 공자는 말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섣뜻 도전하지 않는다. 작은 돌을 드는 것처럼 시민들이 함께 문화예술을 알리고 참여한다면 광주에도 언젠가 예술 ‘산’이 만들어져 이리 저리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여기 남녀노소 나이불문 산을 움직여보기 위해 총 33개의 동아리들이 모였다. 작년에 이어 2019년에도 첫 돌을 들기 위한 첫 번째 워크숍이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 5명의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소개 시간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광주예술동아리사업은 예술을 사랑하는 지역의 아마추어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그들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33개의 예술동아리는 다양한 장르(미술·무용·음악·국악·서예·미디어·연극·사진·공예·문학 등)로 구성되어있다. 워크숍은 담당자가 사업 소개와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 문화코디네이터 소개 및 조별 만남 순으로 진행되었다.

**예술동아리의 든든한 조력자 문화예술코디네이터**  
동아리는 ‘문화예술코디네이터’라 불리는 문화예술전문가들과의 매칭이 이루어진다. 코디네이터는 문화예술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경력이 있으며 문화예술동아리 선정단체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소통이 가능한 자들이다. 또한 동아리와 월례회, 현장 의견 공유, 컨설팅 방향 등을 논의하여 오는 12월 결과발표회를 진행한다. 올해는 작년부터 함께 해주신 최진영, 김윤미, 한신희 코디네이터와 새로 오신 조은주, 이용화 코디네이터로 선정되었다. 세 분의 코디네이터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4개의 공통 질문과 답변을 들었다.

Q 문화예술코디네이터란 어떤 의미일까요?

“ 최진영 코디네이터 (이하 최진영) | 이거 아직 정의 안 됐어요. 정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재미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역할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안에서의 ‘문화코디네이터’라는 것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화코디네이터’라는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 내에서만 얘기하자면 저는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해요. 서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사람인거죠. 문화재단 안에서 사무직을 하다보면 아무리 예술인들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생깁니다. 코디네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예요. 따라서 선정 과정에서 분명히 이 분들의 사무적인 업무가 가능한가를 보거든요. 예술가로서의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 오피서로서의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겠다 싶은 분들이 뽑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개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윤미 코디네이터 (이하 김윤미) |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협력하는 역할도 하고 조력하는 역할도 하고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그런 의미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신희 코디네이터 (이하 한신희) | 어려운 질문이네요. 작년에 저희가 사업 끝나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는데 저는 도움이라기보다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이 긴가민가하고 활동을 해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렵고 ‘괜찮을까?’ 생각하고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잘하고 계신다, 이정도면 괜찮다, 앞으로 이렇게 더 잘해주시라’ 이런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오늘 참여하신 예술동아리 워크숍 소감이 어떠신가요?

“ 최진영 |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첫 사업이라 이런 것이 없었고, 동아리들과 먼저 만나 미리 일정을 짜는 게 좋겠다고 한 이유가 작년에는 첫 만남이 얼굴보고 대면하는 것이 아닌 전화로 했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입장에서 저희를 감시자와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서 왔다는 사실 자체로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김윤미 |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새로운 신생 동아리들이 많이 선발이 돼서 기대가 되요. 또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함께 만나게 되는 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한신희 | 작년에 사업이 늦어서 이런 자리가 없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요청을 많이 드렸어요. 꼭 초기에 강사님들과 대표님들과 함께 같이 만나는 시간 좀 갖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올해 이렇게 진행되어 좋았고요. 작년에도 해보니까 처음에 딱 갔을 때 그 서먹함과 예를 들어 인사를 다 못하고 가니까 처음 갔을 때 약간 거부감들이 좀 있으셨어요. 우리 감시하러 왔나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미리 풀고 갈 수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현재 맡으신 동아리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 최진영 | 총 7개 중 5개 팀이 신생동아리입니다. 비율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두 팀이 작년에 같이 했던 팀이다. 7개 팀에서 3팀을 알고 들어가는 것은 그 팀 간에 친해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죠. 또 경계심이 풀어집니다.

김윤미 | 저는 모두 신생동아리를 맡았어요. 신생동아리는 동아리로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고 본인들끼리만 했던 것인데 이번에 지원 사업을 좀 받고 활기를 띄워 보려고 하는 그런 의기투합이 된 단체들입니다.



▲ 각 조별 모임 (5개팀)

한신희 | 저는 7팀 중에 3팀은 작년에 맡았던 팀이고요. 나머지 4팀은 신생팀인데 좀 특이한 게 작년에 다 음악 팀이었어요. 올해는 미술과 공예 팀이 3팀 정도여서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새로운 분야라서 그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같은 문화니까 어떻게 서로 접목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대도 많이 크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Q 문화코디네이터로서 올해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진영 | 1차적인 목표는 이 분들이 아무도 사업 포기를 하지 않게 하는 것, 2차적인 것은 이 팀들이 하고자하는 놀이, 수업, 프로그램 진행들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코디네이터는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동아리가 코디네이터의 업적으로 평가받지는 않아요. 사업에서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발표회의 수준이 아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끝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윤미 | 올해 이 분들이랑 함께 잘 가서 ‘올해 동아리 사업 신청하길 참 잘했다.’ 생각하고 ‘또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에 대한 가교역할을 잘 하고 싶어요. 한신희 | 최대한 많은 팀이 그 안에서만 갇혀있지 않고 밖으로(사회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표회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과 섞어서 한다거나 연계해서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신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 드렸던 부분, 각 동아리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잘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끌어내서 서로 많이 만나고 많은 일반 사람들, 대중들의 앞에서 좀 끌어오고 싶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조금 생기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서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보여 질 수 있게 서로 만들어 가는 게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윤미 코디네이터와 동아리 모임



▲ 최진영 코디네이터와 동아리 모임



▲ 한신희 코디네이터와 동아리 모임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예술가를 간직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예술 동아리를 통해 하고자하는 목표를 이루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 예술 동아리 워크숍은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2019년을 나아가려고 한다. 재단에서 예술동아리를 지원함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은 전문적인 코디네이터가 그들의 수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도움을 준다. 문화예술코디네이터가 재단과 동아리에 매개자로서 컨설팅도 하고 네트워크도 쌓게 된다. 앞으로 그들의 행보를 기대하며, 모두 원활한 동아리가 될 것으로 예상해본다.

#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인생라운드#

“인생의 사계는 계절만큼이나 전환기로 점철되어 있다.”  
-심리학자 Daniel J. Levinson-

일반적으로 ‘생애 전환기’라 함은 신체의 상태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가기에 생애를 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만 40세와 만 66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주로 의학적 단어로 많이 사용된다. 개인의 삶이 길든 짧은 상관없이 주어진 생애기간 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굴곡진 전환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일생이다.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인 ‘마흔이란 무엇인가’는 20대인 나에게도 20년 뒤를 생각하게 만드는 마음을 제공한다. 그래서 만 40대나 만 66세가 아니어도 생애 전환에 대해 모두들 조금은 할 말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인생 전환기 시점을



▲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 박도빈 대표

맞은 광주 시민을 위한 ‘인생라운드#’ 워크숍이 지난 6월, 4주간 진행되었다. 광주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생애전환기를 보낼 수 있도록 광주문화재단에서 특별한 강의를 마련했다. 전 차시 출석자에게는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된다. 1차시는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2차시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3차시는 청년 대상으로, 4차시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강을 마치면 라운드토크로 강연자와 시민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이 시작된다.

우리 함께 성장하자

우리 주변에는 아동, 청년, 장년, 노년기 등 생애 주기 건마다 끊임없는 고민과 해결책이 요구된다. 이것을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명목에 따라 비슷한 교육, 가르침을 받으며 이대로 진행되어도 괜찮은 걸까? 개인들은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다르게 반응하며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다. 개인의 생애변화 또한 모두 계획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발생하기도 한다. 인생라운드 첫 번째 강연자는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의 정경운 교수로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으로서 몇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교육이 아닌 ‘배움’으로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닌 수많은 관계를 통해 자신이 배우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생애주기가 아닌, 생애전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하며 ‘우리’가 아닌 ‘우리들’로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떤 이유로든 타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것을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상호공존의 대상이 되어보는 것으로 삶을 이어나가면 된다. 두 번째 강연자는 무늬만커뮤니티 김월식 대표로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도대체 생애 전환기관 무엇이며 자신이 왜 문화예술교육을 하는지 설명한다. 일상적인 삶에서 관찰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말하며 제도화된 프로그램을 비판했다. 그 프로그램들은 잘 짜여진 시간 안에 미션을 수행하듯 참가자들에게 같은 수행의



▲ 라운드 테이블 진행 중인 김혜일, 양재혁 대표

속도를 요구하고 강박에 시달리게 만든다. 우리 뇌는 야생의 사고도구를 통한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이성과 감성의 균형 있는 사용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의 태도와 참여자들의 상상력이 함께 만들어지는 ‘마음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예측 가능성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부모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 그 나이에 누려야할 놀이 및 여가가 박탈된 채, 심리적으로 불만족 상태인 것도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이 아동·청소년에게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지금껏 다수 이루어져왔다. 두 가지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건강한 성장의 예측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컬쳐커뮤니티동네 대표 양재혁이 ‘칭찬’이라는 단어로 강연을 시작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며 칭찬은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은 과정의 공유에서 생선된다고 한다. 즉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포인트는 믿음과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과정의 생산이라는 뜻이다. 그는 지역아동센터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 문제에 집중하고 그룹홈, 일반 아이들까지 범위를 확장시킨다. 이렇게 과정으로의 집중을 시키면



▲ 라운드테이블 진행 중인 고영직 문화평론가와 정민룡 관장

아이들에게 결과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새로운 충격을 선사하게 된다. 결과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대상자들에게 특정되어진 유의미를 생산하게 된다고 말한다. 문화공동체 아우름 대표 김혜일도 이와 비슷한 해법을 전달한다. 자연에서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며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러운 관계를 통해 통합적 사고를 지녔던 아이들이 근대 교육에서는 시스템에 가두어지게 된다. 또한 우리 교육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다양한 열린 가능성을 바라봐야한다고 이야기한다.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점, 나에게도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우리 모두 1인 기획자

유행처럼 ‘청년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늘어난다는 것은 청년이 배려의 대상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 세대의 많은 청년들이 쌓아놓은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진입한 후 일 자리는 폭발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큰 변화를 위해 고단히 노력할 이유가 적어들텐다 따라 관심을 일상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의 대표 박도빈은 일상의 변화를 위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증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가 활약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되겠다. 동네형들 홈페이지지만 들어가도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청년 약국’이다. 2012년부터



사회적으로 청년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전국의 평범한 청년들이 모여 2박 3일 동안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생각과 모두 1인 기획자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한다. 박대표는 예술을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것으로 말하고 사람들과의 적당한 거리감이 커뮤니티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현재 뽕밭아마를 청년들의 기획을 덜어내는 것, 삶에서 우리가 덜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는 공장공장의 대표 홍동우의 이야기는 정말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다. 청년들이 살아가는 법은 시작이 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된다. 홍대표는 청년을 이해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뽕밭아마’이라고 말한다. 이곳은 독특하게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다. 홍대표의 고향이 목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마음속에 고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잃어버린 고향을 공동체에서 찾게 되었다고 한다. 덜어내는 만큼 버는 것, 부지런히 사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늘 간직하고 살았으면 한다. 청년들의 에너지는 그때만 존재하기에 현실을 직시하고 실패해도 뽕밭다고 말해주는 곳이 주변 곳곳에 있으면 좋겠다.



▲ 강의 중인 전남대 정경운 교수와 무늬만커뮤니티 김월식 대표

## 우리는 늘 변화한다

오늘날 성인기에도 생애전환을 자주 경험함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학습, 평생교육 등의 키워드들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 정민룡 북구문화의집 관장이 소개했다. 첫 번째는 광주 월산동 ‘달피마을’ 할머니들의 인생이야기를 주제로 한 예술교육프로그램 ‘달할매 학교’가 있고 두 번째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시작한 중장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경자씨와 재봉틀’이 있다. 그는 생애주기의 의미를 통합적인 ‘삶’의 연속 과정으로 보지 않고 연령기를 분절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보다는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앞서 정경운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와 같은 의견을 내세웠다. 전 생애 동안 인간은 발달, 유지, 쇠퇴를 통하여 변화한다. 생애 전환은 즉 자기 성찰의 의미이고 진정한 자기 성찰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된다. 문학 평론가 고영직은 이것을 ‘나이 없는 시간을 성찰한다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우리가 나이 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노쇠해가는 와중에도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나이 들과는 다르게 시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시인이 되고 누구나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새로운 과제는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만남과 대화를 확장해야한다고 말한다.

작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시민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민문화향유 실태조사에서 대부분 중년의 시민들은 아이들을 위해 문화 관람 및 체험을 하였지만 자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보지 못했이라며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싶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신중년들의 외침을 우리 사회가 하루 빨리 받아들이며 참가자가 문화생활을 즐길 줄 아는 자가 아닌 모두가 내 삶을 즐길 줄 아는 자가 되길 바란다.

# ‘한춤 예술단’이 들려주는 한춤 이야기

## 무용동아리 ‘한춤 예술단’



▲ 어려운 태평무 연습 중인 회원들

연한 새싹에서 어느덧 짙은 녹색의 한여름이 시작되었다. 무더운 여름 날씨의 등장과 함께 보슬비가 내리는 이곳. 서구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는 일주일에 1번씩 정기적으로 7명의 회원들과 김은정 강사가 모여 한국 무용에 열정을 쏟고 있다. 그들은 각자 한국 무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달랐지만 우리 전통 무용을 알리고자 무한 연습중이다. 마침 지난 3월 예술동아리 선정단체 워크숍에 취재를 다녀온 나는 한춤 예술단의 초대금 단장과 김외선 사무국장을 만났던 것이 기억났다. 춤을 추다보니 사람 수도 늘어나고 전문적으로 한국 무용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이 모임이 작년에 결성되었다고 단장은 말한다. 동아리를 결성 후 가장 도움을 받은 곳은 ‘광주문화재단’이라며 마음 편하게 김은정 강사님을 모시고 춤을 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했다.



▲ 김은정 강사의 도움을 받아 동작을 따라하는 회원들

“우리 동아리 회원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공간도 너무 좋고 솔직히 불편한 사항도 없어요. 한춤을 추러 오는 시간이 늘 힐링이 되고 좋아요.”

-한춤 예술단 조대금 단장-

한춤 예술단의 주요 활동은 이렇다. 연말에 큰 공연할 예정이고 한 달에 1번 이상은 꼭 공연을 하시는데 요양원 봉사활동, 버스킹 공연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요양원에는 지루함이 전혀 없으니까 아리랑에 맞춰서 하고 있고 버스킹 공연은 주로 전남 지역을 돌면서 하고 있다. 아직까지 충장로에서 진행한 적은 없다. 회원들은 다른 집단에서 배우면 1년 동안 공연을 1~2번 하는데 한춤 예술단으로 활동하면 행사 요청이 자주 들어온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연습은 2시부터 4시까지 하다가 중간에 3시에 잠깐 휴식을 취한다. 연습을 구경하는 동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그것은 김은정 강사가 시선 처리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는 것이다. 한국무용은 시선이 정확하게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밑을 보는 것도 아닌, 약간 먼 산을 바라보는 듯 멀리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아직 실제 공연을 보지는 못했지만 동아리 회원들이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춤을 추는 모습이 상상된다. 또한 야외공연 시, 빛의 각도에 따라 여러 색상으로 보이는 한복이 참 아름다워 보일 것 같다.

사진 촬영한 한춤 예술단이 입고 있는 한복은 모두 개인 소장으로 연습용이다. 공연용은 따로 있으며 비싸다고 한다. 비싸서 사람들이 함부로 한국무용에 도전하지 못한다고 아쉬워한다. 그렇다고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 중 한 몫을 하는 한복을 입지 않을 수도 없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다. 현재 한춤 예술단은 부채춤을 다지는 중이고 태평무는 처음 배운다. 사진으로도 보다시피 회원들의 나비처럼 가벼운 발걸음이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 가벼운 발걸음을 ‘검디딤’이라고 부른다. 연습 중 회원들은 질문이 많았고 강사와의 소통도 아주 잘 된다. 내가 보는 동안 연습도 수십 번 넘게 한 것 같다. 춤 동작 중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동작이 있냐는 물음에 동작보다는 호흡을 어려워한다고 한다. 무용은 깊이가 있어야하기에 호흡 또한 깊이가 있어야하고 산수화로 치자면 여백의 미가 있어야한다. 이 호흡은 바로 ‘단전호흡’이라고 하며 흔히 기체조 할 때 사용하는 호흡법으로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다. 배꼽 아래에 ‘단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김은정 강사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복식호흡을 하다가 성인이 되면서 흉식호흡을 많이 하는데 복식호흡을 아래서부터 끌어올리는 것을 단전호흡이라고 알려주었다. 호흡이 멈췄다가 뱉어야하는 부분이 단시간에 그런 느낌을 내기 상당히 힘들 것 같다. 회원들도 무용을 하면서 박자에 맞춰가며 호흡도 해야 하니 어렵고 특히 ‘태평무’ 박자에 맞춰

호흡하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대금 단장과 김외순 사무국장을 포함한 김정이, 박영진, 성기숙, 신현정, 하양순 회원들과의 만남은 특별했다. 회원들은 동아리 취재 소식을 접하고 영상 촬영까지 하시는 줄 아셨나보다. 나의 등장으로 인해 수줍어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제 여름이 지나 추수 때 누런빛의 녹색이 지나면 모든 녹색은 사라지게 된다. 겨울에 공연을 하고 다시 봄이 시작되는 순환시기에 맞춰 “한춤 예술단”도 다음 해를 준비할 것이다. 한춤 예술단은 건강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전한다. 가족들도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들 남편이 매니저가 되었다고 웃으셨다.

김은정 강사는 장동선 뇌 과학자의 말을 빌려 “뇌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3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기, 둘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기, 셋째, 몸을 많이 움직이기는 것이다. 재미있게도 춤을 추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어난다.”고 말했다. 현대사회만큼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회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무용을 고수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춤 예술단은 앞으로의 예술단 활동 및 계획에 대해 이렇게 전달했다. “한춤 예술단은 이번 문화재단 프로그램으로 예술단 역량을 강화하여 기존의 요양원 봉사와 버스킹 공연과 더불어 ‘한춤 예술단이 들려주는 한춤 이야기’로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공연으로 한국 전통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전승, 발전시켜 나갈 인재들을 찾아 한춤의 맥을 계속 이어 나가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2019년 예술동아리교육지원사업 중 무용 장르는 한춤 예술단뿐이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다. 춤을 춘다는 것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 사람들을 융화시켜준다. 함께 춤을 출 때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감, 그리고 특별한 동류의식을 느끼며 너와 나가 아닌 우리가 된다. 한춤 예술단의 열정과 깊은 사명감이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 나아가길 바란다.



▲ 부채춤을 선보이는 회원들



▲ 태극무 연습 후, 단체 사진



▲ 민요 ‘사랑가’ 연습 중인 회원



# 나에게로 다가서는 길, 경자씨들의 발걸음

경자씨와 재봉틀VI '원하는 STEP'

“사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계속 헤엄쳐!”

- 니모를 찾아서 '도리' -

인간이 살다보면 어느 순간 나의 존재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물 흐르듯 남의 생각과 패턴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고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험을 무수히 많이 느껴본 이들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들이 아닐까 싶다. 청년 시절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횃수보다 이제는 '○○엄마', '○○아줌마', '○○어르신' 등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불리는 횃수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새롭게 불리는 그 이름이 당신의 존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14년부터 생애 전환점을 맞은



▲ 경자씨의 신발론



▲ 탭댄스 공연

50~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자씨와 재봉틀'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어느덧 6년차에 접어들었다. 올해는 '원하는 Step'이라는 제목으로 신발을 매개체로 하는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다. 총 10회에 걸쳐 14명의 경자씨가 함께 걸음을 걸었다. 경자씨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마지막으로 경자씨의 원스텝, 수료식 및 패션쇼로 마무리한다.

패션쇼 장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경자씨들의 그림이었다. 일명 '신발론'이다. 경자씨들의 발 그림에서 지나간 세월 속 공허함과 단단함이 동시에 느껴진다.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진 것 같다. 내 몸 중 가장 고단하고 지루한 발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 뜻깊었다는 경자씨의 말이 떠오른다. 10회의 활동 중 그들의 걸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금 테라피를 통해 생각해보는 활동이 있다. 나도 내발이 가고자 하는 곳을 곰곰이 생각해본다. 또 경자씨들은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줄 신발을 그렸다. 그 신발 그림을 바탕으로 신발 수제 장인을 만나 신발 만들기 참여했다고 한다. 지금껏 진정 나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용기와 열정을 누군가에게 양보해야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경자씨들.

그 신발을 신고 패션쇼에서 워킹도 했다. 곧이어 광주 탭댄스 김호준 선생님께 배운 탭댄스를 공연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탭댄스를 직접 배워보는 기회는 흔하지 않아 다들 만족해하셨다고 한다. 너무 즐겁게 배우셨는지 공연 내내 축스러움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자씨들의 당당한 스텝이 자신감 넘쳐보였고 건강해보였다.

## 경자씨의 발걸음

경자씨들은 10회의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갈 때쯤, 양림동 서서평 길 투어도 다녀오셨다. '푸른 눈을 가진 조선인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서서평 선교사는 한평생을 조선인을 위해 봉사하다 삶을 마감하셨다. 저마다 인생을 살아온 시간과 경험이 모두 달랐을 경자씨들이지만 길을 걷는 내내 모두 같은 마음으로 걸었을 것 같다. 서서평 선교사처럼 경자씨들도 오늘 날 어머니로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셨을 것이다. 길을 걸으며 신중년 여성의 삶, '나'를 위한 삶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홀로 서서 마음껏 배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어머니들의 힘이 컸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자씨들의 위경을 감상할 시간이다. 이 순간을 위해 가지고 있던 무대울렁증도 훌훌 털어버릴



김선자 '하운'

만큼 연습을 많이 하셨을 텐데 워킹이 시작되자 나 또한 긴장되었다. 짧은 구간이지만 당당한 그녀들의 워킹. 인생은 그냥 헤엄쳐 보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경자씨와 재봉틀이 주는 감동은 남다른 것 같다. 프로그램을 6년간 유지하는 것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지만 사소한 것들에 대한 사유를 서로 나누며 자신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사소한 것들이 삶을 이루는 버팀목이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열심히 달려온 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는 힘은 참 대단하다.

#### 경자씨와 재봉틀 꼭 유지해주세요!

수료식 전 간단하게 참여 소감을 모든 경자씨들로부터 듣게 되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경자씨들은 이 프로그램이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하며 더 많은 홍보와 대상자들을 바라셨다.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그들의 아쉬운 마음이 나에게도 전달되었다. 많은 경자씨들의 소감 중 몇 가지만 뽑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매주 금요일 집에서 나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다.”  
-나경숙 ‘현서’-

“중년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보듬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모두에게 감사하다.”  
-최난희 ‘한송이’-

“프로젝트는 너무 잘 기획되었다. 영혼과 육체와 그리고 마음까지 이끄는 스텝이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을까.”  
-박수희 ‘그대는 내 사랑’-

“늘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지 제가 찾아간 것은 정말 오랜만이다. 신발을 통해서 프로그램 하나하나 너무나 정성을 담아 진행하는 것에 감동받았다.”  
-김한이 ‘바이올렛’-

“경자씨 다니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제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풀 수 있었고 스텝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조재희 ‘엘라’-

광주문화재단 이묘숙 사무처장은 “광주문화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특별한 충위를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회에 변화를 키워내고 있는 어머니이자 세상의 모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자씨들에게도 응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저 또한 문화재단의 가족으로서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경자씨들에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현장에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자씨들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처음 시작하는 설렘과 마무리하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경자씨들은 앞으로의 인생을 또 나아가야한다. 그래야 다음 걸음을 디딜 수 있다. 살면서 용기가 필요한 사자가 되어야하고 열정을 누군가에게 주어야하는 때가 있다. 경자씨들은 이미 한 발자국 움직였다. 경자씨들의 간절한 소망대로 프로그램이 유지되길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길 바란다. 나는 그들의 힘찬 헤엄에 박수를 보낸다.



▲ 6기 ‘경자씨와 재봉틀’ 수료식 단체사진



# 문화예술이란 술에 취하다



통신원  
이인행

처음에는 전시회 및 다양한 문화생활을 좋아하는 나였기에 영상통신원을 지원했을 당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물며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제작하며 다양한 경험 및 문화를 즐길 수 있었으니 누구보다 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거센 파도 같던 나의 자신감은 금방 잔잔한 바다로 변하였고 문화라고 하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난 세차게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난 기분으로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영상통신원으로서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마침 문화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 중이었다. 통신원으로 현장을 방문한 나였지만 마법에 걸린 듯 참여자들과 같이 문화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배우며 강의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매달 다른 현장 다른 문화예술 등을 보며 문화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알 수 없는 그 매력에 중독되듯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하며 찾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었다. 그 중 나를 이렇게 만든 몇 가지 이유를 뽑자면 현장에서 조용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문화재단 관계자분들의 노력과 상냥함 참여자들의 티 없이 맑게 문화예술을 즐기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약 1년간의 통신원 생활이 남들에겐 짧다 하면 짧고 길다 하면 긴 시간이었지만 나에게 있어선 어떤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과 시간이었고, 내가 보는 세상의 눈을 더욱 넓게 만들어주었다.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같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며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던 통신원분들 및 문화재단 관계자분들에게 어떤 문장을 써야 내 감사한 마음이 잘 전달될지 고민될 정도로 감사한 1년이였다.

COLLECT  
NEWS

# 영상취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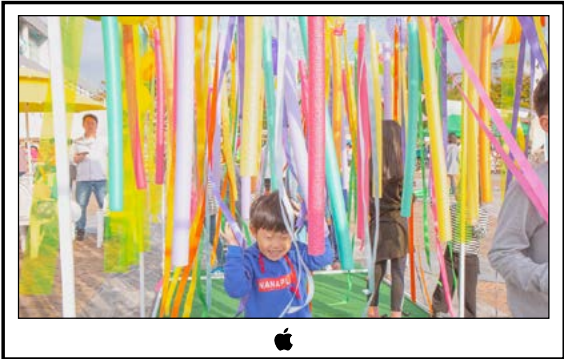
제79호(4월) 새로운 “불”을 지피다  
주말예술배움터 인큐베이팅 워크숍 현장



제79호(4월) 새로운 “불”을 지피다  
창의예술학교 입학식



제85호(10월) 가을이 영글다  
문화예술교육축제 <어린이목수축제>



86호 축제를(11월) 여행하다  
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제81호(6월) 세계로 뛰어올라  
토요문화학교 인큐베이팅 현장학습



제82호(7월) 동네가 흐른다  
갠지갠지 모내기 || 북구문화의집



제87호(12월) 지역을 엮다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지역씨의 인생부록>



제87호(12월) 지역을 엮다  
창의예술학교 졸업식



제83호(8월) 노닐어보자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경자씨와 재봉틀 VI-원하는 Step>



제84호(9월) 생의 한 가운데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청년라이프디자인워크숍(스스로 걷다 짓다 눕다)'



# 2019 뉴스레터 주제목록

## 제79호 새로운 “불”을 지피다

전문가칼럼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배움, 광주 문화예술교육	정혜영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일반통신원	우리가 모이면 예술꽃이 핀다는 것을 안다	마민주
일반통신원	예술동아리의 가능성, 현장의 첫 워크숍을 방문하다	정연이
일반통신원	오롯이 자기 자신이 되기 //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	김수영
일반통신원	향토문화를 세계로 // 동구문화원	송진주
일반통신원	지역민의 일상이 지역의 문화로 // 서구문화원	김미경
일반통신원	자연, 역사,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남구의 봄 // 남구문화원	김재철
일반통신원	북구의 문화사랑방 // 북구문화원	오지향
일반통신원	일상에서 예술을 가꾸는 문화예술 키움터 // 광산구문화원	김수환
영상통신원	주말예술배움터 인큐베이팅 워크숍 현장	이인행

## 제80호 넘실거리는 오월

전문가칼럼	광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단상	박준수   광주매일신문
일반통신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광주의 문화예술교육은 새싹을 틔우는 중	김수환
일반통신원	“우리의 움직임은 춤이 될거야!” // 댄스킵퍼니 베베	김태희
일반통신원	영광진장으로 시작해도 괜찮아 // 문화예술교육연구소일상	이하영
일반통신원	오월의 광주 마을영화로 물들다 // 필름에이지	정연이
일반통신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 미디어아트로 말하는 스마트 홈	김재철
일반통신원	광주의 청년들이 5월을 기억하는 방법	이하영
일반통신원	토요일의 문화난장! //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마민주
일반통신원	돌아온 불명의 여인 // ACC 예술극장	송진주
일반통신원	예술과 발맞춰 나아가는 시장, 대인예술시장	김수영
일반통신원	역사를 간직하는 방법 // 광주시립미술관	이혜원
영상통신원	창의예술학교 입학식	이인행

## 제81호 세계로 뛰어올라

전문가칼럼	‘처음의 시간, 끝없는 시작-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본부장
일반통신원	노는게 아니라 손으로 배우는 중이에요! // 북구문화의집	이하영
일반통신원	조물조물, 아이들 손에서 다시 태어나는 고물의 비상 // 시소센터	김수환
일반통신원	누군가의 기억은 훗날 역사가 된다 // 문화점방	김수영
일반통신원	술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생생체험 // 협동조합산림문화연구소	김재철
일반통신원	작고 여린 손으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소리 // 광주시터문화예술단	김미경
일반통신원	틀림이 아닌 다름 //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김태희
일반통신원	5월의 어느날 // 광주국제교류의 날	이혜원
일반통신원	한복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평화로운 시간 // 샹디자인센터	정연이
일반통신원	우리가 함께 만드는 평화 // How Fun 5	송진주
일반통신원	국악, 소리의 바다를 건너 // 풍류달빛공연	마민주
영상통신원	토요문화학교 인큐베이팅 현장학습	이인행

## 제82호 동네가 흐른다

전문가칼럼	독막이와 쟁가가 사는 마을	김옥진   마음놀이터
일반통신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인생라운드#’	정연이
일반통신원	백수 또 하나 세계를 열다 // 아이엠	김미경
일반통신원	‘나’와‘당신’, ‘세상’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한 공부 // 청년인문공간 러브앳프리	이하영
일반통신원	한 칸 한 칸 나를 담는거야 // 은암미술관	김수환
일반통신원	작은 것들을 위한 움직임 // 태이움직임교육연구소	김재철
일반통신원	엄마들의 숨겨진 흥과 끼를 찾아서! // 마마굿즈	송진주
일반통신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프로그램이 온다 // ACC 전문인력프로그램	이혜원
일반통신원	아주 어린 사람들의 숲 // 광주시립미술관	마민주
일반통신원	1930년대로 통하는 비밀의 문 // 1930양림썰렁	김태희
일반통신원	‘나’에게 다가가기 // 아우라 팩토리	김수영
영상통신원	캔지캔지 모내기 // 북구문화의집	이인행

## 제83호 노닐어 보자

전문가칼럼	경자 씨, 그로부터 5년 후	임아영   샹디자인센터
일반통신원	달(Doll)남아 내 에길 전해줘 // 아르떼 창	송진주
일반통신원	“가족과 함께 일상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오감놀이” // 메이아이	김미경
일반통신원	‘한출 예술단’이 들려주는 한출 이야기	정연이
일반통신원	그라제! 여름에는 예술바캉스 즐기러 가야제! // 광주공영예술축제 ‘그라제’	이하영
일반통신원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 2019 세계청년축제	마민주
일반통신원	달빛 머금은 한지 등 아래서 차 한 잔, 판소리 한 바탕 어떠세요?	김수환
일반통신원	안녕, 안녕하니? // 샹디자인센터	김수영
일반통신원	5인 5색 그들이 말하는 도시 // 2019미디어아트 레시던스 기획전	김재철
영상통신원	경자씨와 재봉틀VI-원하는 Step //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이인행

## 제84호 생의 한 가운데

전문가칼럼	누가 부르지?	김현주   A.C.클리나멘
일반통신원	나에게로 다가가는 길, 경자씨들의 발걸음	정연이
일반통신원	아이들 손에서 탄생한 음식이 예술이 되는 시간 // (사)미래인재UNIV	김미경
일반통신원	7080의 유쾌한 반란! 인생, 지금부터 시작인디? // 봉다리콘텐츠연구회	김수환
일반통신원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 교과연계통합예술교육 ‘아이엠쟁’	김수영
일반통신원	우리에게 필요한 ‘선생님’, 우리를 기다리는 ‘문화예술교육사’ // 농성문화의집	이하영
일반통신원	자연에서 만난 최고의 놀이터 // 서구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송진주
일반통신원	세상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은 사람들에게 // ACC 어린이문화원	마민주
일반통신원	익숙한 동네를 여행하기 // 전지적 동네 시점	김태희
일반통신원	당신은 지금 뉴트로 댄스의 매력에 빠지셨습니다 // 퍼블릭프로그램	김수환
일반통신원	음악으로 하나 되는 뜨거운 여름날의 판타지 // ACC월드뮤직페스티벌	송진주
일반통신원	달빛 아래 빛나는 동구, 발걸음 따라 쌓이는 광주 이야기 // 동구달빛걸음	이하영
일반통신원	가치에 ‘같이’를 더하다 // 양림어린이예술학교	김재철
영상통신원	청년라이프디자인워크숍(스스로 걷다 짓다 놀다) //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이인행

## 제85호 가을이 영글다

일반통신원	예술에 대한 마음이 자라나는 콩나물시루 // 책문화공간봄	이하영
일반통신원	나의 삶이 영글다 //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모임 ‘서로배움’	김재철
일반통신원	청소년을 위한 꿈의 글쓰기를 만나다 // 참한 창작소	김미경
일반통신원	내담과 정성으로 자란 자연 놀이터 // 놀이요점방	송진주
일반통신원	마음으로 퍼지는 나와 너의 색깔 // 광산청소년수련관	송진주
일반통신원	마음의 기록을 쓰는 과정 ‘시(時)이야기’ //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정연이
일반통신원	책의 숲에서 하루를! // 남구민 북 페스티벌	김태희
일반통신원	식물, 광주, 녹색 이 중 하나라도 마음에 든다면 찾아와요 파종모종	김수환
일반통신원	할머니 품에서 듣는 그림책 이야기, 다시 동심으로 // 운암도서관	김수환
일반통신원	조각조각 꿈들의 어울림, 이야기꽃으로 피어나다 // 이야기꽃도서관	김수영
일반통신원	삶을 바꾸는 질문이 시작되는 곳 // ACC 문화정보원	이하영
일반통신원	바우야 그리자!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마민주
영상통신원	문화예술교육축제 <어린이목수축제>	이인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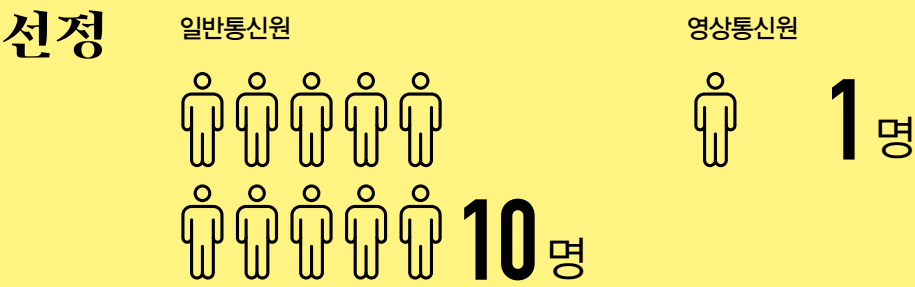
## 제86호 축제를 여행하다

전문가칼럼	놀 때가 가장 좋은 날	신희홍   태이움직임교육연구소
전문가칼럼	지속가능한 지역축제에 대한 고민	김꽃비   주스컴퍼니
기획특집	베니스 비엔날레, 시대를 관통하는 미술축제 현장	정윤정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일반통신원	지금이 그때야 그래, 바로 놀 때! // 아트날라리	김수환
일반통신원	상상력을 지어보자!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간 // 어린이목수축제	김태희
일반통신원	예술 경험과 공동체 // 마음놀이터	마민주
일반통신원	꽃 같은 인생의 파노라마 // 푸른연극마을	송진주
일반통신원	얼씨구! 지화자! 좋-다! // 호동이 풍물패	김수영
일반통신원	목포로 떠나는 ‘남만’당일치기 여행기	정연이
일반통신원	삶의 공간을 예술로 물들이다 // ACC프린지인터내셔널	김태희
일반통신원	광주,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다 //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김재철
일반통신원	달빛이 모여 하나되는 우리 // 달빛청년어울림한마당	송진주
일반통신원	결국, ‘몽쳐야 산다’청년들이 직접 만드는 네트워크	김수환
일반통신원	시월엔 전통문화와 사랑에 빠져보자 // 무등울림	이하영
일반통신원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 빛나는 인문학 축제 // 굿모닝양림	이하영
영상통신원	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이인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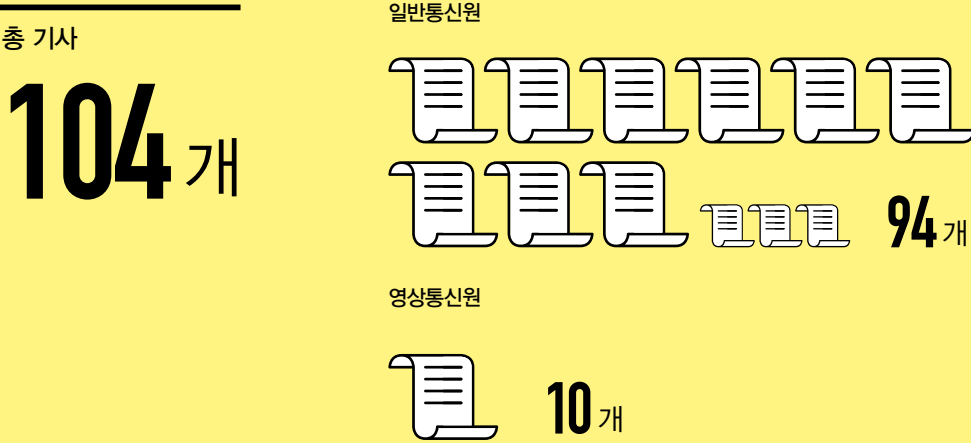
## 제87호 지역을 엮다

전문가칼럼	2019 광주문화예술교육의 흐름과 방향	정민룡(북구문화의집)
전문가칼럼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풍경을 상상하며	최지만
전문가칼럼	문화예술교육, 시작이 반이다	채성태
일반통신원	소소하지만 행복한 그들의 결실	김수환
일반통신원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는 이곳은 ‘소·행·성’	이하영
일반통신원	새로운 나의 의미를 찾는 시간 //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지역씨의 인생부록>	김태희
일반통신원	음악요정들과 떠나는 바이올린 여행 // 용봉청소년문화의집	송진주
일반통신원	늦가을의 블루밍, 우리가 꽃피우는 시간 // 굿슨캘리그라피+하란방+코리안티크	김수환
일반통신원	더 많은 이들이 ‘very good’을 외칠 수 있기를 //	이하영
일반통신원	부담 없이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알아볼까요? // 태이움직임연구소	김재철
일반통신원	예술이 일상을 응원하는 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 // 문화콘텐츠그룹잇다	마민주
일반통신원	우리 지역 밥상에 손가락 얹으러 오실 분~ // 북구문화의집	정연이
일반통신원	선물 주는 산타는 누가 선물을 줄까? //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김수영
일반통신원	함께 만들어 나가는 놀이터 // 광주광역시봉선청소년문화의집	김태희
일반통신원	유쾌한 토요문화난장, 그 대장정의 막! // 아시아프린지페스티벌	마민주
영상통신원	창의예술학교 졸업식	이인행
영상통신원	지역씨의 인생부록 //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이인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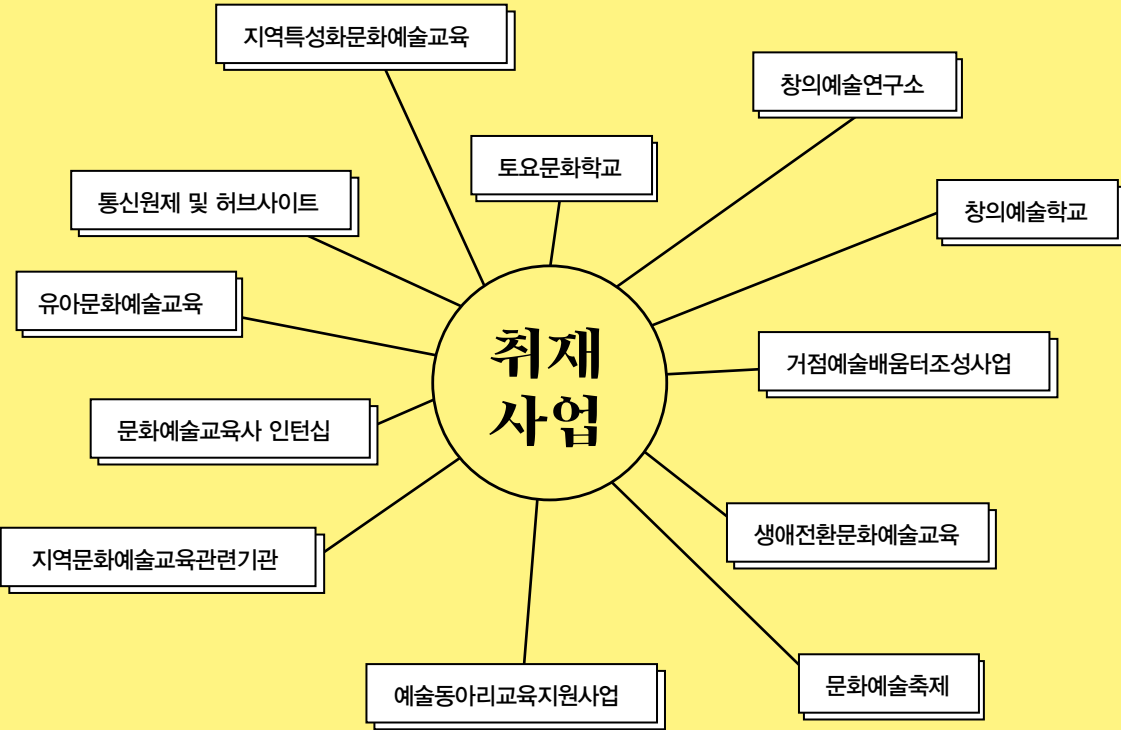
# 숫자로 보는 2019 통신원제 취재 결과



## 통신원 기사



## 취재 장소





닫다

2019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모음

일상이 행복해지는

##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팀장

정혜영

“나는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프로그램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참석하는 날은 설레었어요. 왜냐면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랄까...”

-경자씨와 재봉틀

“나만의 시간으로 온전히 나로 돌아오는 시간”, “신청할 때는 부담스러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해요.”

-지영씨의 인생부록

“내년에도 또 올거예요!”, “목수축제 참여하고 집에 오면 엄청 빨리 자요. 게임을 못해요. 호호호”, “아이들이 3일 만에 이렇게 만들다니, 이런 능력이 있었다니 놀라워요.”

-어린이목수축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바라는 문화예술교육은 세대를 아우르고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누구나 즐기는 그래서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개인이 전인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생애통합적, 세대통합적, 계층통합적, 장르통합적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 해 동안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함께 해주신 전 문가 선생님들, 유관기관 담당자님들, 통신헌원님들, 팀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결과자료집 2

## 올림

발행처	광주문화재단
발행인	김윤기
발행일	2019년 12월
기획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구성	정혜영, 송선아, 오지향
주소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12번길)
전화	062) 670-5763
팩스	062) 670-5769
이메일	gjarte@hanmail.net
홈페이지	www.gjarte.or.kr
디자인	씨몬디자인
인쇄	맥스타